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음복: 김홍진, 김정현, 최 정, 김영아, 이경희, Moss Kim, Ethin Kim, 아우용
-방문: 한정만, 함영숙, 각일현, 조은영, Goo Guangsho, 아예스더

* 신년 다니엘 세 이레 특별새벽기도회

-01.08(월)-31(수) 21일간
-주제: 당신의 기도 응답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God's answer is on the way!)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와 함께 생활에서의 축복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 김삼환 목사 초청 신년축복성회

-01.30(수) 8:00pm, 예루살렘성전 주변의 불신자, 초신자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 강영우 박사 초청 온가족비전집회

-01.12(금)-14(주) 예루살렘성전 특별히 금/토 일요일 저녁집회에 영어권 자녀들(어린이, 중고등부) 및 청년들과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성회 이반젤산학대학(학장: 김남수 목사) 후원의 밤

-01.14(주) 4:00pm, 예루살렘성전 -강사: 강영우 박사
-찬양: 예루살렘성가대/말씀선교회합창단/장로성가대 (예배 후 잔치가 있습니다)

* 에클레시아 전체 Reunion(제1기-35기)

-01.07(주) 3:00pm, 예루살렘성전 -문의: 백준성 장로(718.743.2874)
-간단한 저녁식사가 준비됩니다.

* 제36기 에클레시아

-2007년 01.14(주)-17(수) -다케타: 주만중 장로(516.484.6868)

* 스테반청년회 수양회

-1부: 01.18(목)-20(토), 강사: 김호성 목사, 주제: "I stand"
-2부: 01.26(금)-27(토), 주제: "Passel"

* 사랑교구 신년 연합예배

-01.14(주) 6:00pm, 최선호 장로 대 -문의: 주언중 장로(201.491.1153)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2안수집사선교회: 1:30pm, 5층 1강의실 -제3권사회: 켄즈2부예배 후 7층
-제4권사회: 켄즈2부예배 후 7층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1.07(주)	01.14(주)	01.21(주)
김관유,김기성,김남근 김대원,김성태,김장훈	김재홍,김정열,김종철 나경식,문준이,만중기	박계근,박병욱,박종현 박희도,박희식,박창근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언택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6층 신학교 예배실(오른쪽 끝 방)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상담하실 분은 주일 아침 8시에 오셔서 예약자에 이름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 식당봉사교구 01.07(주)-질재교구/01.14(주)-인내교구/01.21(주)-사랑교구

* 알립니다

-새 해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목장에 소속하신 분들은 목장별로 받으시고, 아직 소속이 안 되신 분들은 안내소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도용 팔간신문(세밀리 투데이) 신년 1월호가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1부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도용 및 염소용은 다음 주일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01.08(토)부터 매 주 토요일 6:30am에 라디오코리아 AM 1600에서 담임목사님 설교가 방송됩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선교를 위한 헌금(52주 주정헌금, 사랑의 한 해 모금함)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매 주 목요일에 인쇄합니다. 광고는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의 월례회를 포함한 모든 모임은 먼저 행정실에 허가를 받아야 장소 사용이 가능하며 주보에 광고가 됩니다.

-세월안내: 중보기도의 사랑(리처 하워드, 노만 그림), 모험으로 사는 인생(폴 투르너), 내면세계와 질서와 영적 성장(고든 맥도널드), 한 길 가는 순례자(유진 피터슨), 열매 맺는 지도자(존 맥스웰), 김남수 목사 저서 & 태일, 시편/해박국/사무엘 장년성경공부 태일, 김종순 목사 부흥회 태일

예 배 안 내

	번 하 랑 성 전	번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1 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10:30am (Promise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데반장년부 (토)7: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정,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복장
사랑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7
희다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042	멕시코	9
희관	최 의 호 장로	201-588-0049	코스타리카	11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5-7435	도미니카공화국	14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3
양선	최 완 호 장로	516-292-3019	남몰리비아	16
소망	이창언 안수집사	718-961-5430	북몰리비아	13
충성	최 용 선 장로	631-277-5662	세루	9
평안	오 석 윤 장로	631-242-8480	탄자니아	11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057	베네수엘라	12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8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9
절제	최창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11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2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타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가톨릭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썬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멜리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m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세계 선교 센터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주 입 에 배 순 서

사회: 허연형 목사(권)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산경 다같이

찬 송 찬 13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많은이

이유찬 장로(변)/성원대 집사(권1)/김종국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변] 주님을 성회하 (시온성가대)

[권2]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변·권2·공은] | 산을 넘는 발아어 | "시 127" 김남수 목사

[권1] | 회고와 전망 | "사 1:16-17" 김남수 목사

성 찬 식 김남수 목사

헌 금 다같이

최남수 집사, 이흥주 집사(권2)

광 고 사회자

헌 아 식 김남수 목사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만 하 탄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조3부(공은)
01/14	박만수 집사	장인주 집사	최홍선 장로	사회자
01/21	이강길 집사	조소현 집사	이용한 장로	사회자
01/28	임일진 집사	조인화 집사	공병희 장로	사회자
02/04	최홍선 장로	조현섭 집사	김종영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설교	허연형	이승찬	채이요	김남수
사회	허연형	김남수	임용수	인진성
기도	이하윤	장재원	전일일	정인주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복음을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카인과 경배(Worship)

양곡 : "여호와 나의 목자" (복) "가슴마다 피도친다" (찬303)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 2006년 마지막 기도(사: 16-18) 김 남수 목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내일을 설계해야 하는지, 오늘 말을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52주, 365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또 그렇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셨지만 살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왔 다갔다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향한 새로운 바전을 우리 마음속에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라는 본은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이라는 책과 강의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세 가지 물결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농경 사회'로서, 사람들이 육속이나 사냥 등으로 산과 바다로 계속 이동하던 moving society에서 이제는 농사짓고 열매를 거두는 정착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산업화 사회'라는 물결입니다. 50여 살만서 좀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기계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대량 생산하는 산업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장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다 보니 산업화, 도시화 현상이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결국, 산업화의 물결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고,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벌고, 땅을 돌리고, 기쁨을 찾고, 생산을 해도, 먹는 것이 그렇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세 번째 물결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정보 시대'라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 기술은 인류에게 제 3의 물결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레이저,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 옛날 산업 시대에 있던 기계 전부 다 버려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의 물결, 즉, 21세기 인류를 바인류화 하며, 인간을 바인류화를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찾아다니다 보니,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수천만의 사람들이 Real Life와 Cyber Life의 두 세계를 오고 가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물결이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바람과 함께 마치 쓰나미처럼 밀어닥쳐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진짜 자기와 Cyber상와 자기 사이에 혼란이 와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주는 비즈니스가 변신하는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4의 물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4의 물결은 '영성의 물결'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매가 영성입니다. 인류 최후의 해명은 사랑의 해명이고, 인류 최후의 희망은 성령의 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 받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깊은 동정을 갖고, 지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대한 성령의 바람, 영성의 새 물결을 일으켜서 바인류화, 바인류화라는 거대한 제3의 물결을 막는 한편, 이 영성(High touch)에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High tech) 등을 엮어서 제4의 물

결이 세계 각처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선교안을 믿습니다. Sandline교회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Network를 통해서 여러 큰 교회들을 배우고, 전 세계 교회들이 묶어서 바전을 나누고, 자기 민족과 자기와 아이들과 자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회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연합해서 이 거대한 제3의 물결을 막아낼 뿐 아니라, 오히려 바꾸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마다 피도친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넓고 푸른 대양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수심 거대한 꿈을 꾸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래서 푸른 바다를 가르고, 끝무 오선의 넓고 푸른 대양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싣고, 달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제게 동전 모금함은 무엇이고, 봉투는 무엇이라고 물어봅니다. 동전 모금은 박스는 아이를 점심 식사 먹이는 것이고, 봉투는 세계 교회를 짓고, 그 교회가 학교를 짓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 헌금입니다. 25년 하리 동안 백만 개가 모이면 백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달에 3천불씩 쓰면 1년이면 365천원을 씁니다. 반면에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한 달에 2000원 쓰면 1년이면 24000원 씁니다. 내기 구한 말은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드리고,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므로 값없이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최선의 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4의 물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단 항공모함이 자질로 바람에 쏠려 가는 것 아닙니다. 기도와 물질로 많이 주어야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역사를 위한 52주 헌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지나가면서 묵었던 항구의 빛들을 찾아 주십시오. 좌에 묶었던 녹슨 사슬도 끊어 주십시오. 욕정에 갇혔던 죄의 생활도 용서하고 나오십시오.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락미련 누더기 생활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십시오. 습관이라는, 속상이라는, 편견이라는 화와 얼룩진 야것을 벗어 버리고 나오십시오. 2006년이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영원히 가고,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녁과 나눔)

1) 기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사랑의 한 끼 헌금 박스) 및 주일 세계성전 건축헌금장정서를 온 가족이 하나씩 받고 더 참여합니다.

IV. 사역(Work)

동성 기도: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한 해를 주셨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의 피로 씻어 주시고, 한 해를 잘 마치게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 구하리만 다른 것은 다 체험 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결단합니다.

다른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3) 대한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음목: Jonathan Lipke, 조광희, 석미옥, 민영순, 김구연

-평생: 장숙자, 권영희, Seve, 조양희, 조하은, 조하영, 양현준

■ 신년 다나엘 세 이레 특별새벽기도회 (01.08일) 31(수) 21일간

-주제: 당신의 기도 응답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God's answer is on the way!)

■ 하나님의 성회 이반젤신학대학(학장: 김남수 목사) 후원의 밤

01.14(주) 4:00pm, 여수살림성전 -강사: 김영우 박사

-전망: 여수살림성가대/말씀선교화합단/장로성가대 (예배 후 민찬이 있습니다)

■ 제직회 (01.19(금) 금요일예배 후 세리집사 이상 모든 제직의 참석 바랍니다.

■ 세례자 명단

제삼아, 조요진, 최선녀, 손연정, 유선미, 유서희, Christine Yoo, Bokman Brown

한상원, 김연준, 이준식, 이경석, 조준형, 유근, Alan Wu

■ 언어자 명단 최현민, 최고은, 위주희, 서예은, 차은호, 이효성, 정진

■ 안수집사선교회 헌신예배 (01.19(금) 금요일예배 시

제123안수집사선교회원 및 가족들의 헌신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36기 에클레시아

01.20(토) 01.14(주) 17(수) -디렉터: 주만중 장로(016.484.8888)

■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1.21(주) 12(수) 예배 후, 안내석(오늘부터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비: 영주권, 소셜번호, 한국어교, 여행기록, 규격사진 2매

Fee: \$330(Check or Money Order, 3월부터 \$800로 인상됨)

■ "Treasure" 단원 모집

-대상: 유년부 1학년-2학년, 3학년-6학년 Youth Group 7학년-12학년

Young Adult 18세-25세 -문의: 김양숙 집사(201.767.7175, 201.688.7400)

■ "History Maker"(청년 연합 집회)

01.20(토) 7:30pm, 21(주) 1:30pm, 은누리교회, 스테반청년의 연합

■ 스테반청년의 수양회

1부: 01.18(목) 20(토), 강사: 김호성 목사, 주제: "I stand"

2부: 01.20(금) 21(토), 강사: 김하나 목사, 주제: "Passer"

■ PGM선교회 소식

-원혜회: 01.21(주) 5:00pm, 순문달 집사 대(대상: PGM 선교학교 졸업생)

-광조파하사역 세미나: 01.27(토) 5:00pm, 28(주) 3:00pm, 5층 강의실

01.21(주) 12(수) 식당 앞구에서 탄자니아선교를 위한 바지가 있습니다.

-문의: 유상용 전도사(718.219.9914), 김영호 집사(917.886.4005)

■ 중국어 동호인 모임

-매 주일 1:30pm, 6025(중국어 배울 분 누구나 환영)

■ 사랑교구 신년 연합예배

01.14(주) 6:00pm, 최성호 장로 대 -문의: 주연중 장로(201.491.1153)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5권사회: 1:00pm, 8층 아사선교회실 -제6권사회: 1:00pm, 7층 해외실

■ 파직장 봉사자 명단

01.14(주) 01.21(주) 01.28(주)

김재용,김정일,김종철 박계근,박병국,박종현 서 법,석병정,오재용

나경식,문순이,민중기 박희도,박희시,백창근 은규주,유일용,이강길

■ 의료위원회의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식당봉사교구 01.14(주)-인내교구/01.21(주)-사랑교구/01.28(주)-자비교구

■ 알립니다

-50과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시는 Ted Kim 집사를 위한 공수기증행사가 오는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식당앞구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선교구 유병수(유영자) 집사 가정의 Daniel 군과 홍창희(홍광순) 집사 가정의

David 군이 장애아동 서비스센터인 '코코'에서 2000 시간을 봉사한 공로로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은혜교구 양철호(윤정) 선도의 부친 양승규 성도께서 01.05(토) 소천하셨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500 선교헌금 하셨습니다.

-이런부 집사께서 Promise Cafe에 Coffee Machine 3 대를 기증하셨습니다.

-전도용 월간신문 <매일의 루터> 신년 1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만큼 가져

가셔서 전도용 및 업무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장모임가이드 교회행사소식, 헌금통계 등의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주보를

소중하게 다루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통계: 아동급식헌금-\$7,295(31,140 개 분), 주정헌금-\$24,643(1,062 명 참여)

Total \$31,938.55 12차 주정헌금이 탄자니아 위생교회 건축을 위해 송금됩니다.

-서침안내: 도전과 기회 3C 혁명(김영우), 새벽 나눔(김성환), 풍성한 축복(김

성발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엘레 타운즈), 소망지는 낙심하지

않는자(죽현홍)

예 배 안 내

	행 하 탄 성 전	캠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1 부(영성) 장년성경공부 8: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강제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페인어장년부 (01.07.30pm)
전양 예배		수요 전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현,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BN)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랑	주 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7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9
희락	하 의 호 장로	201-568-0949	코스타리카	11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5-7406	도미니카공화국	14
자비	김 종 양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3
양선	최 원 호 장로	516-292-3009	남볼리비아	16
소망	이장연 안수집사	718-961-5400	북볼리비아	13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9
관광	오 석 운 장로	631-242-8480	탄자니아	11
민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세네갈	12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8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9
질책	최상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11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캠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행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신 복 음 주 육 교 회
김남수 목사님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2)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대표기도 밑은이

박민수 집사(권1)/정영주 집사(권1)/최홍선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찬1】 기뻐 찬양해 (시온성가대)

【찬2】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찬.권2】 고난과 역경을 축복의 몸토로 삼으라 1

"고후 12:7-10" 김영우 박사

【찬1】 산을 넘는 발아래! "시 127" 김남수 목사

【찬문】 성경적인 교육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으라!

"골 3:21" 김영우 박사

헌 금 다같이

신정주, 최숙희 집사(권1)/이흥주 집사(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맨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조3부(불문)		
01/21	이강길 집사	조소현 집사	이용찬 장로	사회자		
01/28	임일진 집사	조인화 집사	공병희 장로	사회자		
02/04	최홍선 장로	조형삼 집사	김종영 장로	사회자		
02/11	장성수 집사	최형식 집사	김철후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cheyo	Richardson	김남수	허연형	임용수	김상래
사회	이영서	이영서	김성용	허연형	임용수	김상래
기도	최상식	최우준	최 중	한승만	홍승관	김상순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가뻔한 일, 감사한 일, 힘든일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죽: "여호와 나의 목자"(해) "가슴마다 파도친다"(찬303)

2) 나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산을 넘는 발아래(시52:7) 설교자: 김 남수 목사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07년, 새해는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07년은 세계 성전 사대를 열어 주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Promise Ministries의 Global Mission Network라는 큰 주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세계 선교의 최우선 전략인 아동 교육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의 최우선 관철인 빈민 아동, 기독교 학교, 급식과 교육이라는 큰 이슈를 실행하고 연구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Promise Ministries가 전 세계에 연결 고리를 가지고자하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팀 워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세계선교넷워크(Global Mission Network)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함으로써 동일 언어권, 동일 문화권, 동일 민족, 자기 민족과 오해의 이웃에 있는 나라까지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탄자니아, 중국, 한국, 태국, 브룬스, 말라위, 아르헨티나, 달라스,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교회들이 연봉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급하고, 혼자서는 안되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이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 투쟁하고 싸우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군을 만들어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2007년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꿈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지와 산을 넘는 발아 아래 그리 아름다운고"(사 52:7) 발은 원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대다가, 산발 속에 갇혀 있어 냄새가 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잘 가꾸어서 예쁘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요, 사람들이 그 발을 가꾸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한 한 해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헌신 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금년은 항공모함이 출정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유람선에서 항공모함으로 구조 변경을 선포합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자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불평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어말하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아무튼 2007년은 우리가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면서 대륙과 공중과 바다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와 역사가 펼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교 지도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일을 감당하는 첫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일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들은 우리가 섬김하고 섬김에서 이 만큼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자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007년은 전사제제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평화 제제에서 전쟁 모드로 교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고, 여유와 불평과 핑계가 너무 많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어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요즘 군함 사진들 자주 보여주니까 전쟁 전선주의자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을 상

징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전쟁하자는 이야기기 아닙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필요하고, 싸우는 아내야 하고, 죄는 뿌려야 하고, 무지와 가난과 자주는 예수에 이름으로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먼저 항공모함이 해 주신 연료를 통해서 합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교인이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자를 아끼고, 모든 재물을 모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드 비전 한 비아책의 책을 보니 아프리카의 한 오지에서 1봉을 가져온 4인 가족이 한 주일을 먹는다고 합니다. 1봉이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분들을 가족들이 1주일 동안 살아가는 양식이 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예산을 절약하고, 금년 한 해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장악해서 전사제제에서 세계 선교와 사역을 위해 쓰고, 역사하겠다는 결심을 했으므로, 이러한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착한 남자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대충할 생각을 버리고, 힘든 일은 내가, 수고하는 일을 내가, 고생하는 일은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 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대상이자, 유익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이여가 알려줍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목원님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전사제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참 장에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숫자가 필요하지 않고,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은 부흥을 뉴욕에 가져오는 기도의 해라고 말씀 드립니다. 2007년은 1907년의 권양의 부흥이 우리 민족에 처음 일어났던 역사적인 해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세기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방방곡곡에 흩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의 민족으로 우리를 돌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권능과 큰 부흥의 능력을 부어 주시므로,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라야 패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새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년 한해는 여러분이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부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관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없어야 주의 일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문명의 송동 이후에, 물질의 충돌이 미쳐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밀려와선 사람들의 정신과 혼이 그 물질에 떠내려가는 상황에서 제4의 물질, 곧 사람과 성령의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선교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축복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더 달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한 비아 저 (지도 밖으로 행군해라) 구입하여 돌려가며 읽기
3) 한글과 공과, 주기도문 4) 애전

IV. 사역(Work)

1) 통령 기도

2) 한 비아 저 (지도 밖으로 행군해라) 구입하여 돌려가며 읽기

3) 한글과 공과, 주기도문 4) 애전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 동쪽: 김명남, 정진우, 황재현, 정승환, 정재환, 정기원, 이연순, 장재영, 김유자
김금란, 김인경

* 신년 다니엘 세 이레 특별새벽기도회 (01.08(월)-31(수) 21일간)

· 주일: 당신의 기도 응답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God's answer is on the way!)

· 목장지도자, 심방위원 세미나 (01.21(주) 맨해튼/퀵스2부예배 후)

* 제35기/36기 에베레스트 Reunion (01.21(주) 4:00pm, 갯새미네성전)

*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1.21(주)/28(주) 예배 후, 안내서(오늘부터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준비물: 영주권, 소상년비, 한국어권, 여행기록, 규칙서집 2매

· Fee: \$330(Check or Money Order, 3월부터 \$800로 인상됨)

* PGM선교회 소식

· 일례회: 01.21(주) 5:00pm, 손문달 집사 역(대상: PGM 선교학교 졸업생)

· 창조과학사학 세미나: 01.21(토) 5:00pm, 28(주) 3:00pm, 5층 강의실

· 01.21(주)/28(주) 식당 입구에서 탄자니아선교를 위한 바자가 있습니다.

· 문의: 유상환 전도사(718.219.9944), 김영호 집사(917.886.4006)

* 교사 신년 모임

· 01.28(주) 3:30pm, 식당 (대상: 주일학교어린이, 중·고등부) 교사 및 교사희망자

· 문의: 김문숙 전도사(646.7751789), 김대니 전도사(718.321.7800)

* 가정세미나

· 02.11(주) 3:00pm, 갯새미네성전 (장사: 조길순 사모(두란노가정사역 감사))

* "Click in Love" 결혼예비학교

· 02.02/09(금) 8:00pm, 02.03/10(토) 7:30pm, 갯새미네성전

· 장사: 조길순 사모, 김용복 목사(두란노아버지학교 감사)

* "History Maker"(청년 연합 집회)

· 01.20(토) 7:30pm, 21(주) 1:30pm, 은누리교회, W2교회, 스테반청년회 연합

* 스터반청년회(2부) 수양회

· 01.26(금) 27(토), 장사: 김해나 목사, 주제: "Pause"

* "Treasure" 단원 모집

· 대상: 유년부 1학년~2학년, 3학년~6학년 Youth Group 7학년~12학년

· Young Adult 18세~25세 (문의: 이연순 집사(201.767.7175, 201.658.7400))

* 중국 동호인 모임

· 매주 화요일 8:00pm, 맨해튼성전 (문의: 유상환 집사(917.448.9822))

* 중국어 동호인 모임 (매 주일 1:30pm, 02.02(토) 중국어 배울 분 누구나 환영)

* 다음 주일(01.28) 기관별 모임

· 제1권사회: 1:00pm, 7층 권사회실 (제1인수집사선교회: 1:00pm, 5층 1강의실)

· 제2인수집사선교회: 1:00pm, 5층 2강의실 (제2인수교우회: 3:00pm, 7층)

* 파킹장 봉사자 명단

· 01.21(주) 01.28(주) 02.04(주)

· 박계근, 박병욱, 박종현 서범, 박병욱, 오재용 이진우, 이기영, 이길부

· 박희도, 박희식, 박창근 은근두, 유일용, 이경길 이상주, 이재명, 이학열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 매 주일 12:30~2:00pm, 6층 의사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식당봉사교구 (01.21(주)-사람교구/01.28(주)-자비교구/02.04(주)-양선교구)

* 일합니다

·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신 Church of Revelation의

Ben Torres 목사님 내외분과 성가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회락교구 손전에 감사해서 01.16(토) 소헌하셨습니다.

· 소말교구 최광호기신 성도 기정에 01.04(토) Christopher 군이 태어났습니다.

· 광강교구 김숙희 권사의 모친 석양금 성도께서 01.11(목) 소헌하셨습니다.

· 스테반청년회 박재욱 양과 최와산 군의 결혼식이 01.20(토) 에루살렘성전에서

있었습니다.

· Pine Lawn 공원묘지가 필요하신 분은 권대수 집사(718.321.7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도을 월간신문 (퍼블리 푸데이) 신년 1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분들 가져

가셔서 정도를 및 업소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장모임가이드, 교회행사소식, 한글통계 등의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주보를

소중하게 다루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통계: 아눔금식헌금 \$2,456(10.230 지 분, 누계 \$10,240)

· 주정헌금 \$14,436(누계 \$39,079) Total \$45,800.90

· 서정헌금: G-12 셀그룹 업그레이드(조엘 코미스키), 미래를 여는 힘(로버트슬러)

복을 받은 사람의 행복(글로렌), 하나님의 용서(김남준), 바람처럼 불처럼

(하문조), 갈매기와 광(리차드 바크), 한국침례교인 도서-신앙 위인 20인, 아래

로부터의 영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성문 100년사

김남수 목사 저서 및 Tape, 사관/하박국/사무엘 장년성경공부 Tape, 김종순

목사/김삼환 목사/김영무 목사 Tape, 이예자 피아노 CD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퀵 스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9: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10:30am (Promise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태반청년부 (토) 7: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월,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 목
사람	주 인 중 장로	201-491-1153	파라과과	16
회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관	이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05	에콰도르	12
양선	최 원 호 장로	516-292-3019	남몰리비아	14
소말	이창언 안수집사	718-661-5490	북몰리비아	14
충선	최 종 선 장로	631-277-5932	페루	10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말음	유 재 규 장로	516-825-9357	베네수엘라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7
청재	최성식 안수집사	914-29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 2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26채널
Ch. 57 TV	Promise Ministry	월/토 10:00am/8:30pm
마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퀵스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신부심부속교회

성경대학원

주 일 예 배 순 서

시화: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93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씀이

미감장 집사(권1)/조소현 집사(권1)/이용찬 집사(권2)

찬 양 설교자

【편】 니 집에 왔으니 (사온성가대)

【편2】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편1】 8월24일 | “약 1:14” 감남수 목사

【편1】 (변화를 받아) “로 12:2” 임용수 목사

【편2】 Victor or Victims When Tested | “약 1:14”

Rev. Ben Torres

【집은】 부흥의 진원지 미하임 | “창 32:24-31” 김상수 목사

헌 금 다같이

최수현 집사(권1)/김선희 자매(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08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편 하 단	편 조 1 부	편 조 2 부	편 조 3 부(젊은)		
01/28	임일진 집사	조인화 집사	공병희 장로	사회자		
02/04	최홍성 장로	조형섭 집사	김종영 장로	사회자		
02/11	장상수 집사	최상식 집사	강철후 장로	사회자		
02/18	강찬순 집사	최우준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말	화	수	목	금	토
설교	하연형	하연형	Cheyo	안진성	임용수	Richardson
사회	하연형	하연형	이영서	안진성	임용수	안진성
기도	고용면	권광열	권영환	권태수	김광웅	김관용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장들 환영

2) 10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 “어느 빈족 누구네?” (편521)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편486)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재능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 영적무장(요10:10-15)

설교자: 김 남수 목사

(12월18일에 열린 대뉴욕지구연합목사회 설교요약)

2006년 한해 동안 설교한 것을 돌아 보니 주로 5가지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첫번째는 히프타임(hifi time)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산 것을 돌아보고 후반전에 살 것을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히프타임을 주장한 동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50세나 됩니다. 삶만큼 살았다고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것을 깨닫고 노력했습니다.

둘째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보면 전통과 관습에 묶여 석회화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왔으면 사고도 바뀌어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생각” 바꾸는 것이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절대 진리를 재확인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예배시간에 안 하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 교단이 예배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블루오션(Blue Ocean)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데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웁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경쟁을 자임하고 광활한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인과 기도도 이제 무엇을 달라는 청원 일반도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교안들에게 달라는 기도를 못하게 했더니 그러면 기도를 찾아 없다고 합니다.

넷째는 인테그리티(Integrity)입니다. 교회는 성경충만만 강조하지 “용지”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정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물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섯째는 교회체질의 개선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가정 목회(Family Ministry)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달아주고 넘어가는 일에 익숙하다보니 교회가 형 있게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 할까 군함형의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경우 전자가 75%, 후자가 25%라고 합니다. 유람선은 물가에는 동지인 정쟁을 하지 못하는 배입니다. 유람선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즐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먹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설거지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만 늘 합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대가 30% 만 물라입니다. 목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영적전쟁입니다. 어려움을 겪을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도전에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에 영적 능력을 받으십시오.

〈저장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한 마디 씩의 색 (지도약으로 병군하리)를 읽은 소감을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1) 찬송 기도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3) 축전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역: 신재식, 차원태, 이재훈, 허옥아, 허 현
-방문: Dora, 김현철, 김나희, 정영민

■ 신년 다나엘 서 이레 특별새벽기도회 (01.08월) 31(수) 21일간

-주제: 당신의 기도 응답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God's answer is on the way!)

■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1.28주) 예배 후, 안내실(오전부터)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준비물: 영주권, 소년년비, 한국여권, 여행기록, 규격사진 2매
Fee \$330(Check or Money Order, 3월부터 \$800인 인상됨)

■ 한국어학교(퀵) 봄학기 등록 안내

-등록 기간: 01.28주/02.04(주)/02.11(주) -등록 장소: 사립 앞
-등록 대상: 5세 이상 -등록비: \$100(미금 후 \$120) -개강: 02.25(주) 1:30pm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접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영)중고등부 소식

(02.04(주)부터 중등부와 고등부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중등부: 예배 10:30am-11:30am, 6층 신학교강의실 분반공부 11:30am-12:30pm
고등부: 분반공부 10:30am-11:30am 예배 11:45am-12:45pm, 배움의영성전
-학부모 간담회: 02.11(주) 중등부 예배실(6층 신학교 강의실)
-문의: 장재원 집사(973.567.1061)

■ 교사 신년 모임

(01.28(주) 5:30pm, 식당 -대상: 주일학교(어린이, 중고등부) 교사 및 교사의왕자
-문의: 김관숙 전도사(648.7751769), 김대니 전도사(718.321.7800)

■ 절제교구 칠려 선교지 방문

(01.28(주) 02.08(토) -방문처: Santiago, Puma Arenas
-참가자: 김남수 목사, 김대니 사도, 김관숙 장모, 김수경 권사, 최성식 집사
최정숙 전도사, 허만보 집사, 허영순 권사, 송정희 권사, 김혜인 집사
이화관 전도, 김 영 자매

■ PGM선교회 소식

-원조과학사역 세미나: 01.28(주) 3:30pm, 5층 2강의실, 김사-이동용 박사
(01.28(주) 식당 입구에서 탄자니아선교를 위한 미자가 있습니다.

■ 가정세미나 "가정과 대화"

(02.11(주) 3:00pm, 셋새아네성전 -강사: 조길순 사도(두란노가정사역 강사)

■ "Click in Love" 결혼예비학교

(02.02/03(금) 8:00pm, 02.03/10(토) 7:30pm, 셋새아네성전
-강사: 조길순 사도, 김용복 목사(두란노아버지학교 강사)

■ "Treasure" 단원 모집

-대상: 유년부 1학년-2학년, 3학년-6학년 Youth Group 7학년-12학년
Young Adult 15세-25세 -문의: 이민숙 집사(201.767.7175, 201.658.7400)

■ 중국어 동호인 전체 모임

(01.30(토) 8:00pm, 배움의영성전 -문의: 유정준 집사(917.489.9822)

■ 중국어 동호인 모임

-매 주일 1:30pm, 02.02(중국어 배움 분 나누기 환영)
-02.04(주) 4:00pm, 해외호 장모 덕(201.621.1811)

■ 제4권사회 칠려회

(02.04(주) 1:00pm, 7층 2강의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7권사회: 1:00pm, 7층 권사회실 -제1안수집사선교회: 1:00pm, 5층 1강의실
-제9안수집사선교회: 1:00pm, 5층 2강의실 -해외선교위원회: 3:00pm, 7층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1.28(주)	02.04(주)	02.11(주)
서 밍,석병집,오재용 은규두,유일용,이강길	이건우,이기영,이경부 이상주,이재영,이학일	이학윤,장일팔,장연태 장원태,장인주,조상영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신년봉사회

(01.28(주)-지비교구/02.04(주)-영성교구/02.11(주)-소망교구
-참가비: \$100(미금 후 \$120) -문의: 김대니 전도사(718.321.7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헌금통계

-이동금: \$1,867,647,070.5 개 분, 누계 \$12,007,241
주일헌금-\$13,128(누계 \$52,207) Total-\$13,128(누계 \$52,207)
-서점안내: 예수님의 웃음초대(박영민), 그리스도 중심적 영성(디트리히 본 회퍼)
다윗 대왕전(최광식), 기도(리처드 포스터), 내 영혼은 어떤 대화를 할까
(앤디 크립),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한리 불역커비)
한국도사 정가세일(주재발 성경에서 골라낸 1245가지 이야기, 가짜구원,
중국어/스페인어 교재, 마립천자문)
김남수 목사 저서 및 Tape, 사본/히말라야/사무엘 장년성경공부 Tape, 김종순
목사/김삼환 목사/강영무 박사 Tape, 김재자 피아노 CD

예 배 안 내

	평 하 탄 성 장	평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30am 한국어학교	유아,유치,유초등부 10:30am (Promise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상대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페인장년부 (02/7: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현.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람	주 언 중 장모	201-491-1153	과테말라	15
희타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9342	멕시코	8
화평	하 의 호 장모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모	718-746-743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모	917-254-7435	에콰도르	12
임산	최 의 호 장모	516-292-3019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향연 안수집사	718-961-5480	북몰리비아	14
충성	최 흥 선 장모	631-277-5682	페루	10
평강	하 재 린 장모	631-271-65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모	516-825-8957	베네수엘라	11
은혜	김 철 후 장모	718-661-3521	모로코	16
은유	백 준 성 장모	718-743-2674	엘살바도르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9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월/토 10:00am/8:30pm
마주기독교방송	자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평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평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과 영성
영성, 영성, 영성



주 일 예 배 순 서

시회: 하연행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64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말씀진 경배(권1)/조인화 집사(권1)/공명희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주님을 높이세 (자은성가대)

[권2]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부실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1월28일 | "학 2:18" 김남수 목사

[권1] 나의 자결을 넘어서시 | "대산 43:10" 하연행 목사

[권2권은] 1월28일 | "학 1:14" 김남수 목사

헌 금 다같이

국문성 자매(권1)/김다연 자매-Fine(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편 하 단	권 1 부	권 2 부	권 3 부(젊은)
02/04	최흥선 장로	조형섭 집사	김홍영 장로	사회자
02/11	장영수 집사	최성식 집사	김철우 장로	사회자
02/18	강현순 집사	최우준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02/25	김홍재 집사	최 봉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새마을	월	화	수	목
설교	임용수	하연행	Clay	신성균
사회	임용수	하연행	이영서	하연행
기도	김남균	김대원	김성태	김영호
			김영환	김영석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장을 환영

2) 앞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일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경배(Worship)

1) 찬양곡: "나 이제 주 안에" (찬361) "너 사랑을 당해" (찬366)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시편과 때에 따라 골라지거나 골라지거나

(창32:24-31) Ben Torres 목사(Church of Revelation)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에 슬라보다는 회복을 많이 경험하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과 경배를 당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시편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슬라자의 삶을 살 것인가, 피해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슬라지만, 여러 가지 시편과 역경을 이기고 맺어낸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지 안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핍박에 눌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슬라자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주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저는 한 때 해로운 마약의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과 상처를 통해 의미있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고 일어나는 말씀"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고보 시도는 우리가 시편을 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기가 쉽습니다. 노아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 때 어디 계셨으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하옵시겠습니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있지 여기 없을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아고보 시도는 5가지 상급을 말씀합니다.

1) 첫째 상급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보통 직접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편이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시라엘 박스를 시편 그 안에 장남과 같은 것이 들어있듯이 우리는 인내라는 것도 한 번에 쉽게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단과 시편을 거쳐야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라자는 이 시편 다음에 무엇이 온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2) 두번째는 온전 또는 완전입니다. 이것은 어떤 아이로 남아 있지 않고 계속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간다는 말입니다.(골3:15) 슬라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개발해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되라고 확신합니다. 이 코로는 성장하는 분들로만 가족 차사기를 바랍니다.

3) 세번째 상급은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고, 영, 혼, 육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지기 원하시고,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4) 네번째 상급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큰 무지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필요를 채워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리가 되시므로 내 마음속에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 마지막 상급은 자애입니다. "자애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아주 무엇지 아니하시고 할 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어려움을 잘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애입니다. 여러분 시편속에서 이 시편이 나에게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자애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와서 오래 머물지 않고 지나갈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신뢰하라. 그가 모든 것을 자기에게 할 것이다." 오늘 시편이 있습니까? 거기 시편이 영원히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갈 것입니다.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럴때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방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편이 오거든 즐겨라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상급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작품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게요.

IV. 사역(Work)

1) 중심 기도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3) 애잔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박진애, 전성진, 한나영, 진유성, 장민정
-방문: 이용재, 신상수, 최재원, 장관희, 이봉용

■ 목장지도자, 심방위원 세미나

(02.11(주) 맨하탄/원즈2부예배 후

■ 한국어학교(원) 불학기 등록 안내

-등록 기간: 01.28(주)/02.04(주)/02.11(주) -등록 장소: 서점 앞
-등록 대상: 5세 이상 -등록비: \$100(마감 후 \$120) -개강: 02.25(주) 1:30pm
-자녀들에게 모국어(한국어)를 가르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접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청년부회 "Passion 2007"

(02.10(금) 8:00pm, 17(토) 7:30pm, 18(주) 주일예배
-감사: 이일산 목사 -주관: 스테반청년회

■ (영)중고등부 소식

(02.04(주)부터 중등부와 고등부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중등부: 예배 10:30am-11:30am, 6층 신학교강의실 분반공부 11:30am-12:30pm
고등부: 분반공부 10:30am-11:30am 예배 11:45am-12:45pm, 베들레헴성전
학부모 간담회: (02.11(주) 1:30pm-2:15pm, 중등부 예배실(6층 신학교 강의실)
문의: 장재원 집사(973.557.1051)

■ 가정세미나 "가정과 대화"

(02.11(주) 3:00pm, 컷세미네성전 -감사: 조길순 사모(두란노가정사역 감사)

■ "Click in Love" 결혼예비학교

(02.02/08(금) 8:00pm, (02.03/10(토) 7:30pm, 컷세미네성전
-감사: 조길순 사모, 김용복 목사(두란노아미지학교 감사)

■ "Treasure" 단원 모집

-대상: 유년부-1학년-2학년, 3학년-6학년 Youth Group 7학년-12학년
Young Adult 18세-25세 -문의: 이만숙 집사(201.767.7175, 201.658.7400)

■ 축구 동호인 모임

-매주 화요일 8:00pm, 토요일 7:00am, 베들레헴성전
-문의: 유정준 집사(917.489.8822)

■ 중국어 동호인 모임

-매 주일 1:30pm, 602호(중국어 배움 분 누구나 환영)

■ 화평교구 연합예배

(02.04(주) 4:00pm, 히외호 장로 대(201.621.1891)

■ 평강교구 연합예배

(02.25(주) 5:00pm, 컷세미네성전 -문의: 하재원 장로(631.742.3994)

■ 다음 주일 기관별 모임

-제5권사회: 7층 회의실 -제6권사회: 7층 회의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모세선교회: 2부예배 후, 5층 강의실 -제1권사회: 1:00pm, 9층(PH)
-제2권사회: 1:00pm, 9층(PH) -제4권사회: 1:00pm, 7층 회의실
-이사선교회: 1:00pm, 이사선교회실 -제2인수집사선교회: 1:00pm, 5층 강의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2.04(주))	(02.11(주))	(02.18(주))
이건우,이기영,이길부 이상주,이재명,이학열	이학용,장일필,전연택 정원태,장인주,조상열	조소현,최우준,하일우 홍승창,김성순,고용민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식당봉사교구

(02.04(주)-양선교구/02.11(주)-소망교구/02.18(주)-충성교구

■ 성경완독자

이명재(희탁)

■ 알립니다

-인내교구 상영목 집사의 모친 김교희 성도께서 02.08(수)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Full Time으로 식당을 관리하심 분을 찾습니다. 문의: 행정실 718.321.7800

-교인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석에서 새가정위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권사회에서 \$300 탄자니아선교헌금 하셨습니다.

-Pine Lawn 공원묘지가 필요하신 분은 권태수 집사(718.321.780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통계: 아동급식헌금-\$1,773(7/02) 개 분, 누계 \$13,870.64)

주장헌금-\$15,538(누계 \$38,649) Total-\$113,895.81

-서점안내: 송추시는 하나님(빨리 나오면), 대의 기술(벤자민 프랭클린), 하나님 이름에 숨겨진 비밀(케이 아더), 리더십(빌 라이벌스), 하나님과 남편, 두 사람 사이에서(낸시 케네디), 여지도 모르는 여자의 반향(스토미 오마진)

-한국정가 도서세입(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이동원, Ym 데이팅-조슈아

헤리스, 변화의 파도를 타라, 중국어/스페인어 교재, 마법천지문)

김남수 목사 저서 및 Tape, 시편/삼백국/사무엘 장년성경공부 Tape, 김중순 목사/김삼환 목사/강영우 박사 Tape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원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1 부(영성) 장년성경공부	8:30am 9: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8:30am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Promiseland) 2부	10:30am 1:30pm
	중,고등부	8:30am	중,고등부(한,영)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장어 아동 한국어학교 스테반청년부	1:30pm 1:30pm 10:30a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감요 예배			청,장년 중,고등부(FNA) 어린이(QJN)	8:00pm 8:00pm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종
사담	주 안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화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80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968-05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흥 복 장로	718-740-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최 원 호 장로	516-282-3039	남열리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열리아	16
충성	최 흥 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망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5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1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Q.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93.9FM
Q.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마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원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302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최홍선 집요(권1)/조형집 집사(권1)/김종영 집요(권2)

찬 임 성가대

[권1] 나의 민족과 유약을 위해 (사온성가대)

[권2] 주의 은혜 (여루삼영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Words from Jesus | "요 11" Rev. Charles E. Hackert

[권2] 6월24일 | "마 13:4" 김남수 목사

[권2] 6월25일 | The Church | "마 13:13-17" Rev. Charles E. Hackert

성 찬 식 다같이

헌 금 다같이

이영주 자매(권2)

광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탄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 (젊은)		
02/11	장성수 집사	최성식 집사	김형우 장로	사회자		
02/18	강찬순 집사	최우준 집사	이형호 장로	사회자		
02/25	김종재 집사	최 종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03/04	공병희 장로	하재선 집사	심정운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일	화	수	목	금	토
설교	임용수	하연형	임용수	하연형	Chery	김남수
사회	임용수	하연형	임용수	하연형	이영서	안진성
기도	김장훈	김재홍	김창열	김종철	박병욱	나경식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일 간의 삶과 신앙(가뭄의 일, 감사의 일, 행동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큰길 내 영혼 편히 살 곳과" (찬38)

"악장배 감동 되시(배)"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사건의 승물(마14-15) 김 남수 목사

지난 번에 일민 토론회의 (제 3회 물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웹사이트, 정보, 혹은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손쉽게차라 감라하게 환관 서 이제는 적마다 가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자연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 혼란을 일으키는 세계가 곧 온다는 것인데, 이런 세 번째 위기가 지구촌 전체와 한 세대를 휩쓸고 나가는 데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가는 정신세계와 타락한 문화를 일깨워서 살고나갈 마지막 네 번째 웨이브, 즉 성령의 불길, 복음의 불길, 중생의 불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건의 총돌어리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미국의 하이웨이 속 도로 밑할 것 같으면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식을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해나가는 유망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100%로 봅니다. 그 다음에 80%일 90%일로 달리는 기관이 NCO 기구들입니다. 이들은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속도로 연락하고 신속하게 반대 활동을 벌입니다. 그에 비해 학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게 50%일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보다 더 늦게 가는 것은 미국의 법이어서 10%일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50년 간의 법을 지금 그냥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빨리 가는 스페드를 제동을 거느리고 천천히 가고 있다는 1대. 빨리 가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가는 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적어도 그 스페드와 그 변화를 의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앞에서 달리는 차를 불러서 세우듯이 멀리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 몇 마일로 달리는지 이제 우리 계산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교회가 세상에 뒤처져서도 안 되고 같이 가면서 변화를 인식하고 그 변화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네 번째 불길로 끌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서'라는 짧은 책 속에 하나님 말씀이 회개에게 네 번 임하는데 그 네 번 임하신 말씀에 공히 시간과 날짜와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대 단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합니다. 추수할 때 추수를 해 어지 그 때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갈면 안 됩니다.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에 달려붙어서 그 일을 완성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중요하고 뜨거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를 보고 별로 마음이 안 좋은 때가 있어요. 젊음에 불이 꺼졌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패션(passion)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향해 공음(compassion)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되고 그레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레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삶 자체가 감격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운 것은 30년 동안 화평하게 자라는 역사(history),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체 건물과 현대적 시설(facility), 오순을 직인 교회 분위기(atmosphere), 교회 각 기관의 원활한 움직임(motion) 등등. 저는 아무런 무가 너무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감사하고, 나 같은 이를 베푸시는 것을 감사하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살았다는 게 감사하고, 알았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맞추어 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분은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일하게 원하시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시고 상도 우리에게 같이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운동장에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나면 아무리 열심히 공을 넣어 봐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하고 그 시간 안에 열정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면 신나고 감격스럽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찬송도 열정으로, 기도도 열정으로 신나게 합니다. 저는 2007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성을 냉정하게 복리로 가지고 마음을 뜨겁고 불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토인버는 "지도 마음을 싣고 간 그 때는 유망을 싣고 간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유망의 문명이 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에 콩고 도들이 타고 온 베이플라워요가 신앙과 함께 아메리카를 싣고 온 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보스톤 지역에 정착을 하고 산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1885년에는 배 한 척이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제 재물도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배는 어둠에 싸여 있는 조산이라는 조그마한 땅, 미신과 무상승에게 가득치고 무지와 가난 속에 수천 년을 지낸 어둠의 땅에 빛을 쬔 한 생명의 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한 세기 만에 대한민국을 신장 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 우리가 출항하라는 이 항포토들은 50년 전의 우리 조국처럼 가난과 무지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세계 곳곳의 어둠의 땅에 진리와 문명의 빛을 밝히려는 축복의 배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귀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동참하시는 여러분 한분 한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다?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1) 봉성 기도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3) 애잔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캠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어린이 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어린이 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8:30am 한국어학교 10:30am	유아·유치·유초등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현영) 10:30am 장년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페인청년부 (토) 7: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달·로	5:30am
금요 예배	영·장년 중·고등부(FNA) 어린이(QJN)	8:00pm 8:00pm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랑	주 언 중 장로	201-451-1153	파타고니아	16
희락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허 외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최 원 호 장로	516-292-3019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장연 안수집사	718-961-5480	북볼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성 장로	631-277-5662	페루	10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말씀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574	엘살바도르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 2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24시간
Ch. 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캠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 321-7800, Fax: (718) 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정호성, 김장민, 장수영, 오원진, 박수남, 김경수, 현혜진

* 목장지도자, 심방위원 세미나 (02.11(주)) 맨하탄/캠즈2부예배 후

* 새가족 만남 (03.04/11/18/25(주) 30pm, 5층 강아실

* "His Life" 헌신예배 (03.02(금)) 금요일예배 시

* "His Life" Staff 모임 (02.11(주)) 3:30pm, 매수살업성가대실

PGM 소식

-단지나아 단가선교: 02.12(월) 25(주), 유상용, 최강남, 전희철, 서봉희, 이숙자, 김 브라이언, 박혜선, 임종표, 이유경, 임미경, 김태희

-PGM NY 선교학교 8기생 모임

(03.15(목)-06.07(목)) 매주 목요일 8:00pm-10:00pm, 천착순 50명

문의: 김경호(917.886.4035), 황재호(646.407.5554)

한국어학교(캠) 봄학기 등록 안내

-등록 기간: 01.28(주)/02.04(주)/02.11(주) -등록 장소: 시청 앞

-등록 대상: 5세 이상 -등록비: \$100(마감 후 \$120) -개강: 02.25(주) 1:20pm

-지나들에게 모국어 가르쳐줄 봉사자를 찾습니다. 접수처에 문의 바랍니다.

청년부홍의 "Passion 2007"

(02.16(금) 8:00pm, 17(토) 7:30pm, 18(주) 주일예배

-장사: 이명산 목사 -주관: 스페인청년회

(영)중고등부 학부모 간담회

(02.11(주)) 1:30pm-2:15pm, 중등부 예배실(6층 신학교 강아실)

-문의: 장재원 집사(917.567.1051)

가정세미나 "가정과 대화"

(02.11(주)) 3:00pm, 갯세미네성전 -장사: 조길순 사모(두려노가정사역 장사)

"Treasure" 단원 모집

-대상: 유년부-1학년-2학년, 3학년-6학년 Youth Group-7학년-12학년

Young Adult-18세-25세 -문의: 이인숙 집사(201.367.7175, 201.658.7400)

족구 동아인 모임

-매주 화요일 8:00pm, 토요일 7:00pm, 매들레형성전

-문의: 유창준 집사(718.281.0081)

평강교구 연합예배

(02.25(주)) 5:00pm, 갯세미네성전 -문의: 허재민 장로(631.742.3941)

다음 주일 기관별 모임

제7권사회, 제1안수집사선교회, 제3안수집사선교회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3권사회: 7층 1회의실 -제5권사회: 8층 아산선교회실

-제6권사회: 7층 2회의실 -아리아선교회: 5층 2회의실

-제2안수집사선교회: 5층 1강아실

파킹장 봉사자 영단

(02.11(주))	(02.18(주))	(02.25(주))
이학용, 장일형, 장연택 정완태, 장만주, 조상열	조소현, 최우준, 허영우 홍승현, 김성순, 고용민	곽용기,곽운태,권영환 김관유,김기성,김남근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식당봉사교구 (02.11(주)-소망교구/02.18(주)-송성교구/02.25(주)-평강교구

성경완독자 손영현(자비)

알립니다

-Family Today 2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Full Time으로 식당을 관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행정실 718.321.7800

-교인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대에서 새가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ine Lawn 공문요지가 필요하신 분은 관매수 집사(718.321.7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안내: 소박한 가족(한/영, 마더 테레사), 결혼준비가족(한/영, 레리 크랩), 성공

하는 사람들과 7 가지 습관(한/영, 스티븐 코비), 영혼의 창/복싱하는 삶(한

가이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윌리

안시), 풍성한 축복(짐 심발리) Sale-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임바바), 차이를

넘어선 사랑(제럴드 샷치), 비합리적 불치험(하용조)

김남수 목사 저서 및 Tape, 시편/히박국/사무엘 장년성경공부 Tape, 김종순

목사/김성환 목사/강영우 박사 Tape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금 식 헌금	주 청 헌금
\$160,505.72	\$1,740(누계-02.442 개 분)	\$13,526.01(누계-680,789)

주일에 배운서

사역: 허연행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 2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발은이

홍성수 집사(권1)/최종 집사(권1)/김종우 장로(권2)

찬양 성가대

【편1】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시온성가대)

【편2】 주 하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성가대)

설교 설교자

【편1】 The King's Command | "예 8:30,34"

Bishop Rurwell Mvionxongole

【편2】 오령을 뛰어 | "렘 22:1-7" 허연행 목사

【편3】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 "렘 20:17-24" 정영철 선교사

헌금 다같이

최숙희 집사(권1)/김진주 장로(권2)

공고 사회자

찬송 찬 30 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음은)		
02/18	강찬순 집사	최우준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02/25	김홍재 집사	최성식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03/04	공명희 장로	하재선 집사	신정운 장로	사회자		
03/11	노승범 집사	한승만 집사	안병상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허연행	김남수	김남수	Chery	임용수	Richardson
사회	허연행	허연행	이진성	이영서	임용수	허연행
기도	박원희	서성모	서영주	석법정	성황승	송상근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1.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단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2. 경배(Worship)

1) 찬양곡: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찬20) "보혈을 지나"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3. 말씀(Word): 교회(마18:13-19) Rev. Charles E. Hackert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와 같은 기관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저는 건물을 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그 분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 집을 방문해서 "난 이 가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면서 밖으로 내 놓으려고 한다면 "나는 이 장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참한만 기다리세요. 이 집은 당신 집이 아니고 내 집입니다. 당신이 내 집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내 교회' 라고 한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에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교회와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의 이 말이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선 나는 이것을 바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100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politically incorrect) 발언으로 몰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믿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가 말씀 하시면 나는 그대로 믿으며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 하셨으면 그것을 내가 믿든 믿든지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요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옳바르게 되기(politically correct)보다는 성경적으로 옳바르게 되는 것(biblically correct)이 저의 소원이며,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소집 결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방황입니다. 훈련소입니다. 그리고 상처 받고, 방황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가 봐도 안재둔지 환영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누구나 교회로 오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확신들 중에서도 수준 있는 죄인(nice sinner)이 오기를 은근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죄인을 다 좋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죄인이든간에 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되면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줄 알아야 합니다.

2. "복사님!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하면서 관계를 대는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꼭 교회에 가셔야 하나님을 섬기만 할 법이 있습니까? 집에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습관과 전통대로 한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그냥 교회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출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만 신앙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도 경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와서 함께 하는 예배를 대신할 수 있

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병들었거나 나상될 때에, 현재 지체들이 와서 손을 얹고 기도 해주면 그 순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제가 크리스찬 텔레비전 선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서로 느끼는 교제와 감격이 텔레비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아는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함께 헌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교회는 다 위선자들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그런 사람이 가이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교회로 오게 하십시오. 한국교회는 내가 잘 모르지만, 미국교회는 누가 위선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지와 곡식을 같이 자라게 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committee에 의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가 싫다. 왜냐하면 썩은 배가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가지 있는 것은 반드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반세기 이상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지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결정한 모든 부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몸인 교회에 헌정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보시듯이 제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보화는 제가 50년 동안 한 이인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아들은 값싼(cheap)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두 아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적인 사람들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한에 술집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여인은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명의 손자 손녀가 있는데 다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교회에 그 아이들을 잘 키워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일조,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기쁜한 사람을 위한 구제 헌금 등은 제나 하나님까지도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을 위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소실 사할리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달리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투자 할 것입니다.

3. 세 번째 예해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하시기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이 위대한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권세 있게 역사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강력한 기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풀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뉴욕 사를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작품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1) 통성 기도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3) 애잔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순회, 순미경 -병문: 조성호

*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02.18(월)-04.07(토)

* 새가족 만남

-03.04/11/18/25(주) 12:30pm, 5층 강아실

* 청년부총회 "Passion 2007"

-02.18(금) 8:00pm, 17(토) 7:30pm, 18(주) 주일예배

-강사: 아람산 목사 -주관: 스테반청년회

* "His Life" 헌신예배 -03.02(금) 금요일예배 시

* 평신도성서대학 신입생(27기) 모집

-03.05(일) 8:00pm 개강(매주 월요일), 5층 강아실

-등록금: \$50(교재비 포함) -문의: 안태석, 김명자 (32.754.2680)

* PGM 소식

-탄자니아단기선교(02.12-02.25)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PGM NY 선교학교 8기생 모집

-03.15(목)-06.07(목) 매주 목요일 8:00pm-10:00pm, 선착순 50명

-문의: 김영호(01.7.886.4005), 장재호(646.400.5554)

-PGM 6/7기 졸업식: 02.25(주) 퀸즈2부예배 시

* "Treasure" 단원 모집

-대상: 유년부-1학년-2학년, 3학년-6학년 Youth Group-7학년-12학년

-Young Adult-18세-25세 -문의: 이연숙 집사(201.767.7175, 201.658.7400)

* 족구 동호인 모임

-매주 화요일 8:00pm, 토요일 7:00pm, 베들레헬성전

-문의: 유창준 집사(718.281.0881)

* 평강교구 연합예배

-02.25(주) 5:00pm, 옛세아네성전 -문의: 하재원 장로(631.742.3994)

* 다음 주일 기관별 모임

-제3안수집사선교회 -해와선교위원회: 3:30pm, 7층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모세선교회: 2부예배 후, 5층 -제7권사회: 1:00pm, 7층 1회아실

-제1안수집사선교회: 1:00pm, 아삭선교회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2.18(주)	02.25(주)	03.04(주)
조소현, 최우준, 최영무 황승환, 장창순, 고윤민	곽용기, 박운태, 권영환 김관유, 김기성, 김남근	김대원, 김성태, 김강훈 김재홍, 김정일, 김동철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식당봉사교구 02.18(주)-송선교구/02.25(주)-평강교구/03.04(주)-필름교구

* 알립니다

-Family Today 2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Full Time으로 식당을 관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함창실 718.321.7800

-교인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소에서 새가족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ine Lawn 공원묘지가 필요하신 분은 권태수 집사(718.321.780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점안내: 소박한 가락(한/영, 미미 데레사), 결혼준비가(한/영, 레리 크랩), 성경

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한/영, 스티븐 코비), 영혼의 참/목상하는 삶(켄

가이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윌립

양시), 풍성한 축복(조 삼팔리) Sale-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앨비어), 차이를

넘어서 사랑(제랄드 섯제), 바람처럼 불치럼(하용조)

김남수 목사 저서 및 Tape, 시편/히말곡/사무엘 장년성경공부 Tape, 김준수

목사/김성환 목사/김영우 박사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급식헌금	주정헌금
\$101,002.56	\$2,745.50(누계-73,421 개 분)	\$13,686(누계-803,855.01)

예 배 안 내

	맨 하 단 성 전	퀸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유아,유치,유초등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테반청년부 (토) 7: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영,장년 8:00pm 중,고등부(FX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할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회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최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0-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성	최 원 호 장로	516-282-3019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90	북몰리비아	16
충성	최 용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영남비도르	7
팔복	최심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방송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마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연구회

영광의 길 열수

주 일 예 배 순 서

시화: 하연형 목사(편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394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강찬순 집사(편1)/최무준 집사(편1)/이정호 장로(편2)

찬 양 성가대

【편1】 장금같이 나오리라 (사온성가대)

【편2】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편1】 살아가는 삶 | “시 39:6-7” 아말산 목사

【편2】 부장자장 | “창 50:24-26” 하연형 목사

【말씀】 두려워하나니 | “렘 5:8-11” 이철산 목사

현 금 다같이

심정주 집사(편1)/최난수 집사(편2)

관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양팀	찬조1부	찬조2부	찬조3부(말씀)		
02/25	김홍재 집사	최상식 집사	최영호 장로	사회자		
03/04	관영희 장로	하재선 집사	심영웅 장로	사회자		
03/11	노승범 집사	한승만 집사	안병상 장로	사회자		
03/18	박민수 집사	허영무 집사	주언중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일	화	수	목	금	토
설교	Dendo	하연형	하연형	임용수	임용수	김남수
사회	이영서	하연형	하연형	임용수	임용수	김성웅
기도	유일용	이기력	이기명	허영무	이상주	이성봉

금주 목장 모임 거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 일 간의 삶과 신앙기였던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208)

“보혈을 지나”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The King's Command (예 8: 10-14)

Bishop Ranwell Mwerinongole (탄자니아 AG 총회장, CCC 담임)

에스더서는 성경의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 제이디 미다 하나님의 관용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거만한 장군이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함께 유대인 전체를 다 말살시키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내가 일인 달란트를 국고에 냈더니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권한을 주시고, 이 반자로 도장을 찍어서 이들을 멸하게 하소서” 하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종종 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충분히 사용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주어준다거나,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거나 선교자에 사람을 보낸다든지 할 때에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자매들이여! 우리는 건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의 왕국을 세워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온 땅에 왕의 조서가 전달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메세지였, 이 조서 앞에서 모르드개는 웃을 뿐이고 대신 통곡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왜 우느냐고 묻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에스더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왕에게 한번도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럴 때에 내가 만일 침묵하면...” 함께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왕이셔서 여러분들이 이 때에 이 마국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프리미스 교회가 이런 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자고 결심을 합니다. “누군가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 값을 치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만의 음모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왕이 새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들에게 하여금 준비를 하고 빨리 가서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메세지를 전하면 그들이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매들이여!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제들이 죽지 않아도 된다는 생명의 희망의 메세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을 반급까지 전하십시오. 이것이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것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찬성 또는 반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메세지를 전하는 앞에 프리미스교회와 시티 크리스천 센터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메세지를 전하십시오.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십시오. 이 용서의 메세지를 전하십시오. 이 축복의 메세지를 전하십시오. 죽음이 필요하지 않고 살아난다는 메세지를 전하십시오.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명령이며 책임입니다. 만민의 왕의 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그 분의 메세지를 들고 이 과거의 시대에 이제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물린 사과 한 개를 사야 할 때에 팔에 매고 이것저것을 거닐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 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이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쫓아와서 아이의 몸을 소리를 듣고 달려가보니 부인은 이미 물 속에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장의사 말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 채로 죽었기 때문에 시신이 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팔을 쫓아서 밑으로 내려야 하는데 그래도 관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안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평생 동안 사람들을 주님 앞에 물리기 위해 수고한 사람이었으므로 그 자네가 가장 어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리미스교회와 탄자니아 교회가 서로 손을 잡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며, 자에게 주신 명령이며,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왕이 가리 하연 가야 합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다시 볼 수 있는 왕복 티켓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작품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1) 통상 기도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3) 해산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이혜
-방문: 박철웅, 박영희, 김문기, 이근애, 김대웅, 심대권, Naori, Shou

* 시순절 특별새벽기도회 (02.19(월)~04.07(토))

* 새가족 만남

-일시: 03.04/11/18/25(주) 12:30pm -장소: 김남수 목사, 김도은 사모
-참석: 5층 강의실 -대상: 새가족 교육을 받자 않으신 모든 성도

* "His Life" 헌신예배 (03.04(금) 금요일예배 시)

* Musical "His Life(The Promise)" 공연

-04.05(목)~06(금) 8pm, 04.07(토)~08(주) 4pm, 8pm
-Ticket: \$25(5명 이상 \$20) Bookstore 앞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우호정 감사(718.321.7800) *공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신도성서대학 신입생(초급27기) 모집

-03.05(월) 8:00pm 개강(매주 월요일), 5층 강의실
-등록금: \$50(교재비 포함) -문의: 안대석, 김영자 감사(732.754.2880)

* PGM 소식

-PGMNY 선교학교 8기생 모집 -03.15~06.01(매주 목 8pm~10pm) 선착순 50명
문의: 유상용(718.219.9944), 정재호(646.407.5554)

* PGM 6/7기 졸업식: (02.25(주) 퀸즈2부예배 시)

6기: 김남근, 김현숙, 방옥분, 이유경, 진희철, 최경남, 최진영, 김정은
7기: 김영자, 김경신, 김순애, 김브라이언, 김하예, 손문남, 손미경, 서봉희, 이숙자, 이기훈, 한혜순, 홍대순

* "Treasure" 단원 모집

-대상: 유년부-1학년-2학년, 3학년-6학년 Youth Group-7학년-12학년
Young Adult-18세-25세 -문의: 이민숙 집사(201.767.7175, 201.658.7400)

* 평강교구 연합예배

-02.25(주) 5:00pm, 셋째새벽예배 -문의: 허재민 장로(631.742.3364)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1인수집사신교회: 12:30pm, 8층 -제7권사회: 12:30pm 5층 제2강의실
-제3인수집사신교회: 12:30pm, 5층 제1강의실 -제4신교위원회: 3:00pm, 7층

* 파직장 봉사자 명단

02.25(주)	03.04(주)	03.11(주)
곽용기,곽문태,권영환 김관용,김기성,김남근	김대원,김성태,김종훈 김재홍,김정열,김종철	나관식,문준이,한종기 박계근,박영욱,박종현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식당봉사교구 (02.25(주)-평강교구/03.04(주)-밀음교구/03.11(주)-은혜교구)

* 알립니다

-한국어학교(퀸) 불하기가 오늘(25일) 1:30pm 개강합니다.
-안내교구 강호식,윤희 집사 가정에 (02.08(목)) 은혜 군이 태어났습니다.
-소망교구 우재홍,수진 집사 가정에 (02.18(주)) 존(William)군이 태어났습니다.
-교 손장에 감사(화려)해서 선교헌금(\$55,512.21)및 송영사를 헌납하셨습니다.
-<2007 교회 요람>이 아삭신교회의 수고로 출간되었습니다. 가정 당 1권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Tax 보고를 위한 현금증명이 필요한 분은 재정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ull Time으로 식당을 관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행정실 718.321.7800
-교인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회에서 새가족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ine Lines 공영요지가 필요하신 분은 관대수 집사(718.321.7800)께 문의
-서장안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행바하)
김남수 목사 자서 및 Tape, 시편/히박국/사무엘 장년성경공부
Tape, 아람산 목사/김종순 목사/김삼현 목사/홍성주 목사/ 김영우 박사/
김순근 장로/문병주 장로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헌금	주정 헌금
\$126,995.07	\$1,458.00(누계 79,236.56 퍼 분)	\$13,000(누계 \$106,861.01)

예 배 안 내

	행 하 탄 성 전	퀸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양)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Promised) 10:30am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0pm 스페인어부 (토)7: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천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천,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목장
사담	주 언 중 장로	201-481-1153	과테말라	16
화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하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0-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최 원 호 장로	516-292-3019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80	북몰리비아	15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9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
밀음	유 재 규 장로	516-835-8867	베네수엘라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7
결례	최성식 안수집사	914-29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4인타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행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주일예배순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원 사회자

시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 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김홍재 집사(권1)/최선식 집사(권1)/최원호 장로(권2)

찬양 성가대

【권1】 모든 알렘 주 볼 때까지 (사온성가대)

【권2】 문들어 머리 들어라 (예루살렘성가대)

설교 설교자

【권2집은】 1월24일 | "학 2:18-19" 김남수 목사

【권1】 1.예배와 성령 | "요 4:23-24" 임용수 목사

헌금 다같이

국은성 자매(권1)/오계스트리(권2)/전성진 형제(젊은)

광고 사회

찬송 찬 30 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면 하 탄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젊은)		
02/04	공현희 장로	해태선 집사	신광은 장로	사회자		
02/11	노승범 집사	함승환 집사	안병상 장로	사회자		
02/18	박민수 집사	허형무 집사	주연중 장로	사회자		
02/25	이장길 집사	홍승창 집사	김명수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허연형	임용수	임용수	채이요	한기홍	김남수
사회	허연형	임용수	임용수	이영서	김남수	김성웅
기도	이정진	이창연	이화열	이학동	정재원	전일팔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복판들 환영

"주일 간의 삶과 신앙(가뭇된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L. 구와 경배(Worship)

1) 찬양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48) "보혈을 지나"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망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살아가는 힘 (심상 13:15-16) 이렇진 목사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

부족한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 김 남수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문명 만해를 밟 배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좀 바빠있지만 필기 시일을 먼저 본 다음, 합력하면 실가를 먼저 시청장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모임의 코스를 다 통과해야 문명 만해증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처음 사해를 보러 갔 때만 해도 젊고 남자니까 금방 뭉개지겠다 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필기 시일만 두 번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필기는 합력했지만 그 이후 살기 시일에서 살 만 되는 바탕에 필기 시일이 유요 기간인 1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볼 좋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문명 만해 사해를 보러간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러 인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너 사해를 봤다고 한자가 연 색인데 아직도 없느냐" 고 그렇게봐 술을 과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창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덧 세월이 흘러 드디어 사해에 합력을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의 차를 타고 나갔다가 집에 세워둔 남의 차를 받았습시다. 친구가 보더니 전화해 한 삼만원 정도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삼 여만원에 삼만원이면 굉장한 큰 돈입니다. 친구는 그냥 가지고 했지만 권도사 체면이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전화번호를 찍어서 붙이고 나서, 저는 되돌아 왔습시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열림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포스트잇으로 붙였는데, 세게 누르지 않고 살짝 눌렀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이 종이 바깥에 날라가게 하시면 좋구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뭉개지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가 자는 데 차주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 현상에 가 보았습니다. 차는 없고 주위를 살펴보니 저쪽 구석에 제가 찍어놓은 쪽지가 붙어있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 삼만원이 굳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에는 문명 만해 사해에서 여러 번 떨어진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숨겨려고 했었는데, 아래는 그 모든 일들이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졌고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있는 이야기 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그 당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건 포스트잇을 세게 눌러지 않았던 그 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바깥에 날라보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 큰 실년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경험이었습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이 한 두가지씩 더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이야기들, 처음 어떤과서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다닐 때 이야기들을 요즘 얼마나 자랑스럽고 재미있게 이야기 하나? 그 때 당시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자했습니까? 그러나 몇 십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되돌아 보았을 때 그러한 일들은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그때 당시는 장년의 선택을 통해서 이득과 편안함을 얻어서 출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칼이 된 후 당시에 강력한 불려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완벽하게 왕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왕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을 드리려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용이하고 술렁거리자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듯한 눈으로 앞에서 창자하고 부끄러웠습시다. 결국에는 참다 못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셨고, 그리고 사울의 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

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후에도 약 육백 명의 사람들이 사울 편에 남았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맛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깐 육백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같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 육천명이던 육천명이던 사울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있던 간에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원만만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인데, 사울의 선택에 커다란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자리, 게 다니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하려고 애 있었습시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름부를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좋은 기회를 물러갔습시다. 그는 순전히 즐거움과 재미와 여독에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앞에 섰을 때 과연 뭘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았는가? 내가 십년 이상인 지나서 오늘을 되돌아 보았을 때 내가 과연 그때에 그러할 참 찰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 은 그런 행동을 신학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영히 그 은혜의 복을 보장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순가되질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담담 이유가 없었지요. 단번에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함으로 이루실 수도 있었습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는 사람의 불행한 것, 재물이 버리는 그 길, 거기서 오는 이득과 명성과 박수와 환호,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시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본 망한 자로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살면서 이러한 순덕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오직 베드로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 이야기를 뉘을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자한 과거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회개할 때, 그가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라에게도 약간의 편법을 통해서도 큰 이득을 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시다. 교통 법규, 어떤 계약 등 조금만 수를 쓰면 단번에 큰 이득을 얻게 되는 일들이 많습시다. 그러나 그게 더 이득을 받아들이고 돈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내가 십년 이상인 지나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내가 그때에 담세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일이 될수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위하여, 초대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다윗처럼 신앙의 방금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쁨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시다.

〈작품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 3) 애인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김광구, 김재경, 김재석, 유호빈, Ohell 오, 이상욱
-중앙: 김광수, 최영국, 김정연

* 김춘근 장로(JAMA 대표) 초청 영적 대 각성 집회

(03.18(금) 저녁-18(주) 밤/컨2부 저녁-8:00, 새벽-5:30)

*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03.18(월)-04.07(토))

* 새가족 만남

-일시: 03.04/11/18/25(주) 12:30pm -장소: 김남수 목사, 김도윤 사모
-대상: 새가족 교우를 받지 않은 모든 성도

* Musical "His Life(The Promise)" 공연

-04.05(목)-06(금) 8:00pm, 04.07(토)-08(주) 4:00pm, 8:00pm

-Ticket: \$25(5명 이상 \$20) Bookstore 앞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우호성 집사(718.321.7800) *공연을 위해서 기도에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고등부(Promise Youth) 애플레시아 1기 모집

-기간: 04.08(주)-04(수) -회비: \$150 -대상: 9학년-12학년(50명)

-신청: 컨2부예 후 안내석, 03.18(주) 마감

-문의: 김성용 권도사 Danmyk@gmail.com, 안정진 권도사 anjinan@gmail.com

* Honduras Medical Fair 봉사자 모집

-기간: 04.23(월)-28(토) -문의: 오용환 집사(718.961.0765)

* PGM 선교학교 모집 및 개강예배

-03.15(목) 7:30pm-10:00pm, 첫째마네성전 -말씀: 김남수 목사

-대상: 신실성, 자학성, 졸업생, PGM Promise 회원

-문의: 유상용 권도사(718.219.9914), 정재호(646.407.5554)

* 힐링 캠프 예배 안내 및 교사 모집

힐링 캠프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연령제한 없음)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예배: 11:00am-12:30pm, 아메리칸 힐링캠프실

-예배나 교사에 관한 문의: 유상용 권도사(917.721.8547)

* 스테판청년회 모임 변경 안내 -제 주일 3:30pm, 6층 Chapel

* 다음 주일 가관별 모임 -제4권사회, 모세선교회, 해리선교회원회

* 이번 주일 가관별 모임

-미라이선교회: 5층 2강의실

-제6권사회: 7층 회의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3.11(주)	03.18(주)	03.25(주)
나정식,문준이,민준기 박계근,박영옥,박종현	박희도,박희석,서 병 석형집,오재용,온규두	유일용,이건우,이가영 이길부,이상주,이성봉

* 의료위원회의 무료 건강상담 안내

-제 주일 12:30-2:30pm, 4층 의료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식당봉사교구 03.11(주)-은혜교구/03.18(주)-은유교구/03.25(주)-물결교구

* 알립니다

-은혜교구 박병만 집사의 부친 박순주 성도께서 03.08(수)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밀음교구 이혜옥 권사(이병희 집사) 가정의 어정은 양과 홍성진 권의 결혼식이 03.10(토) 모일원에서 있었습니다.

-광장교구 권영환 집사께서 Little Neck에 치과를 개원하셨습니다.

-알래스카여행 참가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08.30(목)-09.08(금) 718.321.7800

-Family Today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Family Today의 취재기자 및 원고지자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유일용 집사(917.575.2079)

-Credit Union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은 목장지도자(목자, 순장, 교구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Tax 보고를 위한 현금증명이 필요한 분은 재정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침안내: 리더십의 용기(빌 하이벨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이 도우슨)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고든 맥도널드), 침묵(앤드 슈사부)

Sale-지도 밖으로 향군하라(한바야) 설교집/설교대일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급식헌금	주침헌금
\$168,636.38	\$1,347.00(누계-124,664.56 미 분)	\$14,364.50(누계-\$134,360.51)

예 배 안 내

	만 하 란 성 전	캠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유아,유치,유초등부(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미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페인청년부 (토)7: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아단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 장
사랑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파라과이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0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46	도미니카공화국	13
지바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최 원 호 장로	516-292-3019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원 안수집사	718-961-5460	북몰리비아	16
충성	최 종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광광	허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
밀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	11
은혜	김 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토/토 10:00am/8:30pm
바우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5:30am

캠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헨리턴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대학원
신학대학원

성경대학원

주 일 예 배 순 서

시화: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0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노승범 집사(권1)/함승만 집사(권1)/양병상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편1] 마음이 상한 자들 (시온성가대)

[편2] 가장 귀한 것으로 찬양 (여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편.권2] [집회어십일일] "학 21-5" 김남수 목사

[편1] [Lostness] "눅 15:7, 요 12:32, 마 24:14"

Rev. Mike McClaffin

[집회] (가난한 자에게 복음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눅 4:16-21" 김오성 목사

현 금 다같이

최숙희 집사(권1)/이광숙 사모(권2)

분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 일 예배위원

	만 하 담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조3부(공문)		
03/18	박민수 집사	허영무 집사	주연중 장로	사회자		
03/25	이강길 집사	홍승찬 집사	김명수 장로	사회자		
04/01	강종영 장로	강성순 집사	김동복 장로	사회자		
04/08	임일진 집사	고용만 집사	허의호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임용수	허연형	Joano	허연형	김남수	김준근
사회	임용수	허연형	임용수	허연형	안진성	김남수
기도	함승만	홍승찬	강성순	고용만	권광열	조소현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장을 환영

2) '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뻐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노래(Worship)

1) 찬양곡: "내가 배워 기쁘게(찬47) "보혈을 지나"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Lostness (눅 15:7, 요 12:32, 마 24:14) Rev. Mike McClaffin

35년 전에 제와 아내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면서 태어났고 아프리카는 제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세상 전체가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아프리카는 매일 매우 매일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994년에 우간다에서는 매일 동안에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막대기로 치고 때려서 죽인 것이 80만 명입니다. 콩고에서는 내전으로 지난 14년 동안에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단에서는 지금도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250만 명이 죽어갑니다. 에이즈는 이 땅의 일(癌)입니다. 아프리카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땅에 오셔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회 고난 통계를 보면, 1990년도에 아프리카의 전체 대륙에 5,000명의 목사와 11,000개의 교회 그리고 2백만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36,000명의 목사와 44,000개의 교회, 그리고 1,400백만 명이 넘는 교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왜 아프리카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사역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배우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지평에서부터 진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지주는 잃어버린 상태(Lostness)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일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발견되고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축복입니다.

눅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막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마리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가서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양은 잘못을 위는 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먹고 견고하고 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산책대가를 넘어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청소를 차려 주위를 보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임을 알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렸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자가 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여자가 열 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을 켜고 잃었던 동전을 찾아냅니다. 그 동전도 자기가 잃어버려졌지만 스스로 주인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옵니다.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잃어버린

것이지만 이 말씀을 여기에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아이 구원을 받았으며 잃어버린 이 한 마리를 구했을 때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심양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저가서는 결코 하늘의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본성에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자신에게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삶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갈자 갈 고향으로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관한 말씀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면 우리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오래 전 탄자니아의 성경학교에서 개인 전도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생 중에 운전을 배우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학 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때에 자위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 마친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그 때 갑자기 그 학생이 급히 나가더니 손에 전도지 및 장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 저는 그 학생을 알았습니다. '내가 선생이고 너는 학생 아니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학위도 없고 하니 잘못 하다가 그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들지 말고 기만하 있거라 내가 알아서 나중에 정정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32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그 학생이 교수인 나를 바라보는 눈빛과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생님, 저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한 마디가 지금까지도 제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면 아름다운 찬양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교제도 있고 성경의 자유를 찾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재정적인 축복도 주님과 여러분의 필요로 모든 것을 일생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면 축복과 기쁨으로 예배당을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1) 통상 기도

주님,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 잃어버린 자들을 마음에 두게 하옵소서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내기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인데 자들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2) 찬양과 찬고, 주기도문

3) 애전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김혜영, 김다현, 박유진, 김준범
-방문: 박진모

* 김춘근 장로(JAMA 대표) 초청 영적 대 각성 집회

-03.18(금) 저녁-18(주) 맨/원23부 저녁-8:00, 새벽-5:30

*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02.19(월)-04.07(토)

* 목장지도자/심방위원 세미나

-켄하임/켄즈2부예배 후

* 새가족 만남

-일시: 03.04/11/18/25(주)12:30pm -장사: 김남수 목사, 김도윤 사모

-장소: 5층 강의실 -대상: 새가족 교육을 받지 않으신 모든 성도

* Musical "His Life(The Promise)" 공연

-04.05(목)-06(금) 8:00pm, 04.07(토)-08(주) 4:00pm, 8:00pm

-Ticket: \$25(5명 이상 \$20) Bookstore 앞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우호정 집사(718.321.7800) *공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고등부(Promise Youth) 여글레시아 1기 모집

-기간: 04.01(주)-04(수) -회비: \$150 -대상: 9학년-12학년(90명)

-신청: 켄2부예배 후 안내식, 오늘 마감

-문의: 김성용 전도사 Daneyk9@gmail.com, 안진성 전도사 ahnjshn@gmail.com

* 글로벌비전여행(고등부)/호두라스,알래스카여행(중등부) 신청

-주일 12:30pm-1:30pm, 아래층 식당 앞구

-주중 9:00am-5:00pm, 김성용 전도사, 안진성 전도사(4층 사무실, 718.321.7800)

* Honduras Medical Fair 봉사자 모집

-기간: 04.28(월)-29(토) -문의: 오승환 정모(718.961.0780)

* 할렘 캠프 예배 안내 및 교사 모집

-할렘 캠프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 장애가 있는 아플(연령제한 없음)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예배: 11:30am-12:30pm, 아래층 할렘캠프실

-예배나 교사에 관한 문의: 윤정순 전도사(917.721.8547)

* 스테이션청년회 모임 변경 안내

-대 주일 3:30pm, 6층 Chapel

* 다음 주일 기관별 모임

-재2안수집사선교회: 1:00pm, 5층 2강의실 -재7권사회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모세선교회: 2부예배 후 5층 -재3권사회: 2부예배 후, 8층 이삭선교회실

-해와선교회: 3:00pm, 7층 회의실 -PGM Promise선교회: 5:00pm, 7층

-재4권사회: 1:00pm, 7층 회의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3.18(주) 03.25(주) 04.01

박희도,최희석,서범 유일용,이건우,이기영 여재영,이희영,이희용

석형정,오재용,윤규두 이길부,이상주,이성봉 전일필,정연재,정원재

* 의료위원회의 무료 건강상담 안내

-대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전도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식당봉사교구 03.18(주) 온유교구/03.25(주) 불세교구/04.01(주) 사당교구

* 알립니다

-절제교구 김동철 집사께서 Flushing 162 St. & 45 Ave.에 '할어센터'를 Open

하셨습니다.

-재2권사회에서 \$1000 할렘선교회금 하셨습니다.

-알래스카여행 참가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08.30(목)-09.07(금) 718.321.7800

-Family Today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Family Today의 취재기자 및 원고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유일용 집사(917.575.2070)

-Credit Union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은 목장지도자(목자, 순장, 교구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Tax 보고를 위한 현금증명이 필요한 분은 재정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장안내: 친밀함을 향한 마음(고든 맥도날드), 독서와 영적 성숙(김준민)

-기도모임집-기도로 남편을 돌린다(스튜어트 오마산), 우리도 몰랐던 한국의 힘

(경향신문) Sale-최효삼 목사 저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아구레), 신학도서

설교집/설교대일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식 헌 금 주 청 헌 금

\$149,395.81 \$585,00(누계-127,004 개 분) \$13,913,50(누계-\$148,274.01)

예 배 안 내

	팬 하 탈 성 전		켄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1 부(영성)	8:30am
			장년성령공부	9: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한국어학교	8:30am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Promised) 2부	10:30am 1:30pm
		8:30am	중,고등부(한,영)	10:30am
		10:2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태이션청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I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단	주 언 중 장로	201-401-1153	파테말라	16
희락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9042	멕시코	8
희경	해 의 호 장로	201-568-08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지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한 장로	718-896-7003	남폴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3-5490	북폴리비아	16
충성	최 흥 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평강	하 재 민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페루주엘라	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온유	박 준 성 장로	718-743-2674	알바니아	7
평화	최상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3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가톨릭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쉼터	토 6:30am

켄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켄하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세계 선교 센터
세계 선교 센터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허연행 목사(켄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70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박연수 집사(켄1)/허연행 집사(켄1)/주연중 집사(켄2)

찬 양 성가대

【켄1】영광의 구원의 하나님 (사온성가대)

【켄2】사도신경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켄1】(말씀이심일) "막 2:1-5" 김남수 목사

【켄2】(말씀이심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마 28:18-20, 행 1:8"

김준근 장로

【말은】(말씀이심일) "마 6:33" 김준근 장로

헌 금 다같이

최수연 집사(켄1)/김성주 형제(켄2)

광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켄 하 단	켄 조 1 부	켄 조 2 부	켄조3부(말은)		
03/25	이강길 집사	홍승용 집사	김영수 장로	사회자		
04/01	김종영 장로	강성순 집사	김동욱 장로	사회자		
04/08	임일진 집사	고용만 집사	허영호 장로	사회자		
04/15	장상수 집사	죽영기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말	회	수	목	금	토
설교	임용수	허연행	임용수	Richardson	김남수	김남수
사회	임용수	허연행	임용수	허연행	인진성	김성용
기도	권영환	권대수	김관유	김남근	김대원	김성태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복양들 환영

2) 약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데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E. 다 결매(Worship)

1) 찬양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찬400) "이호와 나의 목자"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말씀이심일 (막 2:1-5) 김 남수 목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무슨 크고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멀리 떠나보지도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제 자신의 지나온 복화를 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면히한 복화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다 보니 성경을 건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마침 51개의 25,000 스퀘어피트가 되는 땅이 경매로 나와서 70만 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건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온 교인이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서를 불러 회의한 결과 교회가 희망하는 시설을 갖추려면 약 1천 스퀘어피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찰에 가서 알아보니 이 지역은 조남이 공판이나 증권업자대에게에 교회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현금을 하고 기도를 하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땅은 주셨는데 하가는 왜 인해주십니까?" 하면서 낙심했습니다. 몇년 후 LA에서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장관 목사님하고 옆자리에서 같이 오게 되었는데, 교회를 건축하려거든 땅은 5에이커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거듭 몇 번씩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Queen에 건물에 하나 나왔다고 해서 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것을 보러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 켄조 성전 땅이 5에이커였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벽을 붙잡고 간질간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결단하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가가 나오지 않아서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 짧은 시간에 배럴처럼 성전 및 채목관을 짓고 지하 식당을 고치고 예수상설 성전을 새로 짓고 소제를 만들고 본 타워 건물을 수리하고 파킹장 정리하고 유틸리티 채우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한해만에 다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면한 땅을 팔려고 내놓았더니 어찌된 일인지 백만불까지 가격을 내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2년 쯤 후에 어느 분이 와서 1,000만불에 그 땅을 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모자르는 건축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은 본부에서 갖다 넣이 두었는데 최근에 외국에 있는 아담엔 건물을 75만 불에 계약하고 3월 중에 완료장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에 면한 땅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땅을 팔아 켄조성전도 완성시키고 나아가 어떤 면한 땅성전도 마련하게 되었으니, 하나 알아서 들어 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이 좁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올 때 없이 걱정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성전도 지었으니 유람선처럼 좀 편안하게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구촌 곳곳의 아이들을 복음과 교육으로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기교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묶어주시는 작업을 자급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라 같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에 동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일하기로 하고 얼마 전 여행 시간에 상호간(성경과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그분들이 아프리카에 살지만 성경에서 양쪽을 인도하시며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LA의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두 주일 전에는 중국 도원에서 오신 정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중국의 동북 삼성과 함께 거기서 가까운 북한 땅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Network이 형성되면 2008년에는 그 분들이 뉴욕과 LA, 탄자니아와 중국과 중남미 등 여러 곳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구체적인 토론회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서로 분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시대에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다음 2009년부터는 각 교회들이 이미 세워진 작전 계획에 따라 역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한 대륙에 수천 개씩 동시 다발적으로 학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지구상 인구의 상분의 일이 15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그 중의 절반만이라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아슬람 인구는 1900년대에 2억이었는데 2009년에 13억4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100년 사이에 여섯 배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놓친다면,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이 일에 대해 귀를 막고 눈을 감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습니다. '7월22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내용은 (1) 첫 번째는 '스스로 굳게 잡자'이다. 포로가 된 채로 로마에 지냈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포로가 이후에 완성된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신대적 초라함에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스스로 굳게 잡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슴을 펴십시오. 그리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2) 두 번째는 '우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3) 세 번째 '만국을 정복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니 영광으로 이 전을 종만케 하라. .. 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이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참여하는 것이 이 사역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적용과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 3) 애전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Dennis Taylor, 김진호, 김희자, Judy Kim, 정현욱, Abigail, 백은영
임태웅, 임창운, 임수빈, 임용석
-방문: 김진희, Terrence Kenble, 이유진, 정연욱

*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 예배 안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04.02(월)-07(토) 5:30am
김남수 목사(월-수)/문봉주 장로(목-토)
-고난주간 금식기도회: 04.03(화) 새벽-04(수) 오후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Flushing 5지역): 04.08(주) 5:30am, 예루살렘성전

* 새가족 만남

-일시: 03.04/11/18/25(주) 12:30pm -장소: 김남수 목사, 김도은 사모
-장소: 5층 1 강의실 -대상: 새가족 교육을 받지 않으신 모든 성도

* 세례식 안내

04.08(주) 퀸즈2부예배 시 -교목: 03.25(주)/04.01(주) 1:00pm, 2층 강의실

* Musical "His Life(The Promise)" 공연

-04.05(목)-06(금) 8:00pm, 04.07(토)-08(주) 4:00pm, 8:00pm
-Ticket: \$25(5명 이상 \$30) Bookstore 앞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우호정 집사(718.321.7800) *공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taff(Usher) 모임> -오늘 1:00pm, 식당

* 글로벌비전여행(고등부)/혼두라스, 알래스카여행(중등부) 신청

-주일 12:30pm-1:30pm, 아래층 식당 입구
-주중 9:00am-5:00pm, 김성용 권도사, 안진성 권도사(4층 사무실, 718.321.7800)

* 2세들을 위한 세계지도자개발학교(JAMA주회)

-기간/장소: 06.24(주)-08.03(금) 40일간, Vanguard Univ. CA
-자격: 19-25세의 한국계 미국시민, 탁월한 성직과 리더십을 가진 중생한 세계교인
-마감: 03.31(토) -자세한 안내: 213.492.3777 www.JAMASchool.org

* Honduras Medical Fair 봉사자 모집

-기간: 04.23(월)-28(토) -문의: 오동환 장로(718.961.0786)

* 할렘 캠프 예배 안내 및 교사 모집

할렘 캠프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 장애가 있는 어린이(연령제한 없음)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예배: 11:00am-12:30pm, 아래층 할렘캠프실
-예배나 교사에 관한 문의: 윤정순 권도사(917.721.8547)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1인수집사선교회: 2부예배 후, 8층 이삭선교회실
-제2인수집사선교회: 1:00pm, 5층 2 강의실
-제3인수집사선교회: 1:30pm, 7층 권사회실 -제7권사회: 에블레시아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3.25(주)	04.01(주)	04.08(주)
유일용, 이진우, 이기영 이길부, 이상주, 이상봉	이재명, 이혁열, 이학용 전일필, 정연택, 정원태	장인주, 조상원, 조소현 최성식, 최우준, 홍승환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성경완독자

고하환(화평), 김유자(자비) 3독, 조미자(사랑) 2독, 강대원(자비), 임금자(은유)

* 식당봉사교구 03.25(주)-절제교구/04.01(주)-사랑교구/04.08(주)-안내교구

* 알립니다

-소망교구 김정자 집사의 부친 공상문 집사께서 03.02(금) 한국에서 소환 하셨습니다.
-충성교구 최우준 집사의 부친 최이정 성도께서 03.02(금) 소환하셨습니다.
-은혜교구 지만용 집사 가정에서 Jamaica에 Fruit Store를 Open하셨습니다.
-Family Today의 취재기자 및 원고자로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유일용 집사(917.575.2079)
-서함안내: 신희(현/영, 브래넌 매님), 소명(현/영, 오스카네스),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맥스 루키도), 최혁강과 은혜(를 부르나에) Sale-신하도서
설교집/설교대일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금 식 헌 금	주 정 헌 금
\$170,117.98	\$896.00(누계-129,788 처 분)	\$13,544.00(누계-\$161,818.01)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퀸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1 부(영성) 장년성경공부 8: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현,영) 10:30am 강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태반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현,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정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랑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파라과과	15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9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0-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성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정연 안수집사	718-961-5490	북볼리비아	16
충성	최 흥 산 장로	631-277-5662	페루	10
광강	하 재 램 장로	631-271-6507	한자니아	10
믿음	윤 재 규 장로	516-825-8957	베네수엘라	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9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s.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타넷
Cs.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비주 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 사랑, 영혼의
성경, 사랑, 영혼의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53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이경길 집사(권1)/홍승창 집사(권1)/김병수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편】 In Times Like This (사온성가대)

【편2】 I Don't Know Why (여부실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함 품이 되어) "롬 123" 임용수 목사

【편.권2】 (군인정신 1) "행 11:22-24" 김남수 목사

【해문】 (주의 은혜의 해) "눅 4:18-21"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국문산 차례(편)/남성4중창(권2)

품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장을 환영

* "일 간의 삶과 신앙(기뻐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찬408)

"여호와 나의 목자"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마 28:18-20, 행 1:3) 김 춘근 장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을
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소원이 계십니다. 이 하
나님과 소원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 주시고 말씀에 주시는 것이 비로
환상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나." 우리는 기가 막힌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황태자 황녀인 것입니
다. 또한 우리는 '대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75개국에 750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이민자들과 인도의 이민자들, 그리고 유대인 이민자들을 다 합쳐
도 우리나라 사람들과만 각 나라에 퍼진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종이 어느 민족입니까? 쓴 뿌리가 제일 많은 민족이 어디겠습니까?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는 한이 한국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 그 한 많은 우리의 심장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꾼다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심장이 나
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이 강한 나라가 역사상에 존재한 일이
없습니다만, 미국도 같이 들여다보면 이 나라 역사 한이 굉장한 많은 나라입니
다. 남북 전쟁 때에 같은 사람들끼리 죽이고 해서 그 상처가 지금 백오십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도 깊숙이 뿌리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스페인 전쟁 또 한국 전쟁, 월남 전쟁, 걸프전, 아라크전, 아프카니스탄 전쟁

.....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상처를 입고 자식들과 남편과
형제들을 잃고 있는 그 상처가 세 나라였습니까? 1975년에 1월에 대법원에서
내란법을 통과시킨 이후 4,500만명의 어린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물음이 일어나 미국에 송탄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고,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우리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황
태자 종녀들, 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미국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
지 않는다면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누가 미국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세계를 만들고 누가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난 150년 동안에 어떤 민족도 이 미국을 상징으로 얻고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신 대 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황금도의 신앙을 회복시키므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
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 외에는 없습니다.

1907-30년 겨울에 스탈린 수상이 모든 국동에 있는 타민족들을 모아 그 추운 겨
울에 곡간차에 실어서 전부 중앙아시아에 보냈습니다. 그때에 70-80마일로 달려
서 도착해서 문을 열어보니 제일 가장자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들이 감하고
있었는데 다 없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이 든 분들 역시 없어죽거나 동

상이 걸리게 되었는데, 오직 그 가장 안쪽에 있던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은
다 살았습니다. 살아난 그들을 돌보아 버려두었다니 얼마 되지 않아서 팔에
서 종이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호미와 삽도 불도저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갈밭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그지 놀라운 뿐입니다. 그
아이들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1300번
이나 외침과 내란에 시달린 것도 억울한데 어찌하고 우리 민족이 이곳에까지
와서 더 죽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내
가 일어나 너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면 너의 민족을 죽이면서까지 여기까
지 오게 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
다.

비전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주류는 이성주의, 인본주의, 다문화주의 등입니다. 이 다문화
주의가 무엇입니까? 어느 가치나 어느 문화도 다 기독교 문화와 똑같고 그만
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고 있는 연방대기 지금의 50대입니다. 30년
전에 해외 문화로 시작된 counter-culture가 지금의 미국의 주류를 잡고 있습
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20-30년 동안의 편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에 있는 한인, 흑인 히스패닉 모든
크리스천들이 힘을 합쳐서 이 미국을 타락시키는 제 3의 세력을 잡지 못한다
면 우리가 미국에 온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
다. 우리에게 꼭 살 길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미국을 감탄하실 수 있는
새로운 문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부흥을 이 땅에 오게 하
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주류를 이룰 수 있는 훈련을 앞으로
20-30년 동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19세-25세 우리 자녀들 200명
을 모아 육군사관학교같이 40일동안 리더십을 훈련시킵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자연 재해, 초노미, 핵무기가 아니라 '리더가 없는 것'이라 했습
니다. 우리 자녀들과 세계 곳곳에 있는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훈련
시키고 아들을 전세계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감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이 일을 우리 어른들이 안 하고 떠난다면
30년 후에 지금의 주류들이 아직도 주류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
니다. 일어나십시오.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 한국인의 차례가 왔
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때는 많은 할례를 통해서 물이 바다 되었을같이 미국과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섬련할 그때 까지 경진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
남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전진하세요! 아멘!

(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
요.

IV. 사역(Work)

1) 통상 기도

2) 헌금과 품고, 주기도문

3) 애찬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탄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출근)		
04/01	김종영 장로	김성순 집사	김동복 장로	사회자		
04/08	양일진 집사	고용만 집사	허의호 장로	사회자		
04/15	정성수 집사	곽영기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04/22	강찬순 집사	곽은태 집사	김갑수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일	화	수	목	금	토
설교	하연행	김남수	임용수	임용수	Richardson	Hurst
사회	하연행	안진성	임용수	임용수	하연행	김남수
기도	강영호	김영환	김형석	김정훈	김재용	김정열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박기숙, 김위생, 김정희, 문정일, 하복진, 방 Esther, 박운호, 이경민, 박영은
박영훈, 장달남, 이강민
-방문: 배은호, 김중현, 이남규, 이홍규

■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 예배 안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04.08(월)-08(토) 5:30am
강남수 목사(월-수)/문병주 집로(목-토)
-고난주간 금식기도회: 04.08(월) 새벽 06(수) 오후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Flushing 5지역): 04.08(주) 5:30am, 예루살렘성전

■ Musical "His Life(The Promise)" 공연

-04.05(목) 06(금) 8:00pm, 04.07(토)-08(주) 4:00pm, 8:00pm
-Ticket: \$25(5명 이상 \$20) Bookstore 앞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우호정 집사(718.321.7800) *공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Musical 오프닝 축제

-04.04(수) 7:00pm-8:15pm-식사(식당), 8:30pm-관람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티켓을 가져와야 합니다. 아직 티켓을 못 받으신 분은 교구장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례식 안내

-04.08(주) 퀸즈2부예배 시

■ 새가족 만남 수료자 명단

한상원, 한선미, 이영우, 이영숙, 전상진, 전나영, 이승민, 이재연, 김지민, 김연혜, 정재익스, 장준, 허재훈, 허옥, 오원진, 오영숙, 정현목, 장민주, 김정환, 김정, 장재영, 정유자, 이기정, 한혜진, 반영순, 김구연, 김인경, 박가숙, 이연순, 육순자, 손미희, 김형구, 김홍진, 석미옥, 오오영, 방영주, 임희지, 이선숙, 임정희, 박수남, 박언아, 권지희, 김한정 (이상 43 명)

■ 예루살렘성가대/오케스트라 Spring Concert

-04.15(주) 4:00pm, 예루살렘성전

■ 글로벌비전여행(고등부)/혼두라스, 알래스카여행(중등부) 신청

-주일 12:30pm-1:30pm, 아래층 식당 입구
-주중 9:00am-5:00pm, 김창용 전도사, 임진성 전도사(4층 사무실, 718.321.7800)

■ Honduras Medical Fair 봉사자 모집

-기간: 04.23(월)-28(토) -문의: 오승환 집로(718.961.0786)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아사성교회 임시총회: 1:00pm, 선교회실 -제1권사회: 1:00pm, 9층 왼쪽 방
-제2권사회: 1:00pm, 9층 오른쪽 방 -제4권사회: 1:00pm, 7층 권사회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4.01(주)	04.08(주)	04.15(주)
이재민,이하영,이하윤 장원희,장원택,장원태	장민주,조상영,조소현 최성식,최우준,홍승진	강성순,고용민,곽용기 곽문태,권영환,김관우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정연택 집사(718.877.8288)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6층 중등부 예배실(오른쪽 끝 방)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제작)
-상담하실 분은 주일 아침 8시에 오셔서 예약자에 이름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 식당봉사교구

04.01(주)-사립교구/04.08(주)-안내교구/04.15(주)-자비교구
소망교구 이종철, 이영아 집사 가정에 03.28(월) 도훈(Joshua) 군이 태어났습니다.
평강교구 성경환 형제, 최정은 집사 가정에 03.28(수) Alissa 양이 태어났습니다.
평강교구 배병주 집사 가정에서 형남동에 새가족을 오픈하셨습니다.
Family Today의 취재기자 및 원고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유일용 집사(917.575.2079)

-서한안내: 아들의 기도(동행할), 삼자가 부활의 명성(본 회퍼), 탁월한 열매
비너비(존 스로만),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 이야기(한기재), 삼십(말 하이
벨스) Sale 신학도서, 성경/찬송가 CD 설교집/설교대일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금 식 헌 금	주 전 헌 금
\$132,183.01	\$1,742.00(누계-100,758 지 분)	\$13,381.00(누계-\$175,199.01)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퀸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유아,유치,유초등부(부 10:30am (Promised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페인청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아카데미(Q&A)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경 화 방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립	주 언 중 집로	201-491-1153	과테말라	18
석학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0242	멕시코	8
화영	하 의 호 집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20
안내	김 종 복 집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집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집로	718-896-7003	남열리비아	14
소망	이강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열리비아	15
충성	최 흥 선 집로	631-277-5662	페루	10
평강	하 재 인 집로	631-271-6607	탄자니아	10
믿음	윤 재 규 집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	11
온혜	김 형 후 집로	718-661-3521	모로코	16
온유	백 문 성 집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아주가톨릭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선교 센터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허연행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17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입일전 집사(권1)/감심순 집사(권1)/김동욱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	-----

【권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온성가대)

【권2】 호신나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	-----

【권1】 2월은 (Sinner's Path) "단후 135" Rev. Randy Hest

【권2】 (군인정신) "행 11:22-24" 김남수 목사

성 찬 식	다같이
-------------	-----

헌 금	다같이
-----------	-----

김병호 함례(권2)

광 고	사회자
-----------	-----

찬 송	찬 385 장	다같이
-----------	---------------	-----

축 도	설교자
-----------	-----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3부(출은)		
04/08	김종영 장로	고원만 집사	허의호 장로	사회자		
04/15	장성수 집사	박영기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04/22	장찬순 집사	박윤재 집사	김갑수 장로	사회자		
04/29	김홍재 집사	관광원 집사	박준성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김남수	김남수	문봉주	문봉주	문봉주
사회	임용수	허연행	임용수	허연행	허연행	임용수
기도	김종영	나경식	박영국	박원희	서선모	서영주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복원들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일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가요곡: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내(찬385) " "어호와 나의 복자" (복)

2) 4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설교(Word): 군인정신 I (행 11:22-24) 김 남수 목사

"군인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사님! 군인 이야기 그만하시고 좀 다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생활도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매일 군대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자도 그럴 때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고인들에게 올 때마다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고, 그렇게 많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연세가 이 문제는 물어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지를 입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런 문제 지면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붙잡고 놓아치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못 하고 결국 내인 위해서 살다가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이렇게 지랄게 오고 가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주 만지 입고 오리라 속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인 이야기는 자와 이윤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전을 하면 일꾼이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고 말씀합니다(행 2:25, 26, 27, 28,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오' "는 비유처럼 유령들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을 인도한 바나바라는 사람을 ...로 삼아 그의 군인 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지중해 사이프러스라는 조그마한 섬 출신이며 유대인이며, 레위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다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바나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권위자, 위도자, 좋은 자"입니다. 그의 삶은 작고 그의 신앙은 성령의 충만하고 그의 믿음과 영성이 특출하고 그는 많은 자식과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군인 정신에 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군인정신은 "충성심입니다." 이 충성심이 바로 군인정신의 핵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부르신 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군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해 처음 소개하는 곳이 사도행전 13:9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 있는 소원을 끌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자기기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주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군인정신은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의 명령에 복종할 철저한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과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한

목적과 한 임팩트 한 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전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번째, 전투에 대한 동지감입니다. 전쟁하에 같이 나갔던 전투들 사이에는 아주 두터운 우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자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면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뛰어 들어가서 업고 뛰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정신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도 예루살렘에서 한 동안 행방도 못 내밀고 있다가 결국 고방에 내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무릎중에 걸어서 평범한 무장인사로 끝날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때 바나바가 사람들을 설득한 결과, 사람들이 그를 형제로 인정하고 그 날부터 가슴을 펴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처럼 동지애를 가지고 섬기는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되어서 찾아가서, 만나서, 데리고 와서 함께 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은 우리에게 중대한 해입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사하라까지, 동구과 지역에서 서구과까지, 미국 동부에서 중부와 서부까지, 북미와 남미까지, 저 매진라에서부터 북극까지, 저 안데스산맥까지, 저 알파카의 북극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남극까지,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 인도, 타이완도인 리오스, 캄보디아, 월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그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전체 인구의 28.9%인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그 사역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등 모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기독교 대통령, 각국의 대사, 국회의원, 법관, 실업인, 교육전문가,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앞으로 권리와 권술을 그리고 작정계획을 함께 토론하고, 2009년이 되면 이 비전을 가장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설계도이고 작정계획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내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써 새롭게 변화될 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학자 발도 필만이라는 사람은 신약 교회를 1세기부터 천년까지는 동방 교회, 그리고 천년부터 천오백년까지는 로마 카톨릭교회, 그리고 천오백년부터 이천년까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과 개신교,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가 바뀔 것 같다. 구약과 미국 중심의 기독교 지도에서 아프리카와 중남미와 기독교 세력이 더 왕성하게 되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독교시대가 올 것 같다." 우리는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가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벌써 작은 동한 하나가 12만개를 넘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군인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동심 기도
- 2) 한글과 광고, 추기도문
- 3) 예전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한상일, 김도자, 한영일, 이남규, 송오용, 김상식, 김창순, 김재인, 김태영
김해나, 김수경, 김현순

-방문: 이도경, 송송혜, 이요경, 윤브라이언

* 오순절 새벽기도회

-04.08(월)-05.28(토)

* Musical "His Life(The Promise)" 공연

-04.05(목)-06(금) 8:00pm, 04.07(토)-08(주) 4:00pm, 8:00pm

-Ticket: \$25(5명 이상 \$20) Bookstore 앞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우호정 집사(718.321.7800) *공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언어식

-05.13(주)

* 목장지도자/심방위원 세미나

-04.15(주) 연하산, 캠프2부예회 후

* C-12 대그를 모임

-04.12(목) 8:00pm, 예루살렘성전

* Youth 에글레시아 Reunion

-04.15(주) 3:30pm, 6층 오른쪽 예배실

* 새봄맞이 Spring Concert

-04.15(주) 4:00pm, 예루살렘성전 -주최: 찬양위원회

* 글로벌비전여행(고등부)/호두라스, 알레스카여행(중등부) 신청

-주일 12:30pm-1:30pm, 아래층 식당 입구

-주중 9:00am-5:00pm, 김성용 전도사, 안진성 전도사(4층 사무실, 718.321.7800)

* Honduras Medical Fair 봉사자 모집

-기간: 04.23(월)-28(토) -문의: 오용환 장로(718.961.0780)

* 중국어 초급반 모집

-수업: 매주일 1:30pm, 6층

-중국어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이번 주일 기쁜별 모임

-미리아신교회: 1:00pm, 5층 광의실 -재경사회: 1:00pm, 8층 이사신교회실

-재경사회: 1:00pm, 7층 경사회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4.08(주)	04.15(주)	04.22(주)
정만주,조상일,조소현 최성식,최우준,강성순	고용범,곽윤기,곽윤태 권영환,김관유,김기성	김남균,김대원,김성태 김정훈,김재현,김정영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태 집사(718.877.8280)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6층 중등부 예배실(오른쪽 끝 방)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자료)

-상담하실 분은 주일 아침 6층에 오셔서 예약자에 이름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 성경원독자

-신종순(사망)

* 식당봉사교구 04.08(주)-안내교구/04.15(주)-지비교구/04.22(주)-왕선교구

* 알립니다

-Fine Lawn 묘지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지를 구입하신 분들은 Payment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Family Today의 취재기자 및 원고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유인용 집사(917.575.2079)

-서장안내: 부활절 복합세일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급식헌금	주정헌금
\$127,799.16	\$1,062.50(누계-104,928 차분)	\$15,318.97(누계-\$190,517.98)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캠 프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장년성경공부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Promiseland) 2부 10:30a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예 어등 10:30am 한국어학교 스테인참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I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담	주 안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회막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042	멕시코	8
회관	허 외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지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왕선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볼리비아	16
충성	최 흥 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관감	하 재 림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방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957	세네갈,중국	7
안혜	김 형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6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델라비도르	7
철재	최성식 안수집사	914-29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5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921E8T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바주가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섬터	토 6:30am

캠프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주일에 배운서

사하: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 151 장
대표기도	말은이

김종영 장로(권1)/고용민 집사(권1)/이희호 장로(권2)

찬양	성기대
----	-----

【권1】말씀주어 우리 예수 (시온성가대)

【권2】살이게신 주 (예루살렘성가대)

설교	설교자
----	-----

【권1】(인 무덤) "눅 24:1-12" 김남수 목사

【권1】(인정된 자) "딤후 2:15" 임용수 목사

【권2】(부활신앙) "고전 15:20, 33-34, 51-58" 김희성 목사

헌금	다같이
----	-----

회사의 감사(권1)/고령에 감사(권2)

세례식	김남수 목사
-----	--------

공고	사회자
----	-----

찬송	찬 385 장
----	---------

축도	설교자
----	-----

다음주일 예배위원

	맨 하 탄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조3부(젊은)		
04/15	장상수 집사	곽윤태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04/22	강현순 집사	권영철 집사	김갑수 장로	사회자		
04/29	김종재 집사	권영환 집사	백문성 장로	사회자		
05/06	김철후 장로	권태수 집사	유재규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말	화	수	목	금	토
성경	허연형	임용수	Emickel	임용수	Richardson	김남수
사회	허연형	임용수	김남수	임용수	허연형	김성용
기도	석영철	성환승	송상규	김종재	유일용	이기석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복원을 환영

2) 위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일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경배(Worship)

1) 찬양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도(찬344) "제삼 본질리교"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함.

III. 말씀(Word): Sincere Faith (딤후 1:3-5) Rev. Randy Hurst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무척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더 소중합니다. 물질이나 돈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적인 유산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자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필요를 채워신다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분이었고, 믿음은 반드시 길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거기에 돈이 없다면 이 지갑이 빈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늘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단순하면서도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같이 믿음을 표현하면서 사신 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자니아의 첫번째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1953년도에 신학교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키워내었습니다. 아울러 동네마다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얼마 전 그 신학교의 50주년의 졸업식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2,282명의 목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단자니아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그가 50년 전에 시골에 세운 바로 그 초등학교를 출신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믿음의 분량은 서로 달랐지만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22-23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잃지

마지 말고 굳게 잡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시고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기록 말씀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저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십년 전 사모와 선교사로 있을 때에 현재의 직책(AG 본부 해외선교부)을 부딪혔었습니다. 그 때 저는 권두를 한 달에 한두 번씩 읽고 있었습니다. 이 증서는 우리 가족에 흐르는 유전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권두를 볼 때는 이것이 생깁니다. 그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직책을 수락할 때에 이 두통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그런 큰 믿음은 없지만, 저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난 그 때부터 삼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번도 권두통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게는 큰 믿음은 없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이 없을지라도 디모데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만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그 아버지가 몰랐으므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을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은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믿음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적용과 나눔)

1) 이 믿음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어떤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 3) 애전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정병훈 -방문: 김영남, 정현주

* 오순절 새벽기도회 -04.09(월)-05.20(토)

* 세례자 명단

김진현, 최규택, 정현욱, 김진태, 이세은, 육순자, Joshua Choe, Peter Yoon, Chris Song, Ronald Kang, Abraham Lee, Myung Ki Chon, Myung Gun Chon, Andy Park, Eddie Lee, Likoo Hwang, Diego David Acosta, David Lee, Chong Jo, Sorasak Phongsrikin, Angelica Gossin, Sarah Gossin, Grace Lee, Christine Song, Patty Kaewasongkoi Acosta

* 헌아식/헌아교육

-일시: 05.13(주) 2부예배시 교육: 05.08(주) 오후 1시 2층 강의실

* 목장지도자/심방위원 세미나 -04.15(주) 맨하탄, 퀸즈2부예배 후

* Youth 에클레시아 Reunion

-04.15(주) 3:30pm, 6층 오른쪽 예배실

* 새봄맞이 Spring Concert

-04.15(주) 4:00pm, 예배실형상전 -주관: 신앙위원회

* 글로빌비전여행(고등부)/혼두라스, 일레스카여행(중등부) 신청

-수업 12:30pm-1:30pm, 아래층 식당 입구

-주중 9:00am-5:00pm, 김성웅 전도사, 안정성 전도사(4층 사무실, 718.321.7800)

* Honduras Medical Fair 봉사자 모집

-기간: 04.23(월)-28(토) -분야: 오용환 장도(718.961.0786)

* 제6기 뉴욕/뉴저지 어머니학교

-일시: 05.10(목)-11(금), 05.17(목)-18(금) 6:00-10:30pm

-장소: 뉴저지교대교회 -문의: 박명숙 집사(201.337.0822)

* 국악찬양운동 기초반 모집 -수업: 매주일 1:30pm, 8층 연습실

* 중국어 초급반 모집 -수업: 매주일 1:30pm, 602호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3공사회: 1:00pm, 8층 이삭선교회실 -제4공사회: 1:00pm, 7층 권사회의와실

-모세선교회: 1:00pm, 5층 제2강의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4.15(주)	04.22(주)	04.29(주)
고용현,곽유기,곽윤태 권영환,김관우,김기성	김남규,김대열,김성태 김정훈,김재현,김정열	김종철,나경식,문준이 민중기,박계근,박민수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6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0)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6층 중등부 예배실(오른쪽 끝 방)

-상담: 박경원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지지)

-상담하실 분은 주일 아침 6층에 오셔서 예약자에 이름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 식당봉사교구 04.15(주)-자비교구/04.22(주)-양성교구/04.29(주)-소망교구

* 알립니다

-인내교구 김은영, 김수화 집사님의 모친 김필순 권사님께서 04.08(주)

소천하셨습니다.

-사망교구 최 중 안수집사님께서 04.13(금) 소천하셨습니다.

-희락교구 주성욱 권사님의 팔순축하예배가 04.14(토) 대광에서 있었습니다.

-유지철 "Life Life" 공연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Fine Lawn 묘지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지를 구입하신 분들은 Payment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Family Today의 취재기자 및 원고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유양을 집사(917.595.2079)

-서랍안내: 내려놓음(이용규),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준 형아디(정효승),

하나님과 은혜(최효실)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식 헌 금	주 정 헌 금
\$215,751.81	\$1,388,000(누계-110,480.56 개 분)	\$16,708.10(누계-\$207,226.08)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경	퀸 즈 성 경
주일 예배	1부 8:30am	1 부(영성) 장년성경공부 2 부 9:30am 3 부(젊은 예배) 영아예배 1:30pm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한국어학교 8:30am 8:30am 10:30am	유아,유치,유초등부부 (Promiseland) 2부 중,고등부(영,영) 장애 아동 한국어학교 스페인어부 10:30am 1:30pm 10:30am 1:20pm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젊년)
새벽 기도		월-토
금요 예배		청교년 중,고등부(FNA) 어린이(QJN)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관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파라과과	16
희락	김용재 안수집사	917-533-9342	멕시코	8
희원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6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성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종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몰리비아	16
충성	최 용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관감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057	베네수엘라,중국	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7
광재	최화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9151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가톨릭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신앙교육과
선교사양성

당첨번호: 201308

주 일 예 배 순 서

시화: 허연형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133 장 다같이

대표기도 함은이

장성수 집사(행1/곽동태 집사(권1)/최성호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영배 주님 다시 오실는지 (사온성가대)

【권2】 위대하신 여호와 (예루살렘성가대)

선 교 설교자

【권1, 권2】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 “눅24:48”

김남수 목사

【권1】 빈 무덤 | “눅 24:11-12” 김남수 목사

【권2】 어떤 제자입니까? | “막 10:40-52”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여름울동장(행1/최수경, 안진라 자매 (권2)

관 고 사회자

찬 송 찬 385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봉은)
04/22	장찬순 집사	권광열 집사	김갑수 장로	사회자
04/29	김홍재 집사	권영환 집사	박준성 장로	사회자
05/06	김복후 장로	권태수 집사	유재규 장로	사회자
05/13	노승범 집사	김경웅 집사	하재원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원 화	수	복	금
설교	임용수	허연형	김남수	Earlel Richardson 김남수
사회	임용수	허연형	임용수	이영서 허연형 김성운
기도	이기형	이갑부	여상주	이성봉 이정진 이창연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을 환영

2) 일주일 간에 삶과 신앙(가뉘던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경배(Worship)

1) 찬양곡: “무덤에 머물러” (찬150) “위한 나로 감히”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빈 무덤 (눅 24:11-12) 김 남수 목사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사순절을 지나면 부활절, 부활절이 지나면 오순절, 오순절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 몇 달이 지나면 감사할, 감사할이 지나면 성탄절, 성탄절이 지나면 또 사순절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라게도 이 두 사이클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거룩한 사이클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온 몸 바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죄를 짓고 못된 짓하고, 싸우고, 병들고, 난리를 치다가 자력으로 가고 이런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도는 것은 아무리 빨리 돌아도 나중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돌면, 주님이 이 땅에서 축복하실 뿐 아니라 천국에 가면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중요하며 그 사이클의 핵심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신앙이 중요하냐? 사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명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그냥 죽음인 것입니다. 다시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끝없는 호수에 완전히 빠져서 침몰하고 다시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독교는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이러한 동안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종무덤에 영원히 갇혀 있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지도자들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무덤에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무덤은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라 다니면서 삼 년반 동안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시험에 불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해본적도 없고, 경험해 본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고 하니, 죽으면 관안이 난다고 말하기만 했지 삼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안 믿었습니다. “사도들이라도 제의 말이 허탄한 것이 되어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저들에게는 난센스 같이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러면서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가서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 새마로만 보이

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갇혀있을 수 없고, 이 종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와 피 아래 손을 들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마귀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마귀는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 앞에 손들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와 이름, 피와 함께 우리의 강력한 무기요 능력인 줄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탄절, 감사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주창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완성이 가능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자갈자갈이신 분이신데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사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걱정할 일이 없으시고, 울었다니 나도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맑게 사시고, 울었다니 할머니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니 죽음 이후에 삼일만 기다리면 부활이 오는 것 같이 무슨 일이든지 삼일만 기다리면 승리와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며 사신 모든 일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감격과 기쁨과 승리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서로 대부분 비슷합니다. 죽을, 죄 문제, 영, 육, 도덕, 속죄론 등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반한 것은 다 키리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 복음 불교가 기독교를 많이 따라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빈 무덤이 우리의 복안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선포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안입니다.

(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관고, 주기도문
- 3) 여전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남수연, 정지연
 * 오순절 새벽기도회 -04.09(월)-05.26(토)

* 헌악식/헌악교육

-일사: 05.13(주) 콘서트예배 시 -교육: 05.06(주) 1:00pm 2층 강의실

* 제37기 에글레시아

-05.27(주)-30(수) -대행사: 김수진 집사(917.957.3901)

-등록: 새벽기도/주일예배/금요일예배 후 안내소에서

* 2007 Summer School(순복음사립학교 주관)

-기간: 07.06(목)-08.17(금) -대상: Pre K(6/31/04 이전 출생) 6학년(9월 기준)

-등록: 주일-2부예배 후 사설 앞/주 중-순복음사립학교(Sarah Choi 718.461.4429)

05.07(월)까지 등록하시는 분께 할인혜택 있음

* 제6기 뉴욕/뉴저지 어머니학교

-일사: 05.10(목)-11(금), 05.17(목)-18(금) 6:00pm-10:30pm

-장소: 뉴저지초대교회 -문의: 박명숙 집사(201.337.8822)

* "우리 서로 잡은 손" 장애인인의 날 행사(국제장애인선교회 주관)

-04.22(주) 5:00pm-9:00pm, 예루살렘성전

* 글로벌비전여행(고등부)/혼두라스, 알래스카여행(중등부) 신청

-주일 12:30pm-1:30pm, 아래층 식당 입구

-주중 9:00am-5:00pm, 김성웅 전도사, 안진성 전도사(4층 사무실, 718.321.7800)

* 국악찬양운동 기초반 모집

-수업: 매주일 1:30pm, 8층 연습실

* 중국어 초급반 모집

-수업: 매주일 1:30pm, 602호

* 제3안수집사선교회

-04.29(주) 5:00pm, 서영주 집사 맥 -문의: 송상규 집사(516.800.8249)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1권사회: 7층 권사회실 -제1안수집사선교회: 8층 이사선교회실

-제2안수집사선교회: 5층 1강의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4.22(주)	04.29(주)	05.06(주)
김남균,김대현,김성태 김정훈,김재용,김정일	김중철,나경식,문준이 민용기,박재근,박병욱	박중현,박희도,박희식 홍용기,서 필,서방정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6층 중등부 예배실(오른쪽 끝 방)

-상담: 박중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상담하실 분은 주일 아침 6시에 오셔서 예약자에 이름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 성경완독자 구원자(화평) 2독, 주별근(양선), 심종순(사망)

* 식당봉사교구 04.22(주)-양선교구/04.29(주)-소망교구/05.06(주)-홍성교구

* 알립니다

-평강교구 오석문 장로께서 04.13(금) 소천하셨습니다.

-양선교구 이예자 집사 가정의 자연실 양과 정재호 형제의 결혼식이 04.21(토)

예루살렘성전에서 있었습니다.

-평강교구 고영림 집사와 Mr. George Argento의 결혼식이 04.14(토)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사망교구 김원규, 장아 집사 가정에 04.17(화) 민지 양이 태어났습니다.

-민용교구 최철환, 최주 집사 가정에서 "Plantree Bakery"를 오픈하셨습니다.

209-01 Northern Blvd, Bayville, NY 11360 718.224.6506

-Fine Lawn 묘지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지를 구입하신 분들은 Payment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Family Today의 취재기자 및 원고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유인용 집사(917.575.2079)

-사랑안내: 내려놓음(이유관),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준 헌미대(정호성),

결혼과 가정(최효섭)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이 통 급 식 헌 금	주 정 헌 금
\$133,717.18	\$929.50(누계-114,199 개 분)	\$13,593.00(누계-\$220,447.08)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원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현,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태반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창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람	주 언 중 장로	201-494-1153	파네달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이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내내	김 총 복 장로	718-746-7406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총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정연 안수집사	718-961-5480	북볼리비아	15
충성	최 용 선 장로	631-277-5682	페루	19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9
말씀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1
온혜	김 정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문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7
절제	최상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91.9FM
Ch.57 TV	Promise Ministry	토/일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자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원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대학
 신학대학원

영양학과
 상담학과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장들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일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또 찬양과 경배(Worship)

1. 곡: "어제나 오늘이나" (찬 133장) "약한 나로 강하게" (복)

2) 인도지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종이라 (눅 24:48) 김남수 목사

종언이 되려한 몇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보았는지 아니면 만져보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종언으로 자락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생각이나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종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는 가서 내 종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종언으로 살아가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많고 행동이 바뀌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체험을 거친 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체험이라는 것은 확신을 줍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말로만 듣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험도 중요하고, 체험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것 보다는 경험, 체험을 통해서 확신의 단계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잘 있었냐고 말씀하시고 이런 저런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갈릴라에서 만나자 하시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날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기도 나누고 만났다고 하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지성주의는 남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봐도 못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봤다고 하는데도 본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가서 만져 봐야 된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서 못 자국, 열구리의 참 자국 다 직접 1차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지능, 즉 머릿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봐도 못 믿습니다. 하도 많이 봐서, 속아 봐서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하여 가까이 오라 하시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못 자국 난 손을 만졌는데 그 고문을 도마가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도마의 손을 잡으시며 열구리에 난 참 자국도 만지게 하시면서 이제 만졌느냐 물으십니다. 도마가 두통을 긁고 "당신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네가 보아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되니 나중에 제일 멀리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도마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 자체가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만 자주 찾아보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체험이라는 것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은 안 믿고 체험만 강조하면 경험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체험주의로 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만 계속해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이야기나 성경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만 믿고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경험한 것이 다 다른데

꼭 자기가 경험한 것대로만 와야 믿는 위험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의지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서 눈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해를 받아야 합니다. 새해는 꼭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결단과 감정적인 고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선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미국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확신한다, 믿는다"라는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해를 경험하고 사순절 교인에서 오순절 교인으로, 사순절 신앙에서 오순절 신앙으로 발전하고 변화해야 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경험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오순절적인 신앙 경험, 체험, 새해 받고 기도하고 말씀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새해를 받고 온사도 받고 교회에서 말씀보며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믿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 사람마다 신앙의 경험 방식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과 내가 죄인임과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경험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며, 진정한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뒤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순절에서 오순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알미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 의미없는 상실한 채 고향으로 내려가던 이들은 같이 가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서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가 기도 해주실 때 눈이 열려서서 이들은 곧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산 종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셨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같이 다니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말씀과 기도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동행하시는 경험과 체험을 작은 것이라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산악자 본 체험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상에 계셨던 이 세상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만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주 경험을 쌓으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시는 생활의 경험, 이 경험이 확실해 질수록 우리는 종언으로서의 삶이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작품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시약(Work)

1) 통성 기도

2) 찬양과 광고, 주기도문

3) 애간

주 일 예 배 순 서

시화: 임용수 목사(편)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64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강찬순 집사(편)/권광열 집사(편1)/김갑수 장로(편2)

찬 양 성가대

【편1】 십자가를 짊 수 있나 (사순성가대)

【편2】 기쁘게 할렐루야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편.권2】 이 땅을 고치소서 | "대하 7:14" 김남수 목사

【편1】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종이라 | "눅24:48" 김남수 목사

【편은】 "마침" 을 이기심 예수 | "요 4:46-54"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국문선 자매(편1)/이흥주 집사(편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85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편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6
04/29	김동재 집사	권영환 집사	백준성 장로	사회자		
05/06	김철주 장로	권대수 집사	유재규 장로	사회자		
05/13	노승범 집사	김경용 집사	김재민 장로	사회자		
05/20	박민수 집사	김관우 집사	김종복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일	화	수	목	금	토
설교	임용수	허연형	임용수	Backel	Richardson	김남수
시화	임용수	허연형	임용수	이영서	허연형	김성웅
기도	이하용	장재원	김일환	장연택	장민주	조상원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허연행 목사(권1)

점례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17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김홍배 집사(권1)/권영환 집사(권1)/백준성 장로(권2)

찬 양 신가대

[권1] 주님의 얼굴 보라 (시온성가대)

[권2] 주 하나님 자으신 모든 세계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빛을 아는 신앙] "시 34:8" 김남수 목사

[권1] [이 땅을 고치소서] "대하 7:14" 김남수 목사

[권2] [서로 사랑합시다] "요일 4:7-12"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조희진 집사(권1)/안수경 자매(권2)

관 고 사회자

찬 송 찬 385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권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조3부(공은)		
05/06	노승환 집사	권태수 집사	유재규 장로	사회자		
05/13	김철후 장로	김경운 집사	허재민 장로	사회자		
05/20	박민수 집사	김관유 집사	김종복 장로	사회자		
05/27	이강길 집사	김기성 집사	이용찬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말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임용수	임용수	Eankiel	Richardson	김상래
사회	안진성	임용수	임용수	이영서	이영서	김상래
기도	조소현	최성식	최우준	한승만	홍승찬	김성순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복원을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일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곡: "곤함 내 영혼(찬46) "악한 나로 강하게" (복)

2) 1사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이 땅을 고치소서 (역대하 7:14) 김 남수 목사님

지난 주간의 바지나아 공대의 참사사고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큰 충격 속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고, 또 분석과 대답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후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 해답을 통해서 신앙적 자세를 새롭게 하고,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잃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오늘과 같은 혼란과 절망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성경적으로는 이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 역대하 7:14절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곧 회개인데, 진정한 회개란 가만 앉아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 교만함에서 낮아지는 것, 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앞길을 한하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는 그 자세가 회개입니다. "소는 암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과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재물이 부패한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야! 허물진 백성들이요, 영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류히 여겨 멀리하고 물라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탄식하시면서 이렇듯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1-5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고로 땅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죽은 이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과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같이 망하리라"고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고 그 사탄(악인)이 미쳐서 죽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지 않고, 오히려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죄와, 교회의 죄와, 교계의 죄와, 나라의 죄와, 모든 세상의 죄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율법에 빙방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회개를 외치는 것이 이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있을 수 없고, 용법이 없는 것에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 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교계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과 전 세계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 군사의 모든 분야에 지금 우리는 중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abortion): 교회 안에서 낙태 수치가 교회 밖에서의 수치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1973년 로우 연 웨이트 공판 이후에 미국에서만도 4천만 명의 영아들이 낙태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몇백의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시몬 106편 38절은 "무죄한 피 곧 자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 만 무상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adultery): 슬픈 일이지만 사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혼, 심령, 자존심, 인간 관계의 모든 분야에 손상을 입게 되므로 교회가 세상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 꺼진 등대는 또 다른 알초리는 말이 있듯이,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여금 못 밟도록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물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전 6:18).

손 뿌리(interness): 서로 증오하고 마음에 독소가 있어서 결국 분열이 생기고 이혼하고 미움을 하는 등 사람들은 정신없이 이 세대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음행(homosexuality): 오늘날 청소년 성행, 불임, 죽음, 자살 등 여러가지 일들로 밀려앉아 사회는 온통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온난화와 같은 파도를 거스려서 성령의 새 바람, 성령의 새 역사, 성령의 새 바람이 교회 안에서부터 불어, 자신에게서부터 불어, 새 생이 감당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파도가 생겨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대한 불결을 교회가 일으키고, 제4의 물결을 만들어서 큰 파도가 이 시대를 뒤덮을 수 있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욕심(greed):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이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탐욕 때문에 신앙도 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연애(homosexuality): 미국에 와 있는 아시아 인구가 큰 이백만인데, 미국 내 동성연애자들의 숫자는 한 오백만입니다. 아시아인이 다 합쳐도 동성연애자의 목소리나 투표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수치스러운 정욕이요, 부자연스럽고 추잡한 행위라고 로마서 1:26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바지나아 공대 총가난사 사건에서 미국인들은 손을 쓴 범인까지도 회생자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같은데 어떤데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는 두 여중생이 잠간차에 치었다고 부끄럽게도 몇 날 밤을 못보시위를 하여 전 국민이 함께 미국사람 물라가라고 외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의롭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를 돌보지 않은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원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후모에게 참석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 역시 사랑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 모금이라도 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을 회복시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통해서 거대한 새 역사와 회개의 새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명이 소중하다면 300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30만 명이 죽었는데도 쳐다도 안보고, 3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래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눈물과 기도를 흘리고, 저들의 삶에 축복을 나누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과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 3) 애환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발문: 김승준, 김지혜, Geremias/Ibáñez/Rebecca Fuentes, 스텔라/루디아 리

*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입 성경공부: 9:30am-10:15am(15분 단축) -원즈2주예배: 10:30am(커피 알럼)
-주입학교/중고등부 예배: 10:30am -원즈3주(젊은)예배: 1:30pm

* 오순절 새벽기도회

* 제37기 에클레시아

-05.27(주)-30(수)
도원: 05.27(주) 05.30(수)

* HPI, HPA, 서기이한고, 안북

(5.20(주)-(6.10(주) 매주일 13

·세 가족 정착을 위해 섬겨주실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2007 Summer School(순복음사립학교 주관)

-기간: 07.05(목)-08.17(금) -대상: Pre K16/3L/04 이전 출생(6학년(9월 기준)
-등록: 종이 2장(예배 후 서점 앞) 중, 손님을 위한 한국(Sarah Choi 718.463.4409)

* (하)종교등보 '브로닉과 한제'

(5.13주) 권즈2부예배 직후, 6층 종교동부 라운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짐

· **중정부 글로벌 비전여행(혼두라스, 알래스카) 신청**
 접수: 10.20 ~ 10.22 (단, 10.21 마감) | 참가: 10.23 ~ 10.24 | 장소: 서울 | 문의: 02-260-0000

·구분별: 12:30pm-1:30pm, 식량 입구 안에서
·구분별: 미검정임수나다.

* 제6기 뉴욕/뉴저지 어머니학교

·일시: 05.10(목)-11(금).

장소: 뉴저지초대교회 문의: 박병숙 집사(201.337.6888)
* 양념구구, 양한애배 02-2012-20-20 2012년 1월 20일

* 이번 표이 713만

바리새교회는 110cm, 5층, 가와상
예수교회는 110cm, 8층, 아사시교회는

제5권시회 일례회 1500px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5.13(주))	(05.20(주))	(05.27(주))
문규동, 유일용, 이천우 이기에 이기에 이사에	이재명, 이하용, 장일필 최아재, 최이중, 조신영	조소현, 허무준, 홍승환 김서준, 김광희, 김윤재

* 예금의외에 다른 재산이다. 매월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해 주일 100-300km 상당 박충현 집사(대학 학자님 가이드 제차 20,30,600)
33다하시 봄은 자청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탄봉사교구 (6)

• 알립니다

인내교구

대동연회장에서 있었습니다.

- 교의 주차공간이 50대 분 정도가 부족합니다. 교직원들은 Street에, 장로, 안수집사 Grace Church, Spanish Church 성도들은 Fence 너머 주차장에, 3시 이후에 죽가 하시는 분과 성가대, 찬양팀, 예배위원은 DMV 주차장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 Pine Lawn 묘지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지를 구입하신 분들은 Payment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서강좌: 신간·평생강좌(전공), 예프리 캠프(약호군), 마른 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공준연), 자심강(정병욱)
- 후원도사: 이동원 목사 저서 및 설교대안, 왜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가(이예실)

이제부터는 10월 10일(토)부터 시작합니다.

* 지난 주의 현금 통계

Total	아동급식현금	주정 현금
\$140,106.50	\$200.00(누계-125,757.56 제 분)	\$13,685.00(누계-\$263,189.58)

어 배 안 내

	한 하 단 성 전		켄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1부(영성) 장년심경공부 2부 3부(젊은 예배) 영어예배	8:30am 9:30am 10:30am 1:30pm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8:30am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Promineland) 2부	10:30am 1:30pm
		8:30am 10:20am	중,고등부(한,영) 장애 아동 한국어학교 스페인장년부	10:30am 10:30am 1:20pm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간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복종
사람	주인종장로	201-490-1153	과테말라	16
회락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지배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8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00	북볼리비아	16
충성	최 훈 선 장로	631-277-5652	페루	10
경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3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우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동 성 장로	718-743-2874	알바니아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CBS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테넷
CBS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퀵스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 321-7800, Fax: (718) 321-9394
팬하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Breinin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신복음누락교회
9884 김남수

주 일 에 배 순 서

사회: 허연형 목사(원1)

경배의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304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감동후 기도(원1)/감동후 집사(원1)/하계전 장로(원2)

찬 양	성가대
-----------	-----

【원1】영광스럽도다 찬양 경화는 (사온성가대)

【원2】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세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	-----

【원1】악속 있는 것 계명 | “엡 6:1-4” 김남수 목사

【원2】아내의 사랑 | “엡 6:1-4” 허연형 목사

【원3】그리스도인과 가정 | “요 19:25-27, 엡 6:1-4”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	-----

최숙희 집사(원1)/홍고동복(원2)

판 고	사회자
-----------	-----

헌 아 식	김남수 목사
-------------	--------

찬 송	찬 385 장	다같이
-----------	---------------	-----

축 도	설교자
-----------	-----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탄	원 조 1 부	원 조 2 부	원조3부(젊은)		
05/20	박민수 집사	김관유 집사	김종복 장로	사회자		
05/27	이강길 집사	김기성 집사	이윤찬 장로	사회자		
06/03	임일진 집사	김남규 집사	최홍선 장로	사회자		
06/10	장정수 집사	김대열 집사	홍병희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성도	임용수	허연형	임용수	허연형	Richardson	김남수
사회	임용수	허연형	임용수	허연형	허연형	김성용
기도	김성태	김영호	김영환	김원석	김장문	김재룡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2) 일주일 간에 삶과 신앙(기뻐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예배(Worship)

1) 찬양곡: “예수 사랑하심은(찬41)”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200)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선포는 교회의 사명입니다(엡13:1-2) Rev. Joao Nunes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에 저희들 속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과 브라질 사이에 아주 엄청난 일을 행하시려는 것을 느끼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김 남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브라질에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브라질에서 큰 교회 중에서 하나이지만 저는 저 자신이 보잘 것이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국 민족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크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김 목사님과 제가 브라질의 어린이 사역과 전 세계의 양육을 향한 같은 전력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앞으로 확신하기는 브라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께서는 브라질과 피트니스를 맺어서 브라질의 교회들 여러분의 교회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같이 사역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은 이 브라질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브라질이 카톨릭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가 카톨릭을 능가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카톨릭교회는 개신교의 확장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교회가 저지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개신교가 성장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있는 노가 이가수라는 곳² 리오데자네이론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워싱턴시입니다. 인구가 백만 명 금 남습니다. 이 안에 100개의 성당이 있는데 비해 개신교 교회는 50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립시다.

제가 이곳에 오기 바로 직전에 브라질 하나님의 성회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인 많은 교역자들이 김 남수 목사님의 어린이 교육선교에 대한 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총회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일들(어린이 선교)이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자에게 말을 했지만, 제가 그 분들에게 거북이가 바다에서 입을 넣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조그마한 거북이 새끼 한 마리를 바닷가에 놓아 준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어린이를 살리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돈 보더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우는 학교는 인근 지역의 모든 정부기관에까지 모범이 되는 사역을 확신합니다. 비록 첫 번째 학교가 세워지지만 모든 지교회와 다른 목사님들이 동일한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계속해서 학교들이 세워짐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들이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구하는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 중에 목자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어떤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우리의 손길이 미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지고, 가슴이 없어진 자 같은 영적인 지경이었는데 여기에 와서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고 활활 타오르는 심장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브라질나라를 축복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도 주셨습니다. (방종국을 개국하게 된 간종 생략)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도 들어주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 메시지 (김 남수 목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천장은 일찍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헌장인데, 11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이는 교문 영향을 취하고, 치료를 받으며,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사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의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엔과 각 나라는 비슷한 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들에 건강과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버려져 있습니다.

1900년 초에 독일 동지에서 6백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은 훗날 사과를 하고, 그 당시 수수령관였던 이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초에 나온 통계본 보니 일 년에 6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가이(飢饉)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가진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브라질에 2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15세 미만이 28% 라고 하면 5천 6백만입니다. 1800백만의 브라질 하나님의 성회 교인들이 아이들을 3명씩만 전도한다면 5만6천6백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세 사람 데리고 오려하면 어려우나, 어린이를 세 명 데리고와 하면 쉽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습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고, 비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문제이고, 관습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Nunes목사님이 브라질에 가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합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파울로에서 리오데 제네이론까지, 아이존강에서 저 섬까지 합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다?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한글과 광고, 주기도문
-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박준기, 명지은, 박종하 -방문: 김선희, 김연숙, 김덕분, 문희준

• 오순절 새벽기도회

-04.09(월)-05.28(토)

• 제37기 예클레시아

-05.27(주)-30(수) -다락터: 김수진 집사(917.357.3901)

-동쪽: 새벽기도/주일예배/금요일예배 후 안내소에서

• 바나바 섬김이학교 안내

-05.20(주)-06.10(주) 매주월 1:30-2:30pm(4주간), 5층 강의실

• 2007 Summer School(순복음사립학교 주관)

-기간: 07.06(목)-08.17(금) -대상: Pre K16/31/04 이전 출생-6학년(9월 기준)

-동쪽: 주일-2부예배 후 사립 앞/주 중-순복음사립학교(Sarah Choi 718.461.4409)

• 2007 고등부 여름 프로그램

-07.09(월)부터 약 6주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 주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문의: 김성용 전도사/인원성 전도사(718.321.7800)

• 중등부 글로벌 비전여행(온두라스, 알렉스카) 신청

-주일 12:30pm-1:30pm, 식당 입구 양진성 전도사(646.775.1776), 김성용 전도사

• Back to Jerusalem 예수대장정 성지순례단 모집

-순례기간: 07.29(주) 저녁-08.02(목) 4925일

-내용: 성지순례, 황금문 평화전서트(메시아 안주), 예루살렘 대영국

가이시라 원형극장 생형집회(장사: 김남수 목사, 한기훈 목사)

-대상: 대학생, 청년, 장년(성가대 봉사 가능자 환영) -문의: 허영형 목사

• 제2안수집사선교회 세미나

-05.27(주) 1:30pm, 8층 이삭선교회실, 부부동반

-주제: 홀로서기,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강사: 박경애 집사(Social Worker)

• 양선교구 연합예배

-05.20(주) 5:00pm, 갯새미내성전

• 화평교구 연합예배

-05.27(주) 4:00pm, 허의호 장로 때 -말씀: 김남수 목사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재3관사회: 1:00pm, 이삭선교회실 -모세선교회: 켄즈2부예배 후 5층 2강의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5.20(주) 05.27(주) 06.03(주)

이재현,이학용,장일필 조소현,최우준,홍승창 권영하,김과유,김기성

장연애,장민주,조상열 장성순,고용민,최준태 김남수,김대원,김성태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애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201.491.6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봉사교구

-05.20(주)-원음교구/05.27(주)-은혜교구/06.03(주)-은유교구

• 알립니다

-김남수 목사, 화평교구 허의호 장로 외 7명이 05.14(월)-05.17(목) 코스타리카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원음교구 유현석 집사의 부친 유영근 성도께서 05.14(월) 한국에서 소천

하셨습니다.

-소망교구 한대순, 명희 성도 가정에 05.12(토) 민준(David) 군이 태어났습니다.

-교회 주차공간이 50대 분 정도가 부족합니다. 교차로인 Street에, 장로, 안수집사

는 현관 앞 Fence 너머 주차장에, 3시 이후에 귀가하시는 분과 성가대, 찬양팀,

예배위원은 DMV 주차장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Family Today 5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Fine Lawn 묘지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지를 구입하신 분들은 Payment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안내: 미래를 여는 힘(한/영, 모바트 슬러), 평생강사(전관),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 추천도서-조선희상(서무드 홀), 5만 번 응답 받은 물려의 기도

비밀(조지 클러), 예수님의 이름으로(헨리 나우엔) 설교/장년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식 헌 금	주 청 헌 금
\$149,470.04	\$964.00(누계-129,613.56 까지)	\$13,153.00(누계-\$276,342.58)

예 배 안 내

	맨 하 탐 성 전	켄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페인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a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형,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람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파라과과	16
화락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90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5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6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윤 권 장로	718-896-7003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현 안수집사	718-961-5490	북몰리비아	16
홍성	최 흥 신 장로	631-277-5662	세루	10
광강	최 재 권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박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비도르	7
팔레	최상식 안수집사	914-20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타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토/일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켄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대학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주 일 예배 순서

시화: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249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백만수 집사(권1)/김관유 집사(권11/김종복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편1】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온성가대)

【편2】Total Praise (예루살렘성가대)

삼감의서약 다같이

Mr. Dan N. Dang(메트론 Boever Evangelistic Assoc.)

설 교 설교자

【편.권2】그리스도의 승천! "행 11:1-15" 김남수 목사

【편1】약속 있는 첫 계명! "엡 6:1-4" 김남수 목사

【말은】서로 사랑함사! "요일 4:7-12"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Juliana Kim & John Suh(권1)/최난수 집사(권2)

관 고 사회자

찬 송 찬 385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말은)		
05/27	이강길 집사	김기성 집사	이용찬 장로	사회자		
06/03	양일진 집사	김남근 집사	최홍선 장로	사회자		
06/10	장성수 집사	김대원 집사	공병희 장로	사회자		
06/17	장찬순 집사	김성태 집사	김종영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단 단	김남수	임용수	임용수	Richardson	김남수
사회	하연형	안진성	임용수	임용수	하연형	김성용
기도	김원석	김정훈	김정열	김종철	김홍재	나경식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장들 환영

2) 6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뻐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예수 사랑하심은(찬 411) "사랑에 불바람 불어 있고"(찬305)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 (Word): 약속 있는 첫 계명(엡6:1-4) 김 남수 목사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동시에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삼전과 종,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신앙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계명의 내용도 절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에게 관한 것입니다. 제 1 계명부터 제 4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 있고, 제 5 계명부터 제 10 계명까지는 사람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계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5 계명만큼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하면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공경의 기초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부모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관계를 잘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삶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과 그 후손들은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약속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숨겨진 뿌리로부터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뿌리와 근원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여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히 보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집에서 부인을 때리고 욕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항렬부터 하면 안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파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그것을 이해하고 부모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이 관계, 이 감정, 이 사랑, 이 느낌, 이것이 효성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것이 신앙이고 효성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 들면 정신이 가끔씩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 중심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IV. 사역(Work)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V. 기도

1) 통성 기도

2) 찬양과 기도, 주기도문

3) 애환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윤우준, 김진희, 박현서
방문: 손옥순, 정영균, 이영자, 이봉석, 김용요, 노성우

제37기 에클레시아

06.27(주)~30(수) 대략타: 김수진 집사(917.967.3901)

Pray New York

06.17(주) 각 교구 담당 지역을 돌면서 뉴욕을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순복음 가족운동회 06.24(주) 퀸즈27에 후, 카닐렐파크

새가족 만남 07.08(주) 29(주) 매주일 2:30pm, 5층 강의실

안이자 명단

최현우, 정지은, 정지현, 강은하, 김반석, 김정환, 김용주, 이도훈, 이효린
Jaden Acosta, Kayley Davis, Mira Zipporah Feldman

고등부 글로벌비전여행 오리엔테이션

06.09(주) 1:00pm, 6층 중등부 예배실 대상: 여행에 참가할 학생

중등부 글로벌비전여행(온두라스, 알래스카) 신청

주일 12:30pm-1:30pm, 식당 양구 알진성 전도사(846.775.1776), 김성용 전도사

차세대를 준비하는 목회/선교 Conference(뉴욕목사회 주최)

06.14(목) 18(토) 10:00am-5:00pm(세미나), 8:30pm(집회) 순복음뉴욕교회

주강사: 제마나 Dr. Leonard Sweet 외 다수, 집회-소강식 목사(분당 새예당교회)

대상: 평신도 지도자, 교사, 성가대원, 신학생, 목회자 등

세미나 등록비 \$300(저녁집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음) 문의: 임용수 목사

Back to Jerusalem 예수대장정 성지순례단 모집

순례기간: 07.29(주) 저녁-08.02(목) 4박5일

내용: 성지순례, 황금동 평화전서트(베사) 연주, 예루살렘 대영문

가이사라 원형극장 성령집회(강사: 김남수 목사, 한기홍 목사)

대상: 대학생, 청년, 장년(성가대 봉사 가능자 환영) 문의: 허연형 목사

장로성가단 연주회 06.27(주) 7:00pm, 퀸즈한인교회본 교회 정로 5명 출연

제1/2인수집사선교회 세미나 06.27(주) 1:30pm, 이사선교회실, 부부동반

주제: 홀로서기,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강사: 박경애 집사(Social Worker)

화평교구 연합예배 06.27(주) 4:00pm, 하의호 장로 목

말씀: 김남수 목사

집제교구 부흥회 06.30(수) 1:30(목) 8:30pm, 웨베스타운교회

말씀: 김남수 목사 할례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민음교구 연합예배 06.03(주) 4:00pm, 옛세마대성전

말씀: 김남수 목사

제4권사회 월례회 06.03(주) 1:00pm, 7층 권사회실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3인수집사선교회: 1:30pm, 5층 22강의실 제7권사회: 권사회실

파킹장 봉사자 명단

05.27(주) 06.03(주) 06.10(주)

조소현, 최우준, 홍승환 권영철, 김관유, 김가성 김남수,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고원민, 박원태 김남수,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김성순, 김대원, 김성태 김성훈, 김재철, 김장영

예배안내

	만하탄성전	퀸즈성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양아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양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10:30am (Promised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어 아형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대반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아란이(Q&A)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복장
사람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파테말라	16
의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8042	멕시코	8
화평	하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알선	이 용 한 장로	718-89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01-5460	북볼리비아	16
충심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관감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민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574	엘살바도르	7
팔계	최상희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나는 하나님	토 11:30pm @21대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목 10:00am/8:30pm
마주가족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대학
성경대학



주 일 예 배 순 서

사도: 하연형 목사(권)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27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맡은이

이강길 집사(현)/김기성 집사(권)/이용환 장로(권)

찬 양 성가대

【번】 찬양의 노래 (시온성가대)

【권】 Sing, My Soul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번, 권】 【성령시대의 개막】 “행 2:1-4” 김남수 목사

【권】 【그리스도의 승천】 “행 1:1-15” 김남수 목사

【말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마 28:40-58” 김호천 목사

헌 금 다같이

홍성진 집사(권)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00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양팀	번조1부	번조2부	번조3부(젊은)		
06/03	임일진 집사	김남근 집사	최홍선 장로	사회자		
06/10	홍성수 집사	김대영 집사	공병희 장로	사회자		
06/17	강천순 집사	김성태 집사	김종영 장로	사회자		
06/24	김홍재 집사	김연호 집사	김철우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Manurek	김남수	임용수	임용수	Richardson	김남수
사회	하연형	손영섭	임용수	임용수	하연형	안진성
기도	박병국	박영희	서성모	서영주	석영집	성환승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예배(Worship)

1) 찬양곡: “주 사랑하는 자” (찬240)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그리스도의 승천(행 1:1-15) 김 남수 목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 등 여러 가지 신학적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론 즉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섯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탄생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승천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골조가 됩니다.

탄생 신앙: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것은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출산이고, 인간적 탄생이 아니라 신적인 탄생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신앙: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소멸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함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열쇠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1-15)

예수님 믿어도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바로, 속죄 바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큰 죄도, 작은 죄도 드러난 죄도 안 드러난 죄도, 아는 죄도 모르는 죄도, 생각이 안나는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부활 신앙, 승천 신앙, 재림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시간을 넘어선 다른 세대, 다른 시간의 문제입니다.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신 천군과 함께 하시다가 지리토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그래서 부활신앙과 승천신앙과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세 가지 신앙은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영생과 내세, 천국에 관한 것인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살 동안 현실 신앙, 물질 신앙, 기복 신앙에 다 붙잡혀서 그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을 떠나는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그 후에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 한참 살다가 나중에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는 그 반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시민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비자를 받는데 이 비자는 주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줍니다. 그래서 삼개월 육개월... 이렇게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인들은 비자 연장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거부됩니다. 이 때 어떻게 하든지 비자 연장 신청하는 데만 달려붙어서 뽀빠에다가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시면 만나고 부르시면 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비자 만료 시간이 되면 대부분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그때 비자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권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사함을 통해 사함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가실 때는 사람처럼 가지 않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셨습니다. 김광산에 가면 주님이 승천하신 곳에 기념으로 팔각형 모양을 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보슬비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말을 듣고 지붕을 만들어 덮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리로 못 오시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슬라주고, 고달피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허무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냈으며, 축복 받고 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 했느냐, 내가 본부한 일을 얼마나 다 이루었느냐 하는 것은 꼭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큼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런 면류권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믿음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IV. 사역(Work)

1. 통성 기도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종류: 유물론
-방문: 손태환, 이장영, 손유빈, 손모아, 박혜련, John Jung, Crystal Leigh
-이해림, 권동화, 박경희, 유민종, 김용운, 김성희, 이모경, 김성현

* 순복음 가족운동회 (06.24(주) 퀸즈2부예배 후, 카넬버그)

* 목장지도자/심방위원 세미나 (06.10(주) 맨하탄/퀸즈2부예배 후)

* 바나바 성김이학교 (06.20(주)-06.30(주) 매주일 130pm-230pm, 5층 강의실)

* Pray New York (06.17(주) 각 교구 담당 자매를 물면서 뉴욕을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참가자 중보도일: (06.30(주) 9:40am, 5층 강의실

* 새가족 만남 (07.08(주)-29(주) 매주일 230pm, 5층 강의실)

* Promise Youth Summer Program

<고등부 글로벌비전여행 오리엔테이션>

(06.03(주) 1:00pm, 6층 중등부 예배실) -대상: 여행에 참가할 학생

<고등부(9-12Gr.) Summer Program>

-예배시간 전/후에 안내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주최: 김성웅 전도사, 안진성 전도사(718.321.7800)

<중등부 온드라스 캠프>

-주최: 2부예배 후 시작 -주최: 크리스천시립학교(718.461.4400)

* 차세대를 준비하는 목회/선교 Conference(뉴욕목사의 주최)

(06.14(목)-15(토) 10:00am-5:00pm(세미나), 8:30pm(집회) 순복음뉴욕교회)

-강사: Dr. Leonard Sweet 외 예배/교육/선교/선양 등의 분야의 전문가

-등록: 예배 후 안내실에서

<소감석 목사 초청 오픈부흥성회>

(06.14(목)-17(주) 평일 저녁/주일 2부 예배)

* 온드라스 의료선교 봉사자 모집

-선교기간: (07.23(월)-27(금)) -문의: 최정환 목사(201.400.1196)

* Back to Jerusalem 예수대장정 성지순례단 모집

-선례기간: (07.29(주) 저녁-08.04(주) 새벽 7:00am)

-내용: 성지순례, 황금문 평화헌서(메시아 연구), 예루살렘 대법관

가이시라 원형극장 성령집회(강사: 김남수 목사, 한기종 목사)

-대상: 대학생, 청년, 장년(성가대 봉사 가능자 환영) -신청: 2부예배 후 안내실

* 이삭선교회 주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06.13(수) 8:00am, Greensingers Country Club)

* 믿음교구 연합예배 (06.03(주) 4:00pm, 잭슨마네성전) -말씀: 김남수 목사

* 이번 주일 기념별 모임

-제1권사회: 9층 왼쪽 방 -제2권사회: 9층 오른쪽 방

-제4권사회: 7층 권사회실 -이삭선교회: 이삭선교회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6.03(주) 06.10(주) 06.17(주))

권영환,김관유,김기성 김장훈,김재용,김정열 민중기,박계근,박영국

김남수,김대원,김성태 김용철,나경식,문준이 박종현,박희도,박희식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9)

* 성경원독자 감유자(자비), 김정재(소망)

* 식당봉사교구 (06.03(주)-온유교구/06.10(주)-절제교구/06.17(주)-사랑교구)

* 알립니다

(06.28(일)에 있었던 교향제축대회에서 축구 A팀이 우승, 축구 B팀이 3위에 입상

했습니다.)

-소망교구 전성진, 나영 집사 가정에서 (06.29(화) 유빈 양이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성경대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30주년 기념 찬양 CD "My Lord" 가

나왔습니다. 진도용, 산불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0)

-Family Today 5월호가 나왔습니다. 진도용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꿈을 키워주는 사람(책안 코메이로), 반향적인 화상자 C. S. 루이스

분회매의 십자가 부활의 명상, 예수, 우리의 죽음(헨리 나우먼), 미래를 여는 힘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금식헌금	주정헌금
\$133,514.95	\$900.00(누계-135,721.56 미 분)	\$14,599.00(누계-8305,273.83)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맨 하 탄 성 전		퀸즈 성 전	
	1부	8:30am	1부(영성) 장년성경공부	8:30am 9:30am 10:30am 1:30pm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8:30am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Promiseland) 2부	10:30am 1:30pm
	중,고등부	8:30am	중,고등부(한,영)	10:30am
	한국어학교	10:20am	장애 아동 한국어학교 스페인화년부	1:30pm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장년	8:00pm
			중,고등부(FNA) 어린이(Q2N)	8:00pm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목장
사랑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파테말라	16
희락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0242	멕시코	8
희원	최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네	김 종 복 장로	718-745-743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창 장로	718-886-7003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원 안수집사	718-961-5480	북몰리비아	16
충성	최 용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경강	최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7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 1
은혜	김 월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	7
절제	최상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타페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마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신 복 음 뉴 욕 교 회

만해사 김남수

주 일 예배 순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 찬양 다같이

가 일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64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맡은이

임용진 집사(권1)/김남균 집사(권1)/최홍선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사온성가대)

【권2】 산으로 올라가네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권2】 【성령사대】 “창 2:16-18” 김남수 목사

【권1】 【성령사대의 개마】 “창 2:1-4” 김남수 목사

성 찬 식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김여경 자매(권2)

관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권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젊은)		
06/10	장상수 집사	김대원 집사	공병희 장로	사회자		
06/17	장찬순 집사	김상태 집사	김종영 장로	사회자		
06/24	김홍재 집사	김영호 집사	김철후 장로	사회자		
07/01	최원호 장로	김영환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말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허연행	임용수	손영섭	Richardson	김영찬
사회	손영섭	허연행	김성용	안진성	허연행	임용수
기도	홍상규	유일용	이기석	이기영	이길부	이상우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 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뻐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 “예수 사랑하심은” (찬 411)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 188)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 성령사대의 개마(창2:1-4) 김 남수 목사

자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승천 신앙, 오순절 신앙, 재림 신앙 등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내용 자체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와 현대 신앙인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는 것 다음에는 살 빼는 것에 관한 이야기 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콧방, 열청,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색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 믿음의 달을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잘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더 중요하고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못하면 사는 데만 급급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가서 당황하는데 이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예, 이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나 봅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 ... 경감할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들은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라.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팔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하는 말씀을 500여명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백이십 명은 그대로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 하다가 천국에 가고, 나머지 삼백팔십 명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고 그 죽는 날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매일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우 선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미리 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일을 하고 지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갈 것이니, 아니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다가 그냥 쓰러질 것이니, 하는 것을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헬방이라는 말이 전해는 없었습니다. 헬방이 무엇인가 하고 알아보니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멋지게 잘

살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든지 종말이 오든지 삼권이 없이 천국에 영영히 안 갈 사람처럼 살면 종말이 도착할이 오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7-10에 보면 “민들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열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하라.” 주인이 맡긴 일을 잘 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라는 권면입니다. 베드로 후서 3:11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니라” 거룩한 경건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생각지 않은 날에,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낮은 곳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거기서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페르시아와 적막 있는 곳입니다. 나 비록 이기 싫지만 우리의 꿈과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곳입니다. 높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면서 나가십시오. 주님을 따라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일 하려고 성령의 새 사도들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1) 통성 기도

2) 헌금과 관고, 주기도문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화: 최효정, 노주연, 윤선경, 채오경, 채미경, 양재봉
-방문: 김형찬, 김주현, 송창희, 최경희, 송성재, 송성구, 김진도, 김영자, 박기남
오영자, 오숙자, 박금남, Ruby Park, 이선문, 송봉익

* 순복음 가족운동회 (06.24(주) 퀸즈2부예배 후, 캐넌파크)

* 목장지도자/심방위원 세미나 (06.10(주) 맨하탄/퀸즈2부예배 후)

* 바나바 섬김이학교

-06.20(주)-06.10(주) 매주일 1:30pm-2:30pm, 5층 강의실

* Pray New York

-06.17(주) 3:00pm부터 소속교구의 중심거리를 2, 3인 1조가 되어 돌며 기도합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한 끼 금식하실 것을 권합니다.

* 새가족 만남 (07.08(주)-28(주) 매주일 2:30pm, 5층 강의실)

* Promise Youth Summer Program

-고등부(9-12학년) Summer Program: 예배시간 전/후에 안내소에서, 718.321.7800
중등부 온두라스 캠프: 주일 2부예배 후 서점 앞에서, 718.461.4409

* 차세대를 준비하는 목회/선교 Conference(뉴욕목사회 주최)

-06.14(목)-16(토) 10:00am-5:00pm(세미나), 8:30pm(집회)

-강사: Dr. Leonard Sweet 외 예배/교육/선교/선양 등의 분야의 전문가

-종류: 예배 후 안내소에서

-소강석 목사 초청 온두라스성회: 06.14(목)-16(토) 저녁, 17(주) 2부 예배

* 온두라스 의료선교 봉사자 모집

-선교기간: 07.23(월)-27(금) -문의: 최종환 목사(201.400.1115)

* Back to Jerusalem 예수대장정 성지순례단 모집

-순례기간: 07.29(주) 저녁-08.02(목) 4박5일 07.25(수)-08.04(토) 10박11일
07.28(목)-08.07(화) 12박13일 중 택 일

-내용: 성지순례, 황금물 관화전시(메사사 연주), 예루살렘 대성당

가이사와 원형극장 성령집회

-대상: 대학생, 청년, 장년(성가대 봉사 가능자 환영)

-선교연습: 뉴욕 지역-순복음뉴욕교회, 06.16(토)부터 매주 토요일 8:00pm

뉴저지 지역-말씀중앙교회, 06.12(화)부터 매주 화요일 8:00pm

* 이삭선교회 주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06.13(수) 8:30am, Grossingers Country Club

-6:15am 교회에서 버스 출발, 6:40am Fort Lee 우리은행 앞 Stop

* 제3안수집사선교회 월례회 (06.17(주) 1:30pm, 5층 2강의실)

* 제7권사회 월례회 (06.24(주) 월례회는 운동회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5권사회: 1:00pm, 8층 이삭선교회실 제6권사회: 7층 권사회실

-마리아선교회: 5층 2강의실 바나바선교회: 7층 선교위원회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6.10(주)	06.17(주)	06.24(주)
김정훈,김재봉,김정열	박종기,박계근,박병국	봉용기,사 법,석범장
김종철,나경식,문준이	박종현,박희도,박희식	온규두,유일용,이강길

* 의료위원회의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9)

* 성경완독자 찬양대(소망), 감동식(사랑), 박노업(화평), 이화순(충성)

* 식당봉사교구 (06.03(주)-온유교구/06.10(주)-결재교구/06.17(주)-사랑교구)

* 알립니다

-회락교구 이갑자 권사의 모친 이순덕 집사께서 (06.06(수)) 소천하셨습니다.

-화평교구 남해숙 집사의 차남 남태우 성도께서 NJ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30주년 기념 찬양 CD가 나왔습니다.

전도용, 선물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0)

-Family Today 6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점안내: 여유의 가솔(마사 베크), 희망(필리 그레함), 생령(오스 기니스), 금하

고 강함 비람처럼(멜테리),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내 친구에게(유진 페더슨)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식 헌 금	주 장 헌 금
\$150,966.75	\$1,311.50(누계-140,967.56 톤 분)	\$16,274.00(누계-\$321,547.83)

여 배 안 내

주일 예배	맨 하 탄 성 전		퀸 즈 성 전	
	1부	8:30am	1 부(영성) 장년성경공부	8:30am 9: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8:30am	유아,유치,유초등부 (Promise) 2부	10:30am 1:30pm
	중,고등부	8:30am	중,고등부(현,영)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장애 아동 한국어학교	1:30pm
			스페인어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복장
사랑	루 언 중 장로	201-691-1153	과테말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해 외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5-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안선	이 용 찬 장로	718-886-7000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80	북볼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평강	하 재 림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7
밀유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참재	최상식 안수집사	914-260-9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광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신 복 음 신 계 목 회

130-30 31st Ave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허연형 목사(원)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8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홍성수 집사(원)/김대열 집사(원)/공병희 장로(원)

찬 양 성가대

[원] 이준 밤 마음에 잠겨 (사온성가대)

[원] 호산나 (예루살렘성가대)

심감의 서약 코스타리카

설 교 설교자

[원.원] 오순절 신앙 | "행 2:43-47" 김남수 목사

[원] 성령시대 | "행 2:16-18" 김남수 목사

[원] 오두기 신앙 | "고후 4:7-11" 김호철 목사

헌 금 다같이

회복회 집사(원)/이경숙 사모(원)

광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 일 예배위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06/17	장한수 집사	김성태 집사	김종영 장로	사회자		
06/24	김종재 집사	김영호 집사	김철우 장로	사회자		
07/01	최원호 장로	김영환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07/08	노승현 집사	김원석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원	원	원	원	원	원
설교	모람에스	허연형	박종열	김남수	Richardson	허연형
사회	김남수	허연형	임용수	손경철	허연형	안진성
기도	이상봉	이정진	이창현	이화원	이화원	장재원

1. 환영(Welcome)

-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곡: "곤한 내 영혼" (찬464) "이 기쁜 소식을" (찬179)

-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함(Word): 성령 시대(행2:16-18) 김남수 목사

성, 구약성경의 사대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입니다. 현재까지로 부터 말라가까지가 하나님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부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사대를 성자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위를 향해 성령이 임하시므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시대는 다시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그리고 말세교회의 시대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간을 말세 혹은 포스트모던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높은 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므로 다락방에서 성령 제약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두 시대를 경험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는 오늘 조종히 성경 속에 제자들의 변화를 관심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가치관이란,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값있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하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보통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높은 자라는 좋아하고, 심기는 것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관이고, 내가 최고의 가치관이고, 한 자라 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만 있으면,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고, 우리가 언제 한 자라하고, 언제 잘 살겠습니까? 하는 것이 늘 관심이고 이것이 늘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사를 부르는 것처럼, 나의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약의 주만 보이기 됩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약의 주만 보이기 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가치관과, 교회 다니고 난 후에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과 예수 믿은 후에 가치관이 같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야 되고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 값이 우선이었으며, "이 땅에 것이 우선이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은혜이고, 변화된 삶이고, 성령의 삶이고, 이것이 성령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번째,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생활방식도 바뀌게 되며, 우선순위가 바뀌면 생활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열론 후루불이드라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기독교인에게는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 1.현실화는 내적 생활 2.봉사하는 외적생활 3.분명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지적생활, 이 세 가지가 든든히 서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사업 중심에서 이제는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전에는 세상중심에서 이제는 가정 중심이 됩니다. 전에는 성공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관계중심이 됩니다. 전에는 사내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속내에 열심입니다. 은혜시대의 사람은 늘 죽을 준비를 항상 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전직에 어떤 갈 준비를 잘하게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불과 같고, 그 열화의 불에 쫓겨 갈아서 불은 시름이고, 불은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열려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뿐만 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5에 "우리가 이제 이루게 되므로 보충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잘라 영영한 한국으로 갈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충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도바람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역하지 마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막든지 마나든지, 자연지 제언지, 인간지 사안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삶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증인함과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삼위일체와 사는 모든 성도들은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 삶의 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례 판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 위한 사람처럼 떠돌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놀리다 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

서 사람들 속에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주거환경, 입고 다니는 의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질이 높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질 높은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보으신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질 높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질이 높은 삶인 것입니다.

1907년 5월5일에 "미리 버거스"라는 처녀가 은혜를 받고 사부에서 통부로 와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1904년에 시작되었으니까 교단이 생기기 7년 전에 현현단에 기쁜 소식의 교회(Glad Tidings Tabernacle)가 탄생되었습니다. 1909년 10월 14일 이 처녀는 아일랜드 이민자 복음화단 장로교회로 편입된 설교자였던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09년에 자기들이 모인 첫 20마천 교회의 복음이 일어나니까 매일 새벽마다 두 시간씩 강론을 하려고 기도했었는데, 2년 후에 현현단의 33개의 현 건물을 10만 5천달러 구입합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에 이 교회가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를 통해서 세 계천교회의 꿈을 이뤄줍니다. 1909년, 30년, 40년대에 벌써 큰 예배당에 성도들이 아예 한 층에 꼭 차고 성가대와 젊은 청년들과 노인들과 함께 있는 사직들을 보면 교회의 부흥은 기적 폭발적이었습니다. 60주년이 되는 1969년까지 40년 동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 선교부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보낸 헌금이 150만 달러나 되었습니다. 로버트 브라운 목사는 1948년 2월 11일 55세에 주님 품으로 가시고, 사모님이 자신의 조카인 스티븐 버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시다가 1971년에 90세에 68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던 교회의 복음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1974년 4월에 제가 뉴욕에 집한 방문했을 때 한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버그 목사님을 만나서 한국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가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최자실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아들 김성관 목사님을 보내셔서 1975년 12월에 정식으로 장입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의 목회자 아니나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 필라델피아로 갔다가, 목회에 가서 목회를 하던 중 여기 뉴욕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부탁을 해서 다시 온 것이 1977년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교인이 천명, 이전 명으로 늘어나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드리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우리를 간담할 수가 없어서 1982년 만에 본지로 이전하고 남은 분들을 곧 최근 구입한 현현단 성전으로 옮겨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선교의 꿈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젊은이든 늙은이든 예루사렘 노안이나 남자든 여자나 아무 관계없이 내 영으로 부어주시는 다 훈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적 수준도, 재정 수준도, 교육 수준도, 학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행방이 잘 아나입니다. 깊은 그런 것과 함께, 아니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 환상과 꿈을 마음에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함께 하나님을 뜻을 이뤄드리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가느냐, 이것이 삶과 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령시대, 은혜시대, 교회사에 오직 오두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과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풍고, 주기도문
- 3) 애잔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김세훈, 김재선, 김서연, 김준모 -방문: 박종원, 박봉애
• Promise 가족운동회 (06.30(주)) 컨즈2부예배 후, 캐닝행파크

• Pray New York

(06.17(주)) 3:00pm부터 소속교구의 중심거리를 2, 3인 1조가 되어 돌며 기도합니다.

• 제38기 예루렐시아 (07.08(주)) 11(수) 다락타: 구귀향 공사

• 새가족 만남 (07.08(주)) 29(주) 매주일 2:30pm, 5층 김의실

• JAMA 중보기도 Conference

(07.02(월)) (06(목)) 순복음뉴욕교회 낮-새마나, 저녁-성령충만집회
-강사: 김남수 목사, 함기홍 목사, 장동찬 목사, 김준근 장로 등
-등록: 예배 후 안내처 -담당: C-12, 복장위원회, 중보기도위원회

• 한국어학교 2007 봄학기 발표회 (06.17(주)) 1:30pm, 아래층 식당

• Pre K-8학년 Summer School 등록 안내

-기간: (07.05(수)) (08.17(금)) -대상: Pre K10/31/04 이전 출생(8학년(9월 기준))
-주말: 2부예배 후 서점 앞 -주선: Sarah Choi(718.451.4400)

• Global Vision Trip/고등부 Summer Program 등록 안내

예배 후 1:30pm까지 안내서와 서점 앞에서 안내드립니다.

• 혼두라스 의료선교 봉사자 모집

-선교기간: (07.23(월)) (27(금)) -문의: 최종환 목사(201.400.1116)

• Back to Jerusalem 예수대장정 성지순례단 모집

-순례기간: (07.29(주)) 저녁 (08.02(목)) (4(일)) (08.05(수)) (08.08(토)) 10박11일
(08.09(목)) (08.12(일)) 12박13일 중 택 일

-내용: 성지순례, 황금문 관화전서(예시야 연구), 예루살렘 대평군
가이사와 왕왕국장 성령집회

-대상: 대학생, 청년, 장년(성가대 봉사 가능자 환영)

-참가연습: 뉴욕 지역-순복음뉴욕교회, (06.16(토))부터 매주 토요일 8:00pm
뉴저지 지역-별명중영교회, (06.12(화))부터 매주 화요일 8:00pm

• 제1안수집사선교회/제7권사회 월례회 -운동회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3안수집사선교회: 1:30pm, 7층 선교위원회 사무실

-모세선교회: 5층 2강의실 -제3권사회: 아삭선교회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6.17(주))	(06.24(주))	(07.01(주))
민중기,박계근,박영옥 박종원,최희도,박희식	봉용기,서 법,석법정 윤규두,유일환,이건우	이기영,이길부,이상주 이성훈,이재명,이영철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덕 집사(718.877.8289)

• 성경완독자 초미자(사람)-4명

• 식당봉사교구 (06.10(주))-팔레교구/06.17(주)-사담교구/06.24(주)-운동회

• 알립니다

-회령교구 육순자 성도의 부친 육동백 성도께서 (06.11(월)) 소천하셨습니다.

-양선교구 안영자 성도께서 (06.12(화)) 소천하셨습니다.

-3M 할릴 우 집사의 부친 Edward Woo 성도께서 (06.15(금)) 소천하셨습니다.

-회령교구 조한진 집사와 윤숙현 양의 결혼식이 (06.09(토)) 대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삭선교회에서 골프대회 수익금 \$5,354.24를 장학기금으로 헌금해주셨습니다.

-회령교구 남해숙 집사의 차남 남태우 성도께서 NY, NJ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예루살렘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30주년 기념 찬양 CD가 나왔습니다. 전도용, 선봉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10)

-Family Today 6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찰안내: 믿음을 자손 대대로 장수하라(소장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이 도우슨), 순종(존 비버), 믿음의 화해(존 엘드리지), 자애(참스 스윈들)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식 헌 금	주 정 헌 금
\$136,103.57	\$845.50(누계-146,213.56 제 분)	\$13,406.00(누계-\$334,953.83)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컨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1 부(영성) 장년성경공부 2 부 3 부(젊은 예배) 영아예배 8:30am 9:30am 10:30am 1:30pm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한국어학교 8:30am 8:30am 10:30am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Promiseland) 2부 중,고등부(한,영) 장애 아동 한국어학교 스페인청년부 10:30am 1:30pm 10:30am 1:30pm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중,고등부(FNA) 어린이(QIN) 8:00pm 8:00pm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람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타말라	16
회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2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윤 장 장로	718-89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찬연 안수집사	718-961-5480	북볼리비아	16
홍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7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5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형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잘레	최성식 안수집사	914-393-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49인비트
Ch.57 TV	Promise Ministry	85/토 10:00am/8:30pm
마주카복교방송	자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컨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행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신 복 음 뉴 욕 교 회
김남수 목사님

주 일 예 배 순 서

시와: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27 장 다같이

대포기도 말은이

강찬순 집사(권1)/김성태 집사(권1)/김동형 장로(권2)

찬 양 성기대

【제1】 기쁜 일이 있어 천국 흥 차네 (사은성가대)

【제2】 주의 사랑 안에서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제1】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히 11:28-29" 허연형 목사

【제2】 Holy Moment | "행 16:10" 임용수 목사

【제3】 꿈의 선구자가 되세요 | "창 50:24-25" 소간식 목사

【제4】 Perfect Storm | "막 4:35-41" Dr. Leonard Sweet

헌 금 다같이

최수연 집사(권1)/김상주 형제(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 일 예배위원

	맨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젊은)		
06/24	김동재 집사	강영호 집사	김영후 장로	사회자		
07/01	최원호 장로	강영환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07/08	노승범 집사	김원식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07/15	박민수 집사	김찬준 집사	신정훈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임용수	허연형	임용수	손영선	Richardson	김남수
사회	안진성	김성웅	이영서	허연형	허연형	임용수
기도	장연택	조상연	조소현	전일환	최성식	최우준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작하는 목원들 환영

2. "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내 영혼에 햇빛 비치나" (찬488) "여호와 나의 목자"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세 뿌리는 사람들(막4:26-29)

설교자: 불리바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AG 총회장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을 가르쳐 미치 못할 뿌리는 사람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씨앗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씨앗을 뿌릴 때는 믿음을 가지고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그 씨앗을 받아드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받은 자만이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4살 때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설교를 하시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가운데서 앞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씨앗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믿음으로 추구한 결과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종류의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건조하고 좋지 않은 땅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땅이 있어서 씨앗으로 하여금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김 목사님과 여러분이 같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린이 시역을 위한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줄 때 그들이 장성하였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미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가 헛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씨앗에 씨를 내게 하고 열매를 맺듯이, 이와 같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석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 반드시 겨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심으면 사람을 거둘 것이고, 우리가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신성한 법칙에 의해서 자비를 거둬들일 것입니다. 사도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플모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고전 3:6). 이 말씀은 심은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 그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키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비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이 교회기운에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946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코스타리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에서 첫번째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약 600개의 선교지들이 생기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화에만 8만명의 교인들이 생기기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화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거처선지지도 여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손해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고, 법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은 십년동안 이단자들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체질을 하게 되고, 다른 교단들도 하나님의 성화를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 세계의 여러 곳들에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선교하는 교회인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어떤 소자에게 나누어 준 것을 골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보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갑 남수 목사 메시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되고 가치관도 변화가 되고, 나중에 보면 산술도 바뀝니다. 전에는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심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 너의 고통은 너의 고통, 너의 가난은 너의 가난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슬픔, 낙담하지 못한 사람의 안타까움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슬픔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아픔도 나의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다른 산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산술은 내 것이 네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내 것도 네 것이 될 수도 있고, 너의 아픔도 필요하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아침의 제자들은 어찌나 이기적인지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 전혀 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은 마이나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전부 파주는 일들입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일들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적자보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 죽을 고생하는 일입니다. 밭도 안 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돈 생기는 일은 하나도 안하고 돈 쓰는 일만 하고, 돈 버는 일은 생각 안하고, 계속해서 쓰는 일만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하이 석상의 수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하인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놓아서 넘치게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산술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산술을 배우고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계속해서 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자하니까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보라씨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오른 게 되는 이런 산술은 은혜 받지 않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야 갔다가 어떤 분이 노르해서 놓은 것을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노르에 어떤 것이 적혀 있었습니까. "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 기쁨이 기쁨을 낳고, 눈물이 눈물을 알며, 아픔이 아픔을 이해합니다. 가슴이 가슴을 때 맞추게 하고, 손이 손을 잡아 줍니다."

(묵상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1) 봉성 기도

2) 헌금과 공고, 추기도문

3) 애전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 동역: 오이강, Anthony Oh, 우주희, 김탁수, 박은영
- 평원: 서희수, 임지영, 손종원, 이은숙, 노순철

* Promise 가족운동회

- 06.28(주) 컨즈2부예배 후, 캐넌캠퍼스

* 제38기 여름레시아

- 07.08(주) 11(수) -디렉터: 구귀향 권사(201.886.3401/907.912.9740)

* 새가족 만남

- 07.08(주) 29(주) 배주일 2:30pm, 5층 강의실

* 바나바 섬김이 수료식

- 07.01(주) 컨즈2부예배 시

* 두상달 장로 부부 초청 "행복으로의 초대"

- 06.29(금) 금요예배 시

* JAMA 중보기도 Conference

- 07.08(월) 08(목) 순복음뉴욕교회 낮-세미나, 저녁-성령충만집회
- 장사: 김남수 목사, 한기홍 목사, 정종환 목사, 김준근 집로 봉
- 동역: 예배 후 안내서 -담당: C-12, 목장위원회, 중보기도위원회

* Pre K-8학년 Summer School(크리스찬사립학교) 등록 안내

- 기간: 07.05(목) 08.17(금) -대상: Pre K(6/31/04 이전 출생)-8학년(9월 기준)
- 주말: 2부예배 후 서점 앞 -주최: Sarah Choi(718.461.4609)

* Global Vision Trip/고등부 Summer Program 등록 안내

- 예배 후 1:30pm까지 안내석과 서점 앞에서 안내해드립니다.

* 혼두라스 의료선교 봉사자 모집

- 선교기간: 07.23(월)-27(금) -문의: 최종환 권사(201.400.1195)

* 20기 뉴욕/뉴저지 아버지학교

- 07.07(토) 08(주) 14(토) 15(주) 토요일 6:00pm, 주일 5:00pm, 아담다문교회(L.L.)
- 등록: 06.28(목)까지 등록비 \$120 -문의: 조안식 집사(917.833.0750/917.217.2890)
- 지원자와 함께 봉사지도 모집합니다.

* 제4권사의 월례회 07.01(주) 1:00pm, 7층 권사회실

* 제1/2인수집사선교회/제7권사의 월례회

- 운동회 경제로 모이지 않습니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6.28(주)	07.01(주)	07.08(주)
봉용기,서 법,석범정 은규두,유일봉,이건우	이기영,이길복,이성주 이성봉,이재영,이학영	이학용,전일필,전연택 전원태,조상영,지관웅

* 의료위원회의 무료 건강상담 안내

-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 매 주일 8: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9)

* 성경만독자 고학년(화평)-2독

* 식당봉사교구 06.28(주)-문동회/07.08(주)-인내교구/07.08(주)-자비교구

* 알립니다

- 06.25(월)부터 28(목)까지 LA 감사찬양교회에서 열리는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의 총회 시 본 교회 안진성 권도사, 장재한 집도사 두 분의 목사인수식이 있습니다
- Back to Jerusalem 예수대장장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현지 사정에 의해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 사람교구 김성현, 영아 집사 가령애 06.25(목) Lauren 양이 태어났습니다.

- 양선교구 곡상의 권사에서 UPLA 국제사인협의회에서 계관사인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 예수성령성가대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30주년 기념 찬양 CD가 나왔습니다.

- 권도용, 선동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

- Family Today 6월호가 나왔습니다. 권도용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인내: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하워드, 성 어거스틴의 기도, 믿음의

- 영웅이 되라(제임스 달슨),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4가지 지혜

- (앤드류 머레이), 용사의 가슴(루이스 스머즈)

- 주일/새벽기도 설교 Tape, 장년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금 식 헌 금	주 정 헌 금
\$135,657.86	\$1,373,000(누계-151,705.56 개 분)	\$14,400.00(누계-\$470,611.69)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콘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1 부(양상)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5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10:30am (Promise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태반청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람	주 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희라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0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진 장로	718-886-7003	남아메리카	14
소망	이창원 안수집사	718-961-5460	북아메리카	16
충성	최 종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1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중국	
은혜	김 형 후 장로	718-68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비도르,케냐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24시간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마주키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콘즈 성전: 150-30 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31-7800, Fax:(718)321-9394

월드미션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과 선교를 위한

영혼의 길목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주일에 배운서

사회: 하연형 목사(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 47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김동래 김새별/김영호 김새원/김철우 장로(원)

찬양 성가대

【편】 감사와 찬양의 찬송 (시온성가대)

【편】 능하신 주의 손 (예루살렘성가대)

고통부절업생을 위한 축복기도 담임목사

설교 설교자

【편】 오해의 소망이 있음이니이다 | “에317-24” 김남수 목사

【편】 성도의 대언론 | “롬 15:1” 하연형 목사

【편】 사랑 이야기 | “롬 5:8” 김호성 목사

헌금 다같이

Juliana Kim & John Suh(원)/아침 2중창(원)

공고 사회자

찬송 찬 303 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인	찬 조 1 부	찬 조 2 부	찬 조 3 부(공은)		
07/01	최영호 장로	김영환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07/08	노승범 집사	김원석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07/15	박민수 집사	김정훈 집사	신정은 장로	사회자		
07/22	이강길 집사	김재홍 집사	안병상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성교	김남수	이승환	김상래	손영섭	Richardson	하연형
사회	손영섭	김성웅	김상래	김성용	이영서	안진성
기도	한승만	홍승환	김상순	고용만	권광일	권영환

I. 환영(Welcome)

1) 도라하는 목원들 환영

2 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 경배(Worship)

1) 찬양곡: “내가 매일 기쁘게” (찬427) “어둔 밤 쉬 되리니” (찬370)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꿈의 선구자가 되세요(창 50:24-25) 소 감 석 목사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언약의 땅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으며, 죽은 후에도 약속의 땅에 대해서 꿈을 꾸었다는 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다음세대 위한 리더십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축복을, 어떻게 기조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에 오늘 메시지도 선구자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구자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말한 해몽은 단순히 마이대로 만든 자기의 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죽었지만 자신의 열과 그와 혼, 그의 정신과 신앙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시 그는 애굽의 바로왕의 다슬인 총리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전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구세주와 같은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었을 때는 여야 애굽에 어떤 왕이 못지않게 괴담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모로코였습니까? 그런 무덤으로 안 하여 요셉은 자기가 죽어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멘과 찬송과 여러 가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도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꾸었고, 죽은 후에도 그가 꿈을 꿀 수 있다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백년 가까이 살았던 애굽왕,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한과, 후하여 묻어있는 애굽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땅에 묻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의 선구자입니까? 그는 죽을 때에도 영적들에게 약속의 신앙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날 하나님만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도 꿈을 꾸었고, 죽어서도 꿈을 꾸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후손들이 애굽땅을 밟 때에 자기 마이대로 출애굽을 하여 언약의 땅에 묻히기” 말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비전의 선구자였습니까? 여러분 지도자, 3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신앙, 병들었던 인생을 일깨워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요셉이 꿈의 선구자, 희망의 선구자였다면, 모세는 행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가나안땅이 보이는 모압까지 느브산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완성된 선구자는 아닙니다. 부분적인 성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며, 그리고 바라보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언약의 완전한 성취자를 세웠으니, 그가 바로 예후수였습니다. 예후수야를 통하여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아리코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과 여러 원주민 일곱 족속을 일제히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백사바를 출생시키는 위대한 선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후수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후수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대히 해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리니, 너는 누구의 싸움도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항복할 것이요, 왜냐하면 너의 조상 신앙의 선구자들이 약속한 것, 그들이 꿈꾸던 것,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신앙의 선구였고, 후손들은 신앙의 성취자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토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선구자가 출애굽 할 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선구자가 아닌 성취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구자의 꿈은 살아있을 때만 이루어

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루어지고, 해골이 되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집합적 인격체 사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수백년, 수천년이 지난 후에도 조상과 후손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요셉이 죽어도, 사상과 언약 안에서 후손과 조상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있어서 후손들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과 함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도 건너고, 그리고 모세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 후손들이 선조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집합적 인격체 사상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성경에서도 “이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상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구자의 꿈과 언약의 믿음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이르고 이르고 그 믿음과 꿈이 반드시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선구자와 성취자는 집합적 인격체 안에서 결국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나아가 물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활대로 소멸되지 않고 후손 대대로 전대 만대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성취자가 되어서, 민족의 일꾼이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때에, 집합적 인격체 안에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들이 우리와 믿음의 삶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눅24장 나사렛의 비유, 눅11장 등). 그러므로 우리도 선구자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지 천상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영광스런 꿈의 성취자가 되고, 언약의 성취자가 되는 모습을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수를 쳐서 응원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나의 꿈을 기쁘고 이루어 주시는 산실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언약 안에서 꿈의 성취자와 꿈의 선구자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일찍한 죄나, 어떠한 테크닉이 아니라 정신, 모티브, 영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꽃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구자가 뿌리는 눈물의 씨입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그 꽃씨가 씨이 나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며, 눈물겨운 열매를 따먹는 영광스럽고 환호할 성취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부분적인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성취는 우리의 자녀 대에 아니면 손주 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브라함의 꿈에서, 언약의 꿈에서, 집합적 인격체 안에서, 산실하게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눈물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성경과 회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한 세대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를 향하여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하며 영광을 드려야 하고요, 지상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박수치며, 응원하며 그들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은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성취자의 영광을 만끽하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선구자와 성취자가 집합적 인격체로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희망의 선구자가 되십시오.

〈회고와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반대현, 반영옥, 송창희, 최경화, 송성재, 송성규, 김영희
-방문: 곡동식, 해민영

* 2006-2007 하반기 제직회 -07.08(금) 금요일에 후

* 제38기 예클레시아

-07.08(주)-11(수) -디렉터: 구귀환 목사(201.886.3401/917.912.9740)

-07.08(주)-29(주) 매주일 2:30pm, 5층 강의실

* 새가족 만남

* 바나바 섬김이 수료자 명단

최성근, 이혜숙, 김미선, 남은숙, 김성이, 정송자, 김관화, 박명숙, 김인호, 김준희, 이정숙, 오영숙, 임혜숙, 오영순, 조인식, 오현진, 임승준, 오문용, 고대현, 김유지, 김진숙, 은규자, 장영순, 김홍주, 김대현, 이미복, 변안숙, 오준옥, 이성실, 홍창희, 봉복희, 김초롱, 이화진, 변명식, 임현자, 김귀옥, 김연희, 고현숙, 이옥자, 장현교, 유창준, 김만호, 김해선, 김보식, 김 철, 김중서, 조인수, 손미경, 유상숙, 안혜숙, 유동철, 조동숙, 성미숙, 최오정, 최정희, 신혜연, 이연순, 목진주, 박옥주, 조자연(80명)

* JAMA 중보기도 Conference

-07.08(월)-(5(목)) 순복음뉴욕교회 낮-새미나, 저녁-성령충만집회
-강사: 김남수 목사, 한기홍 목사, 장봉환 목사, 김준근 장로 등
-등록: 예배 후 안내식 -담당: C-12, 목장위원회, 중보기도위원회

* 고등부 Summer Program 등록 오늘 마감

24일까지 후부터 1:30pm까지 서점 앞에서 등록 받습니다.

* Pre K-8학년 Summer School(크리스찬사립학교) 등록 안내

-기간: 07.08(목)-08.17(금) -대상: Pre K(5/31/04 이전 출생)-8학년(9월 기준)
-주말: 2주에 배 후 서점 앞 -주장: Sarah Choi(718.461.4409)

* "Wild West" Promise Land Summer Camp

08.28(주)-29(수) Christian Academy(NJ) -대상: 2학년-6학년
-등록: 07.15(주)까지 \$180, 07.29(주)까지 \$200, 예배 후 식당 앞에서

* 온두라스 의료선교 봉사자 모집

-선교기간: 07.23(월)-27(금) -문의: 최종환 목사(201.400.1116)

* 20기 뉴욕/뉴저지 아바지학교

07.07(토)/08(주)/14(토)/15(주) 토요일 6:00pm, 주일 5:00pm, 아름다운교회(LLJ)
-등록: 06.28(목)까지 등록비 \$120 -분야: 조인식 집사(917.833.0750/917.217.2890)

자원자와 함께 봉사자도 모집합니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1권사회: 9층 원주 방 -제2권사회: 9층 오픈북 방
-제4권사회: 1:00pm, 7층 권사회실 -이사신교회: 아삭신교회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7.01(주)	07.08(주)	07.15(주)
이기영,이갑복,이상주 이성봉,이재림,이하영	이하영,전일환,정연태 정원태,조상영,지관용	최성식,최무준,허원부 김성순,고용만,곽윤태

* 의료위원회의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분야: 장연태 집사(718.877.8289)

* 식당봉사교구 07.01(주)-연내교구/07.08(주)-자비교구/07.15(주)-양성교구

* 알립니다

-질제교구 이분장 권사의 차남 이정현 군과 백여정 임의 결혼식이 06.23(토) 예루살렘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사망교구 김지은 집사, 김법남 집사의 차남 김건태 군과 정민정 양의 결혼식이 06.30(토) 예루살렘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김성운 전도사, 김마리아 사모 가정에서 06.28(목) 세례(Adrian Justice) 군이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성대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30주년 기념 찬양 CD가 나왔습니다. 전도용, 선물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0)
-서점안내: 김준근 장로 저서,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정용복), 신화(브래넨 매닝 한/영), 소망(오스 가너스, 한/영), 예수 하버드 오대(하비 폭스, 한/영) The Cost of Discipleship(Bonhoeffer),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Dallas Willard), Love Your God with All Your Mind(J. P. Moreland)
-차세대를 위한 새미나 Tape, 주일/새벽기도 설교 Tape, 장년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급 헌금	주정 헌금
\$119,606.59	\$700.00(누계-154,506.56 미 분)	\$13,534.89(누계-\$362,888.52)

예배안내

	연하단성경	원즈성경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유아,유치,유초등부(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페인성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B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목수
사랑	주 언 총 장로	201-481-1153	파테말라	16
피라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0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3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86-7003	남아메리카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80	북아메리카	15
충성	최 종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말씀	유 재 규 장로	516-825-8887	베네수엘라,중국	10
온혜	김 철 후 장로	718-96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874	엘살바도르,케냐	7
광재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440	잠비아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체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광터	토 6:30am

원즈 성경: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594

원하단 성경: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원하단 성경
원하단 성경

원하단 성경

주일에배순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 461 장 다같이

대표기도 합은이

최원호 장로(권1)/김영환 집사(권1)/이정호 장로(권2)

찬양 성가대

【권1】예루살렘 금성이 (시온성가대)

【권2】임하소서 성령님 (예루살렘성가대)

설교 설교자

【권1】(나사렛 예수와 이혼) | "형 3:1-10" 김남수 목사

【권2】(오해의 소망이 있음이 아니라) | "예 3:17-24" 김남수 목사

【권2.부록】(회령이 남긴 사랑의 유산) | "약 1:2"

Marilee Pierce Dunder

성찬식 다같이

헌금 다같이

강병호 형제(권2)

공고 사회자

찬송 찬 303 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양팀	권조1부	권조2부	권조3부(젊은)		
07/08	노승철 집사	김원석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07/15	박민수 집사	김장훈 집사	신정환 장로	사회자		
07/22	이경길 집사	김재홍 집사	안병상 장로	사회자		
07/29	임일진 집사	김정현 집사	김병수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허연형	장동환	이상형	위성교	임용수	김남수
사회	손영실	김남수	허연형	허연형	안정성	장재환
기도	권대수	김관용	김성태	강영호	강영환	김원석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내가 매일 기쁘게" (찬207) "어둔 밤 쉬리라" (찬300)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오해의 소망이 있음이 아니라. (예 3:17-24) 김남수 목사

오늘은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에 아픔과 함께 오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하심 뜻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을 상
 고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34년째 6학년까지의 초등학교 학생 3천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들의 89%가 6.25는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5% 중 4명만은 일본과 한국이 싸운 전쟁이라고도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세대가 겪은, 싸운 민족의 비극
 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거나, 혹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에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과거 6백년 전 이산의 유대인들이 파살당
 창국의 상황과 그들이 겪었던 고통스럽고 수차례의 오랜 과거를 자세하게 후대
 에 전하려고 곳곳에 홀로로스트 박물관을 세워놓고 일 년에 몇 번씩 초등학교
 중고생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거기에 다녀오게 합니다. 거기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선조들이 고통 받고 수치를 당하고 참혹하게 죽어간 그 모습을 새기면서, 슬프
 게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는 말을 되새기면서 박물관을 나오는 모습
 들을 보면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한편 18세 이상 된 한국인 성인 77%를 대상으
 로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물었더니 60%가 1950년이라고 정확히 말하
 고, 나머지 34%는 전혀 년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국전쟁을
 "잊어진 전쟁" 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외국인 전쟁" 이라
 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이 전쟁을 오
 늘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의 바다는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반쪽된다" 는 역사의 교훈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
 면 또 국권이 분열되고, 사상이 분열되고, 의견이 분열되고, 싸우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조국은 무서운 비극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영광스런 도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위해 수치를 당
 하고, 하나님의 성안이라는 사람들이 처사에 끌려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종
 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던 그 통곡이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그
 슬픔 적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고초와 재난과 폭과 답답을 기
 역함.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더 큰 실
 수입니다. 오늘 저는 6.25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후, 한국에 하나님께서 7대의 기적
 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1)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기적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한국 위로는 북한과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 소련과 몽구라파권 몽골의 국가들이 매
 치대양의 철막을처럼 공산주의 이념으로 집단적인 경제주의가 횡횡하고 들어가면서
 모든 나라들이 그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조그만 구덩이 하나
 가 그 거대한 역풍 속에서, 그 거대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서울이 30일만에 손을 들고, 대전과 낙동강이 다 무너지고, 부산
 이 조금 남아있을 때에, 교회가 기도하고, 대령장이 기도하고, 전 세계가 기도하
 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저 광양의 1907년의 큰 부흥이 있던 그 은혜 받은
 신도들과 신앙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물러와 끌려다가, 마지막 부산에서 모여 금
 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이
 것은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쓰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련과 위험 속에서
 살아주시고 남겨주시길 믿습니다.

2) 거지, 배, 잿더미에서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탄서와 파괴,
 영국의 런던, 독일의 백담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
 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만에 이런 큰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년, 40년만에 서울이 이런 폐허에서 일
 아니라, 인구 1400만이 사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위대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3) 경제발전입니다. 어떤 때에 10의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하루 번가에 충분
 한 양식을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어느 새 반물,
 이만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시골 112명2살에 "외인
 의 자손이 갈라지지 아니하며, 그 후손이 땅에서 감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이 맞는 줄 믿습니다.

4) 체육의 발전입니다. 체육은 국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살
 아도 국력이 약하고, 사람들이 체육에서 제대로 안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
 실 우리민족이 세계의 두드러지게 최근에 알려진 것은 월드컵과 올림픽 때문
 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골프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50여년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골프채를 잡은자가 한 230만 밖에 안됩니다. 그런 사
 람들이 나와서 세계의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적이요 축복
 안에, 체육의 발전이 우리민족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일을 했습니다.

5) 인터넷 상인과 고도의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에 전
 세계를 주도하는 아주 대단한 기업들과 상품들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선, 직조, 직물, 염색, 텍스타일 등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야가 세계에서 뛰어난 팀 산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6) 한국민족이 수년 만에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도 그 넓
 은 땅에 한국 사람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대만 남쪽에도, 아프리카에도, 한
 국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빠른 시간에 수백만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7) 전쟁 후에 한국의 교회와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00년 70년대에
 빌라 그레함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CCC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
 족 복음화대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평화 모이는 큰 집회를 하면서 교회들이
 무수히증서처럼 일어나서 전 국민의 30%가 기독교로 되고, 세계의 가장 큰
 장로교회로 세워졌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성령
 교회가, 그리고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가 한국 의도에서 조종기 목사님이 사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누가보여도 이것은 기
 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세계 선교하
 는 제사장의 국가로 한국을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네트워킹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민족을
 통해서 세계선교와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
 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영웅
 난 잿더미에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때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아니한가,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백만 명을 해외에 보내시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아랍권이고, 공산권이고 삼권이 없어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루어질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지난날을 잊지 않고,
 오늘의 축복을 믿종하거나, 오늘의 축복을 몰래없이, 정신없이, 이 세속과 불
 질주의와 세속의 함락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려 축복을 축복으로 받고,
 지난날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며, 왜 축복하
 겠나 이해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묵상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어떤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
 요.

IV. 사역(Work)

- 1) 통신 기도
-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 3) 애간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장상현, 정혜진, 장예림
-방문: 임지웅, 오성자, 이장직, 최미리, 김병용, 성경용, 홍문학, 최원일

• 신우 특별 새벽기도회

-07.16(월)-21(토) -장사: 김남수 목사, 문봉주 장로 외

• 세례식 -08.26(주)

• 제38기 여름레시아

-07.08(주)-11(수) -디렉터: 구귀환 목사(201.886.3401/917.912.9740)

• 새가족 만남

-07.08(주)-28(주) 매주일 2:30pm, 5층 강의실

•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07.20(금)-22(주) 켄즈합인교회 -장사: 오정현 목사(시암외교회)

• 목장지도자/심방위원 세미나

-07.15(주) 맨하탄, 켄즈2부예배 후

• 중보기도 300 명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신청: 07.28(주)까지 안내석에서 -문의: 장태은 전도사

• "Wild West" Promise Land Summer Camp

-08.28(주)-29(수) Christian Academy(NJ) -대상: 2학년-6학년(9월 기준)

-등록: 07.15(주)까지 \$150, 08.05(주)까지 \$180, 예배 후 식당 앞에서 1:30pm까지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08.28(월)-29(금), 백들레렐성전 -대상: K-6학년(9월 기준)

-등록: 08.12(주)까지, Free, 예배 후 식당 앞에서 1:30pm까지

• "Jesus Station" 스테이션청년회 여름수양회

-08.09(목)-11(토) Christian Academy(NJ)

• 혼두라스 의료선교팀 기도 모임

-07.08/15/22(주) 1:30pm, 7층 LWM 사무실

• 20기 뉴욕/뉴저지 아버지학교

-07.07(토)/08(주)/14(토)/15(주) 토요일 6:00pm, 주일 5:00pm, 아름다운교회(LLI)

• 해외선교위원회의 월례회

-07.15(주) 3:30pm, 7층 선교위원회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미리안선교회: 5층 2강의실 -제5권사회: 이사선교회실

• 제6권사회: 7층 회의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7.08(주) -07.15(주) -07.22(주)

이학용,전일필,장연택 최상식,최우준,하위무 권영현,김관용,김기성

정원태,조상열,지민용 강성순,고용민,곽준태 김남관,김성태,김장훈

• 의료위원회의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잔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201.491.6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봉사교구 07.08(주)-자비교구/07.15(주)-양선교구/07.22(주)-자비교구

• 알립니다

-새 목장별 교직원 및 주일출석표가 순집함에 있습니다.

-Family Today 7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30주년 기념 찬양 CD가 나왔습니다.

-전도용, 산불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서적안내: 성령세례와 순례(론 스포트), 찬양하를 향한 마음(고든 맥도널드)

리더십의 용기(빌 하이벨스), 여호와를 경외하라(론 비버), 예수님의 이름으로(헨리 나우먼)

Brooks Brothers CD, JAMA 중보기도 Conference CD, 차예대를 위한

세미나 Tape, 주일/새벽기도 설교 Tape, 주일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헌금	주정 헌금
\$141,962.65	\$658.00(누계-157,137.56 개 분)	\$14,388.00(누계-\$377,275.52)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켄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1 부(양성) 장년성경공부 8: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8:30am 한국어학교 10:20am	유아,유치,유초등부 10:30am (Promiscu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태이션청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시애틀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5
히라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룡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5-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창 장로	718-886-7003	남몰리비아	14
소말	이창연 안수집사	718-361-5480	북몰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7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
말씀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중국	11
온혜	김 철 후 장로	718-68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월재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이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켄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교육연구소

대표: 김남수

주 일 예 배 순 서

사제: 허연형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0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노승범 집사(권1)/김영석 집사(권1)/최명호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온성가대)

【권2】 주와 함께 가리라 (여루살렘성가대)

특 순 청소년 글로벌 비전여행 파송식

찬 양 이태숙 목사

설 교 설교자

【권1】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 "행 3:1-10" 김남수 목사

【권2】 지금은 전시입니다 ! "당전 6:11-12" 허연형 목사

【말은】 Paradigm Shift "학 10:38-42, 11:27-28"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조공자 김도사(권1)/이학모 목사(권2)

관 고 사회자

찬 송 찬 308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 일 예배위원

	찬양팀	권 1 부	권 2 부	권3부(말은)		
07/15	박민수 집사	김장문 집사	안병상 장로	사회자		
07/22	이강길 집사	김영석 집사	김영수 장로	사회자		
07/29	양일진 집사	김재용 집사	신정용 장로	사회자		
08/05	안병상 장로	김장영 집사	주언준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임용수	안진성	임용수	허연형	Richardson	김남수
사회	손영섭	허연형	임용수	허연형	이영서	김성윤
기도	김장훈	김관용	김성태	김영호	김재용	김장영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1.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장들 환영

2) "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날,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3. 경배(Worship)

1) 찬양곡: "오 신실하신 주" (찬447) "강한 믿음" (찬451)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3. 말씀(Word): 위대한 유산(약1:27) 베릴리 피엘스 연가(월드비전 대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의 아버지 밥 피엘스 목사님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며 주시곤 하셨습니다. 1950년에 대단히 중요한 네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1월에는 제가 출생을 했구요, 3월에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부흥사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하여 여러 곳을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영영히 바꿀놓은 전쟁의 정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꾸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교역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가족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한다는 소식을 듣지마자 한국으로 가야한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비 카메라를 들고 그곳에 가서 그 사실을 찍어다가 미국의 교회들에게 소개를 하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에 있는 한 신문은 북한에 있는 80%의 교역자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미 처형을 당했다는 보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대로 피난을 나와야 했습니다. 잔여 전혀 보지 못했던 가난과 빈곤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에 잡혀서 울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는 어머니를 슬픔으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산길을 안산은 아이들을 차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강변에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관자집을 지어놓고 그 추위를 견디는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관자집에 있는 군인파사 텐트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허루저 넉을 지내면서 아버지의 성경학에다 "하나님의 마음이 쫓아지는 그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쫓아지게 하소서"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oke your heart, Oh God" 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댓가를 차를 각오와 결단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댓가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결심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또한 미처 생각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필요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알립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헐벗었으면 입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건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잠시 한국의 풍요로, 희망이 있을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들이 갓대기가 된 한국을 다시 일찍 세울 소중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월드 비전이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업들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잠시 그 나라와 사회를 살릴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꿈을 거기에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한 사람이 이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생애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셨는데, 그 중의 한 분이 광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경직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한 목사님은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주 서로 만나면 반갑고 가까운 친구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경직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영락교회에 초청하고 소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인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일어나서 손을 걷어 부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돕자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월드 비전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길과 함께 시작할 이 월드 비전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세계적인 최대의 기구가 만들어 지고 탄생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백 선영 장로입니다. 이 분은 한국교회의 최초의 사서장군이었고, 한국 전쟁 때의 영웅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알지 못하는 그의 중심의 마음을 지는 소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군인들의 자녀를 2백명을 벌써 모아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건물들 짓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는데, 밥 커열스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월드 비전이 그 고아들을 맡아서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분이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갓대기에서 한국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월드 비전은 학교나, 병원이나, 가정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건물들을 짓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에는 댓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년에 삼개월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63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최대의 후회가 있다면, 내가 아버지를 잘 모르고, 아버지가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결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같으면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을텐데, 오늘 제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지참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거의 인구에 반인 30%이 하루에 2인 미만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에 갔을 때 아이들이 트레킹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무엇인가를 팔아서 양식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기억으로 어린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한국의 모습과 방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로 인하여 슬퍼하신 것입니다. 10억의 사람들이 지금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물이든지 있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과 의지가 있다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3천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영양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살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파란만 있다면 저들을 열을 떨어뜨려서 저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매 5초마다 저들이 굶주려서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예이제는 지구촌에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3천만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연도를 받은 것처럼 이 감염자가 4천만명이 지구촌에 걸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매 10초마다 아이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므로 고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2000년이 되면 통계에 의하면 4천만 내지 5천만명의 고아가 예이제로 인해서 고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저의 마음이 움직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보았을 때 마치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처럼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선적이신 분이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공물을 가지고 개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여러분이 이미 하신 일을 계속하실 것을 격려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는 저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월드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과 함께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가슴속에 불타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이 위대한 유산과 영적 재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과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상 기도
- 2) 헌금과 관고, 주기도문
- 3) 애전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특별: 허한정, 권오준, 김경희, 권기태, 권기훈
-방문: 육승호, 이원희, 이그레이스, 김만정, 이철라, 이상근, 송상현, 한해정

* 신유 특별 새벽기도회

-07.18(월)-21(토) -감사: Mikel French 외 교단 교역자

* 목장지도자/심방위원 세미나 -07.15(주) 맨하탄, 퀸즈2부예배 후

* 세례식 -08.26(주)

* 바나바 섬김이 만남 -07.15(주) 1:30pm, 5층 강의실

* 제38기 여름레시아 Reunion -07.15(주) 4:00pm, 5층 강의실

* 새가족 만남 -07.08(주)-29(주) 매주일 2:30pm, 5층 강의실

*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07.20(금)/21(토) 7:30pm, 22(주) 5:30pm 퀸즈한인교회 -감사: 오정현 목사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할렐루야대회의 장소에서 모입니다.

* 중보기도 용사를 모집합니다

-신청: 07.29(주)까지 안내석에서 -문의: 장태은 권도사

* 각 교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테말라(사담): 07.15(주)-18(수) 김남수, 주연중, 최성호, 장재원, 허진
-멕시코(화락): 07.17(화)-20(금) 김남수, 김홍재, 남은숙, 서현철, 김가원, 허광무
-브라질(스테반청년회): 07.20(금)-31(화) 임용수, 노현하, 장재성, 박준권, 이윤정
-여지현, 한아연, 정자용

* 청소년 글로벌 비전 여행 일정

-알래스카: 07.11(수)-07.21(금) -브라질, 파라과이: 07.15(주)-08.01(수)
-한국: 7.09(월)-8.03(금) -아프리카: 7.15(주)-8.03(금) -유럽: 7.11(수)-7.27(금)

* 고등부 Summer Program 모집

-내용: 디즈니월드, 인디애나폴리스 부흥회 -등록: 오늘까지 서점 앞, 12:45-1:30pm

* "Wild West" Promise Land Summer Camp

-08.29(주)-29(수) Christian Academy(NJ) -대상: 2학년-6학년(9월 기준)
-등록: 07.15(주)까지 \$150, 08.05(주)까지 \$180, 예배 후 식당 앞에서 1:30pm까지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08.20(월)-24(금), 베들레헤성전 -대상: K-6학년(9월 기준)
-등록: 08.12(주)까지, Free, 예배 후 식당 앞에서 1:30pm까지

* "Jesus Station" 스테반청년회 여름수양회

-08.09(목)-11(토) Christian Academy(NJ)

* (영)중고등부 학부모 모임

-07.22(주) 1:30pm, 6층 오른쪽 예배실 -문의: 유영숙 집사(917.701.6710)

* 혼두라스 의료선교팀 기도 모임 -07.15(22주) 1:30pm, 7층 사무실

* 이번 주일 기권별 모임 -오세선교회: 5층 2강의실

-해와선교회: 1:00pm, 8층 이사선교회실 -해와선교회위원회: 3:30pm, 7층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7.15(주)	07.22(주)	07.29(주)
최성식, 최우준, 허영무 장성순, 고영민, 차순태	권영환, 김관유, 김기성 김남규, 김성태, 김장훈	김재룡, 김정영, 김종철 나경식, 문준이, 민중기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888)

* 식당봉사교구 07.15(주)-양선교구/07.22(주)-소망교구/07.29(주)-충성교구

* 알립니다

-소망교구 김기복 성도의 부친 김관섭 성도께서 07.08(금) 소천하셨습니다.
-안내교구 임현옥 권사 가정의 김미란 양과 Moon 군의 결혼식이 07.08(화) Faith Evangelical Church에서 있었습니다.

-2부예배 후 아래층 식당 입구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습니다.

-제6권사회에서 중고등부 Vision Trip을 위해 \$800을 헌금해주셨습니다.

-Family Today 7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안내: 기도의 능력(D. M. 비문즈), 통찰과 예언(오정현), 영적 파트너십(헨리 볼락카비), 예수님처럼(맥스 루키도),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존 파이퍼)

-위대한 개척 선교사들의 생애(존 손베리), 김신희 자매 CD, 설교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헌금	주장 헌금
\$187,756.89	\$750.00(누계-180,137.56 까지)	\$14,241.00(누계-\$391,517.52)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퀸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30am 한국어학교	유아,유치,유초등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태반청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화번호	선교 국가	목장
사람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파테말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0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0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부리비아	14
소망	이창원 안수집사	718-961-5460	북부리비아	16
충성	최 종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7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7
말씀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1
온혜	김 청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9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92.9FM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가톨릭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88,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
영성
가족
교육
선교

주일에 배운서

사화: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 48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백민수 집사(권1)/김정영 집사(권1)/인병상 장로(권2)

찬양	성가대
----------	-----

【편】 능력과 영광 (사온성가대)

【편2】 주는 왕이시다 (예루살렘성가대)

특수	Love Gospel Mission Choir
----------	---------------------------

설교	설교자
----------	-----

【편1】 바울의 기도 | "엡 3:14-21" 김남수 목사

【편1】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 "렐 3:1-10" 김남수 목사

【편2】 Gol | "마 16:15" Bishop Ronald L. Bailey

【편은】 바다 이야기 | "욥 1:1-4, 15-17/21-2, 10" 김호성 목사

헌금	다같이
----------	-----

최숙희 집사(권1)/이영주 자매(권2)

광고	사회자
----------	-----

찬송	찬 308 장	다같이
----------	---------------	-----

축도	설교자
----------	-----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단	권 1 부	권 2 부	권 3 부(젊은)	
07/22	이강길 집사	김종철 집사	김영수 장로	사회자	
07/29	임일진 집사	나경식 집사	신정용 장로	사회자	
08/05	인병상 장로	문준이 집사	주연웅 장로	사회자	
08/12	장성수 집사	민준기 집사	김동욱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이주남	허연행	김명욱	백문형	Richardson French
사회	임용수	손영식	이영서	장세찬	허연행 김남수
기도	김종철	박병국	박원희	서성모	성관승 나경식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1.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 '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내가 매일 기쁘게" (찬407)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렐 3:1-10) 김 남수 목사

오래전 서대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앞에 자리를 깔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한 켤만 달라고 구걸하는 앓은병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앓은병이 같은 사람이 그날 수입을 다 용건 다음 자리를 깔고 힘겹게 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스파르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그 사람이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간다면 놀라운 축복과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나는 사람들이 안겨주는 돈 몇 톨 때문에 매일같이 돈 밖에 앉아있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래 된 베프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비문가에 앓은 앓은병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몇 톨의 돈을 구걸했을 때, 베프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자 그가 일어나서 걸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이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풍성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은해도, 은사도, 축복도, 능력도, 영생도, 예수님 이름 안에 함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기도생활이 마치 구걸하는 이 거지와 같이 매일 부엌을 얻어 먹을까하면서 스스로 알아나지도 못하는 앓은병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걸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적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우선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수많은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 등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았습시다. 아니, 우리의 기도보다 더 차원이 높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보다는, 무엇을 요청하고 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 왔습시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는 마치 성원 마몬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기도 달라고만 했습시다. 기도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기도가 잘못된 신앙도 잘못됩니다. 기도가 재지리결음을 하면 신앙도 재지리결음을 합니다. 기도와 차원이 업그레이드되면 신앙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면 10년을 믿어도, 20년, 30년을 믿어도,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앓은병이처럼 구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시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2) 바울이 기도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또 받게 하시고 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이미 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쓰게 하시옵소서', 라는 것이 그의 기도였던 것임

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의 풍성한 능력과 그 풍성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달라고 했습시다. 너무 많이 달라고 했습시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눈을 열어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와 정신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미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도 바울의 기도처럼 달라져야 할 줄 믿습시다. 주님이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하고, 찾아서, 알고 그 안에 주신 능력을 경이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또 사도 바울이 엡 3:14-15에서 기도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권하게 하옵시며" 라고 했습시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시다. 사실 우리는 걸 사람의 건강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뜰에 뛰는 악은 다 막습시다. 걸 사람은 해로운 음식을 조심하고, 문둥을 하면서 조심할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도록 되어있습시다. 그런데 걸사람은 건강하면 속사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빙마음이 강건해지고,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도 건강할 뿐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으로 빙마음이 강건해져서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죽음이 오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이어지는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라" 인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한번 오셨으면 영원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5)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찌함을 깨달아." 이것을 알게 하기를 구한다고 했습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삼을 캐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산삼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보려면 조용하게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깨어보면서 조용히 주님의 심자가 앞으로 가면,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세로위치게 될 줄 믿습시다.

6) "하나님의 종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년 아십년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미온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갇힌채로 무엇을 얻어먹을까, 무엇을 받을까, 생각 하면서 앉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신 많은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 찬미, 찬양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 3) 애간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 동쪽: 김사라, 신혜진
- 밤문: 육찬영, 이규진, 김송희, 이상순
- 세례식/헌아식 -세례식: (08.26(주)) -헌아식: (08.30(주))
- 새가족 만남 -07.08(주)-29(주) 매주일 230pm, 5층 강의실

제39기 에글레시아

-08.26(주)-29(수) -다락타: 백준성 장로(718.743.2674)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07.23(금)/21(토) 7:30pm, 22(주) 5:30pm 퀸즈한국교회
-주제: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라 -강사: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

중보기도 용사를 모집합니다

-신청: 07.29(주)까지 안내석에서 -문의: 장태은 전도사

D-12 Conference

-08.20(월) 22(수), 27(월)-30(목), 예루살렘성전
-자세한 내용은 www.d12usa.net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onduras Health Fair

-07.23(월)-07.27(금)
-장가자: 김남수, 최종환, 윤요나, 한현선, 고연이, 이승찬, 오용환, 홍대순,
이경숙, 이문용, 박혜순, 윤경애, 최상근, 주미선, 정정숙, 강영숙,
한조이스, 캄브라이언, 이무디아, 아레베카, Heidi Hayes

알래스카 여행 준비 모임

-07.29(주) 1:30pm, 중등부 예배실(6층오른쪽) -문의: 장태은 전도사(201.315.7897)

"Wild West" Promise Land Summer Camp

-08.26(주)-29(수) Christian Academy(NJ) -대상: 2학년-6학년(9월 기준)
-등록: (08.06(주)까지 \$180, 예배 후 식당 앞에서 1:30pm까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08.20(월)-24(금), 베들레헤성전 -대상: K-6학년(9월 기준)
-등록: 08.12(주)까지, Free, 예배 후 식당 앞에서 1:30pm까지

"Jesus Station" 스테이션년회 여름수양회

-08.09(목)-11(토) Christian Academy(NJ)

(영)중고등부 학부모 모임

-07.22(주) 1:30pm, 6층 오른쪽 예배실 -문의: 유영숙 집사(917.701.6710)

온두라스 의료선교팀 기도 모임

-07.15/22(주) 1:30pm, 7층 사무실

제1안수집사선교회 월례회

-07.29(주) 12:30pm, 8층 이사선교회실

제2안수집사선교회 월례회

-07.29(주) 1:00pm, 701호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7권사회: 7층 권사회실 -제3안수집사선교회: 5층 2강의실

파킹장 봉사자 명단

07.22(주) 07.29(주) 08.05(주)

권영환,김관유,김가성 김재현,김정일,김종철 박계근,박영옥,박창원

김남근,김성태,김정훈 나정식,문준이,민종기 박희도,박희식,박창근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영택 집사(718.877.8389)

식당봉사교구

07.22(주)-소망교구/07.29(주)-충성교구/08.05(주)-광강교구

알립니다

-Global Mission Network 설립의 사역을 위해 오늘 오후 본 교회 성가대가 브롱스
의 Love Gospel Assembly 교회를 방문합니다.

-Family Today 7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안내: 성경적인 기도(로. M. 바운즈), 스칼 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
(조이 도우슨), 때로는 삶이 비참(고든 맥도널드), 진장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목현홍), 켈러의 편지(프랜시스 켈러)

김선의 지혜 찬양 CD, The Brooks Brothers CD, 차세대를 위한 Conference
(소강석 목사, 스웨트 목사 등)/설교/성경공부 Tape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식 헌금 주 정 헌금

\$170,713.36 \$2,432.25(누계-109,866.56 회 분) \$13,369.00(누계-\$404,886.52)

예 배 안 내

	텐 하 탄 성 전	퀸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유아,유치,유초등부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페인어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찬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B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람	주 인 중 장로	201-491-1153	파테말라	16
회마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회관	하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심	이 용 찬 장로	718-886-7003	남몰라비아	14
소망	이창원 안수집사	718-961-5460	북몰라비아	16
충성	최 용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단자니아	1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알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상식 안수집사	914-260-3440	헝가리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이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주 일 에 배 순 서

사회: 하연형 목사(권1)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위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이장갑 집사(권1)/김종철 집사(권1)/김명수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주님이 이 손을 (사온성가대)

【권2】 오 신실하신 주 (여무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오직 예수 | “행 4:12” 김남수 목사

【권1】 | 이리로 올라오라 | “계 4:1” 하연형 목사

【권2】 | 바다 이야기 II | “골 3:15”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남성동창(권1)/김성희 자매(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0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면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조3부(공은)		
07/29	임일진 집사	나경식 집사	신정환 장로	사회자		
08/05	안병상 장로	문준이 집사	주안중 장로	사회자		
08/12	장성수 집사	민중기 집사	김동욱 장로	사회자		
08/19	강찬순 집사	박계근 집사	하의호 장로	사회자		
세백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하연형	손종원	임용수	손형섭	Richardson	김남수
사회	하연형	임용수	임용수	김성용	이영서	장세진
기도	송상규	유일용	이기석	이기영	이집부	이상주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하는' 목원들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뻐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오 신실하신 주" (찬447)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골 (막 16:15)

Bishop Ronald L. Bailey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기라" 하는 말씀은 앞으로 전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보이스 메일이나 다른 메일들을 보내면 우리보다 먼저 그 메시지가 가는 것처럼, 복음 또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 산 앞에서 가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 뒤로 처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외로움과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Ilene Abood(나 홀로 집에)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한 소년이 장에서 케어나 보니 온 가족이 유령으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버리고 자기 홀로 집 안에 남겨진 것을 알게 됩니다. 꼬마는 처음에는 아주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유럽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난생 처음으로 자에게 집안 외 최고책임자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한 어느 날 도둑이 침입하자 우아" 끝내 도둑을 내쫓는데 성공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가족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까하는 동시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가짜영화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처럼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집에게 가야합니다.

2. 두 번째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과 땀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땀을 흘린 다음에 말한 그대로 하면 말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특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 번째, 너희는 가서 "복음(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백인 교회도, 흑인 교회도 동일한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갈보라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거기서 원수는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의 죄를 전혀 담당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배를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으며, 그가 갈보라에서 무라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갈보라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이 승리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4. 설교와 경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몸 된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든 인종과 문화, 언어를 초월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 세계로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의 길거리에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복음뉴욕교회가 뉴욕시 안에서 Love Gospel Assembly 와 한 주님을 섬기며, 한 구주를 모시며, 한 하나님과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스캐너인 사람, 유럽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집에서 해방시키고 용서해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상처를 치료할 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좋은 소식과 함께 사람들에게서 서 같은 시간에 두 교회가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좋은 소식을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품과 나눔〉

1)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1) 통성 기도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3) 애찬

주일에배운서

사회: 정세환 목사(원)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 25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암일진 집사(원)/나경사 집사(원)/신정훈 장로(원)

찬양 성가대

【원】하나님만이 (시온성가대)

【원】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예루살렘성가대)

설교 설교자

【원, 원2】1 대 넘쳐도록 1 "엡 3:20-21" 김남수 목사

【원1】1 오직 예수 1 "행 4:12" 김남수 목사

【말은】1 선교와 순교 1 "막 6:7-13, 30-31" 김호성 목사

헌금 다같이

남성중창(원)/오케스트라(원)

광고 사회자

찬송 찬 303 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다음주일예배위원

	원 하 단	원 1 부	원 2 부	원3부(말은)		
08/05	안병상 장로	문준이 집사	주안중 장로	사회자		
08/12	정성수 집사	민중기 집사	김동욱 장로	사회자		
08/19	강찬순 집사	박계근 집사	하의호 장로	사회자		
08/26	김동재 집사	박병욱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김남수	허연형	허연형	Richardson	김남수
사회	김남수	손영섭	김성용	임윤수	이영서	장재환
기도	이성봉	이정진	이창연	이화연	이화용	장재환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뻐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또 찬양 '백(Worship)

1)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예수 이름으로"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오직 예수(행 4:12) 김남수 목사

지난 시간에는 성경 미문에 앉아서 일생동안을 구결하는 앉은뱅이 같은채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예수와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엄청난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알아서 사용하고 누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사람처럼 놀라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 속에 과연 어떤 축복이 있으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와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으로 대답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시인하면 옳고, 때때로 그렇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이라고 욕망이 출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이면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 좋은 데 갑니다." 하고 말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다 마음이 넓은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인류의 역사 이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 달, 바다 등을 다 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신이 아니고 다 귀신입니다. 권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참 신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불도 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내게 생명을 전달해주신 부모님은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구세주도 한 분이시고, 만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이름을 부르는 자 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번째, 예수와 이름은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음이라" (요 14:13-14). 지난 시간에 우리 조국 근대사의 7대 불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남과 북이 싸우면서 지내왔습니다. 더 비슷하지만 확실한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위(북한)에서는 신앙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아래(남한)에서는 이미 있는 신앙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새롭게 만든 종교는 주체사상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2000년 전부터 믿던 예수님 이름만 붙였던 것입니다. 1980년도에 세계선교대회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백만 명 이상이 모였습

니다. 그때에 10만 명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10만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지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셨더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2300년 사이에 750만 명의 한국인이 전 세계로 나아가 흩어져 살면서 누비고 있습니다. 골프채를 잡아본자가 20년 밖에 안 된 한국 사람들이 최근 5년밖에 전 세계에 나갔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와 이름을 믿고, 예수와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가는 곳마다 예수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와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와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분이 이미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야 합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주사유소서" 하지 말고 이미 주신 예수와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와 이름은 남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으니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 앉은뱅이가 일어나 기어 췌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와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오래된 뱀' '거짓의 아버지' 하고 했습니다. 건곤한 모사꾼이며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절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원수의 책략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쓰시고 편안하게 쓰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성령님, 나의 시간도 쓰십시오, 나의 물질도 쓰십시오, 나의 재능도 쓰십시오, 나의 가정도 쓰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쓰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우리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맡기면, 예수와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미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과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어떤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Edmond Steinhil, 신금희, 배광희 -방문: 이기복, 장지수, 이육자

* 세례식/헌아시

-세례식: 08.26(주) -헌아시: 09.30(주)

* 새가족 만남 수료자 명단

김진호, 김희자, 반대현, 반영옥, 김상식, 김창순, 권오준, 권영희, 박준기, 박지은, 강성경, 강형욱, 김세홍, 김재선, 양재봉, 김문수, 박형석, 신우란, 윤선경, 임미경, 이금민, 이종숙, 이향옥, 정지연, 채미경, 채오경, 한미수, 김사라, 서정재, 김영리, 이다혜(31명)

* 제39기 에클레시아

-08.26(주)-29(수) -다혜터: 박준성 장모(718.743.2674)

* 고등부 에클레시아

-08.19(주)-08.22(수) -문의: 김성용 전도사(718.321.7800, 917.533.6388)

-자녀들의 에클레시아를 위해 봉사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 평신도성서대학 신입생 모집

-초급반 개강: 09.11(목) 8:00pm, 5층 강의실 -등록: 08.26(주)까지
성경의 백을 체계적으로 배워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나아오르는 D-12 Conference

-08.20(월)-22(수), 27(월)-30(목), 여루살렘성전
-강사: 김성근 목사, 최재호 목사 등 www.d12con.net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ild West" Promise Land Summer Camp

-08.26(주)-29(수) Christian Academy(NJ) -대상: 2학년-6학년(9월 기준)

-등록: 08.05(주)까지 \$180, 예배 후 식당 앞에서 1:30pm까지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08.20(월)-24(금), 베들레헴성전 -대상: K-6학년(9월 기준)

-등록: 08.12(주)까지, Free, 예배 후 식당 앞에서 1:30pm까지

* "Jesus Station" 스테이션청년의 여름수양회

-08.09(목)-11(토) Christian Academy(NJ)

* Jesus Festival -08.06(토) 1:00pm, 여루살렘성전 -주관: 스테이션청년회

* 중국어 동호인 모임(기초반) -주일 1:30pm, 6층 신학교 강의실

* 이번 주일 기권별 모임

-아산신교회: 아산신교회 사무실 -제1권사회: 9층 왼쪽 방

-제2권사회: 9층 오른쪽 방 -제4권사회: 7층 권사회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8.05(주)	08.12(주)	08.19(주)
박계근, 박병욱, 박준권 박희도, 박희식, 박창근	봉용기, 서병, 서성모 서영주, 서병진, 윤규두	유일용, 이진우, 이기영 이길부, 이상주, 이재명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정연태 집사(718.877.8289)

* 성경완독자 조미자(사망) 5목, 고학선(화평) 3목

* 식당봉사교구 08.05(주)-평강교구/08.12(주)-일음교구/08.19(주)-은혜교구

* 알립니다

-미 하나님의교회(AG) 본부 총회가 금주인 Indianapolis에서 열립니다. 교단을 이끌어갈 새 리더 선출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Family Today 8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안내: 전능자의 그늘/영광의 문(앨리자베스 엘리엇) End of the Spear(DVD), 토마스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의 말말을 갖피플 18(김영필), 위대한 개척선교사들의 생애(존 손베리), 소명/생명(오스 가나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존 파이퍼) 김선희 자매 찬양 CD, The Brooks Brothers CD, 예배/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헌금	주정 헌금
\$125,082.40	\$584.00(누계-174,190.56 짜 분)	\$13,799.00(누계-\$431,795.52)

예 배 안 내

	행 하 단 성 전	캠 프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10:20am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어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태반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화번호	선교 국가	목장
시애틀	주 언 중 장로	206-461-1153	과테말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342	멕시코	8
화평	하 의 호 장로	206-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3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천 장로	718-886-7003	나미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말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1
일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9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8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상식 안수집사	914-289-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8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8921타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캠프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행하단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주 일 예 배 순 서

시와: 일용수 목사(편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양병상 장로(편1)/문준이 집사(편1)/주영중 장로(편2)

찬 양 성가대

【편1】가배 찬양예 (사온성가대)

【편2】너 십자가 군병들이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편2:2집은】(사도 바울의 편지) “엡 4:1-6” 김남수 목사

【편1】(더 넘치도록) “엡 3:30-21” 김남수 목사

성 찬 식 다같이

헌 금 다같이

Juliana Kim & John Suh(편2)

광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주일 간에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예배 경배(Worship)

1) 찬양곡: “내 주 예수님 넓고 큰 은혜는” (창408) “예수의 이름으로”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3. 말씀(Word): 더 넘치도록 (엡 3:30-21) 김남수 목사

최근에 서울에 한 교회에서 금요일에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교인들이 아멘도 잘 안하고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할 ‘오늘 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우리에게 혼란이 왔는데 그래도 기도하러 왔으니 오늘까지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긍휼과 자비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누리시면 된다는 것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에 인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비본질적인 방법을 버리고 본질적인 성경적 방법을 찾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와 축복과 기쁨과 소망과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첫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 하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무주의 신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태양계와 더 크고 태양이 두개 있는 은하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마냥 곳에 이렇게 태양이 두개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또 다른 우주의 한 끝머리를 발견했다. 는 보고서를 보니 주 하에온 하나님의 신비나 그 엄청난 넓이와 크기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2) 둘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여호와” 라든지 “하나님” 이라든지 “만군의 주” 라든지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도대체 무엇이 걱정입니까? 자식이 태어날 때 자기의 살아갈 일을 걱정하면서 태어나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구하기 전에 있어 될 것을 아시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나쁜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필요 없는 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해도 필요할 것을 주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해도 중요한 것을 주고, 나쁜 것을 달라고 해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구하기 전에 있어 될 것을 아시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그분입니다. 사람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돌아서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울고불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걱정을 하려면 죄 지을까봐 걱정해야 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도록 걱정해야 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죄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지난 시간에 영, 혼, 육 세 가지 중에서 돌아서 잡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혼)이 영과 혼이면 육체는 때리오게 되어서 성령충만한 영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혼)이 육과 붙어서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을 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중대한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싸이를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일은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입는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통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 혼, 육 이 셋이 늘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가자. 이 둘이서(생각과 육체) 동맹을 해서 반동을 일으키면 반드시 육체를 쫓아내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늘 성령충만 하면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슨 열려가 생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있는 중대한 충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달아 날마다 그분께 찬양하고 영원토록 감사를 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마음을 끝 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찬고, 주기도문
- 3) 대한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양단	찬조1부	찬조2부	찬조3부(집은)		
08/12	장성수 집사	만준기 집사	김동욱 장로	사회자		
08/19	강창순 집사	박계근 집사	허외호 장로	사회자		
08/26	김홍재 집사	박영욱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09/02	신정윤 장로	박준현 집사	김갑수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율	화	수	목	금	토
설교	일용수	하연형	하연형	일용수	신상균	김남수
사회	장세찬	손영섭	하연형	김성용	일용수	안진성
기도	권일필	장연백	조상열	최상식	함승민	홍승창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오영진 -방문: 이원호, 권기정, 권수자, 함정열, 신성균

* 세례식/헌아식

-세례식: (08.26(주)) -세례교목: (08.19(주)) 9:30am -헌아식: (08.30(주))

* 제39기 애클레시아

-08.26(주)-29(수) -디렉터: 박준성 장로(718.743.2674)

* 고등부 애클레시아

-08.19(주)-08.22(수) -문의: 김상용 전도사(718.321.7800, 917.533.6388)

-자녀들의 애클레시아를 위해 봉사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 PGM(평신도선교학교) 신입생 모집

-개강: (08.06(목)-11.29(목)) 8:00pm-10:00pm -문의: 유상용 전도사(718.219.9914)

김영호 집사(917.886.4005), 최진영 형제(201.693.7006)

* PGM 단기선교 모집

-탄자니아: (02.10.08(주)-02.16(토)) -인디안 보호구역: 2008년 7월(추후 발표)

-문의: 최경남 집사(646.239.6532)

* 평신도성서대학 신입생 모집

-조금만 개강: 09.11(화) 8:00pm, 5층 강의실 -등록: (08.26(주))까지

성경의 맥을 체계적으로 배워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날아오르는 D-12 Conference

-08.20(월)-22(수), 27(월)-30(목), 예루살렘성전 -등록: 예배 후 안내소에서

-장사: 김성곤 목사, 최재호 목사 등 www.d12usa.net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ild West" Promise Land Summer Camp

-08.26(주)-29(수) Christian Academy(NJ) -대상: 2학년-6학년(9월 기준)

-등록: (08.19(주))까지, 예배 후 식당 앞에서, \$180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08.20(월)-24(금), 베들레헴성전

* Jesus Festival -09.01(토) 1:00pm, 예루살렘성전 -주관: 스테이션교회

* 중국어 동호인 모임(기초반) -주일 1:30pm, 6층 신학교 강의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마리아선교회: 5층 2강의실 -제5권사회: 아사선교회실 -제6권사회: 7층 회의실

* 파킹장 봉사단

08.12(주)	08.19(주)	08.26(주)
봉양기, 서법, 서상모, 서영주, 석병정, 은규두	유왕윤, 이진우, 이가영, 이상주, 이재명, 이학열	이학용, 장일길, 장연태, 정원태, 조상열, 최우준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태 집사(718.877.8289)

* 성경만독자 이화순(충성) 2독

* 식당봉사교구 08.12(주)-민음교구(08.19(주))-은혜교구(08.26(주))-은유교구

* 알립니다

-화평교구 홍일선 집사께서 (08.10(금)) 소환하셨습니다.

-EM 신현태, 민경 성도 가정에 (08.06(월)) 나단(Nathan) 군이 태어났습니다.

-사랑교구 김성태 군과 김한나 양의 결혼식이 (08.11(토)) Russo's on the Bay에서 있었습니다.

-은유교구 이경철, 은진 성도 가정에서 Tom's Auto(자동차 정비)를 개업하셨습니다. 69-40 51 Ave. Woodside, NY 11377 (718.651.4300)

-Family Today 8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안내: 고통에는 뜻이 있다(육하룡),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래리 크랩), 영적

파트너십(헨리 블랙커버), 바람 끝에 서 있는 하녀(김준연), 하나님의

물성 우리의 선택(맥스 루케이도),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헨리

나우엔) 김산희 자매 찬양 CD, The Brooks Brothers CD, 예배/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야생급식헌금	주정헌금
\$152,108.62	\$797.00(누계-177,378.56 계 분)	\$13,533.40(누계-\$445,328.92)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퀵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10:20am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태인칼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화번호	선교 국가	목장
사랑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5-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열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성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볼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평화	최상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감람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안타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퀵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이교국과 선교
를 위한
선교 센터

주일에 배운서

사회: 허연형 목사(권1)

장래와친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25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장성수 집사(권1)/민중기 집사(권1)/김동욱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찬송하며 주와 함께 들어가리 (시온성가대)

【권2】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사도 바울의 권면 II | “엡 4:1-5” 김남수 목사

【권2】 사도 바울의 권면 I | “엡 4:1-6” 김남수 목사

【집은】 신앙과 조국 | “시 137:1-9”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최숙희 집사(권1)/이정애 교수(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편 하 단	편 조 1 부	편 조 2 부	편 조 3 부(집은)		
08/19	강창순 집사	박계근 집사	허의호 장로	사회자		
08/26	김충재 집사	박병욱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09/02	김명수 장로	박종현 집사	김갑수 장로	사회자		
09/09	노승범 집사	박지호 집사	백준성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일	화	수	목	금	토
설교	허연형	김남수	안진성	김남수	임용수	김남수
사회	장세찬	손영철	안진성	임용수	임용수	김성태
기도	강성순	고용원	김광열	권태수	김관용	김성태

금주 목장 모임 거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2) “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일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예배(Worship)

1) 찬양곡: 내 주 예수님 넓고 큰 은혜는(찬408) 예수님의 이름으로(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사도 바울의 권면 (엡 4:1-6) 김 남수 목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여러 주간 동안 읽고 하면서 그가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했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즉, 우리는 주로 ‘주님을 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미 받은 게 무엇인지,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눈을 열어서 그것들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미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 그 첫 번째 권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행동 하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시명자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부르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택하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개해야 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회개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는 헌신과 사명감이 확실히 될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하지 말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

은 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세계 선교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죽은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이런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받았고, 세계 선교의 사명도 받았습니까. 아멘에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 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나는 왜 오늘 이 밤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사명 의식과 소명 의식이 확실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전략과 전술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189개 5천안에 달하는 1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향후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세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람, 혹은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목사님, 지도자들에게 5분 내지 10분간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큰 감동을 받고,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으며, 왜 그런 일에 교회들이 눈을 뜨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일을 함을 모아서 하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같이 하자.’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랍니다. 온두라스만 해도 학교를 시작 할 때 하나 뿐이었습니다. 곧 학교가 두 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와 캠퍼사이드 장로교회와 연합해서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학교회가 최근에 대학을 구입하면서 하나를 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목사님도 목업을 하면서 하나를 세우게 되고, N조대학교에서 이미 또 하나의 학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10년 동안 수백개가 세워질 것입니다. 온두라스 전체 인구 7백4십만 명 중에서 2백만 명 어린이들을 우리가 10년 내에 돌본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바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직업을 하십시오. 주정 함금을 시작 한 것이 1월 첫 주일이었는데, 그 동안에 매 주마다 1월에서부터 100원에 이르기 까지 부지런히 내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431,735.50 나 되었습니다. 동전도 \$43,087.64원이 모아졌고, 그중에 \$29,000을 젊은이들이 단자녀와 에베소로, 온두라스, 그리고 남미의 역사로 기꺼이 돈을 가져다 가 아이들을 먹이고 쓰고 했는데도 \$14,087.64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동전을 빌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제나는 돈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요즘 제나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금년 후반까지 돌아와서 8월부터 5개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열심을 다 하고 헌정 정신을 모으는 앞으로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하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복을 받고 최선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즐거움을 외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두 번째 권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일을 하면서 안에 일의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밖에 큰 일을 할수록 안에서 잘 협력하고, 하나 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거나 이제 갓 믿은 사람이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간에 있습니다. 밖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안에서 일치 단결을 해야 되고, 열심히 서로 사랑을 하고, 화목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지만 파괴는 부정하고 싸우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야기는 둘 되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이 가정 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2령에 “모든 겸손과 은사로 하고...” 오래 말씀수록 성령 안에서 완전히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야기의 대상이 아니고 성령의 대상입니다. 감정을 야기를 떠나서 겸손과 은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 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다시 한 번 새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어떤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 1) 봉성 기도
-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은정희, 김은주, 김종현, Jewels, Deman, 안경자, 김용자
-동남: 황혜연, 김형숙, 안진선, 송가을, 오은숙, 송지은, 송정은, 송정은, 김성란
김동욱, 신정희, 유영희, 송영섭, 최선희

* D-12 Conference(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나아오세요)

-08.20(월)~22(수), 27(월)~30(목), 여부실업성전 -강사: 김성근 목사, 최재호 목사
-동쪽: 안나선, 오윤 미강 -저녁집회(8시)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목장지도자, C-12 멤버, 중보기도 봉사, 새가족위원 등 www.d12usa.net

* 세례식/언어시

-세례식: 08.26(주) -세례교과: 08.19(주) 9:30am -언어시: 09.30(주)

* 2007-2008 회계년도 재정위원

-담당: 안병삼 장로 -위원장: 한정진 안수집사 -부장: 홍승환 안수집사
-회계: 이영우 집사 -위원: 유정현 집사, 허진 집사, 박순봉 집사

* 제39기 여름레시아

-08.26(주)~29(수) -다락마: 백준성 장로(718.743.2674)

* 고등부 여름레시아

-08.19(주)~08.22(수)

* 한국어학교 기공식 등 록 안내

-동쪽: 08.19(주)/26(주) 안내식, 등록비 \$100(미금 후 \$120)

-대상: 5세부터(9월 기준) -문의: 등록 접수처, 한국어학교 사무실

* 믿음교구 중국(도문) 선교

-08.19(주)~21(목) -문의: 유재규 장로(516.698.1555)

* PGM(평신도선교학교) 신입생 모집/단기선교팀 모집

-개강: 09.09(목)~11.29(목) 8:00pm~10:00pm

-신입생 모집 문의: 유상용 평신도(718.219.9914), 최진영 형제(201.688.7006)

-단기선교: 탄자니아(02.10.08(주)~02.23(토)), 인디아 보호구역(2008년 7월)

-단기선교 문의: 최경남 집사(646.239.0322)

* 평신도성서대학 신입생 모집

-개강: 초급/중급 08.11(토) 8:00pm, 고급/모미사 08.10(월) -등록: 08.26(주)까지

성경의 핵심 체계적으로 배워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Wild West" Promise Land Summer Camp

-08.26(주)~29(수) Christian Academy(NJ) -대상: 2학년~6학년(9월 기준)

-등록: 08.19(주)까지, 예배 후 식당 앞에서, \$380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08.20(월)~24(금), 베들레헬성전

* (야)중고등부 수련회

-08.29(수)~09.01(토) Christian Academy(NJ)

-문의: 안진성 목사(646.775.1776) -등록: 08.26(주)까지 \$35, 이후에는 \$110

* Jesus Festival

-08.01(토) 7:30pm, 여부실업성전 -주관: 스테판한교회

* 바나바 성령이 모임

-08.19(주) 1:30pm, 5층 1강의실

* 제3안수집사선교회 정기총회

-08.26(주) 5:30pm, 김장일 집사 덕 -문의: 송상규 집사(516.890.4249)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모세선교회: 5층 2강의실

-예외선교회: 3:00pm, 7층 선교회실 -제3권사회: 1:00pm, 이삭선교회실

* 캠퍼스 봉사자 명단

-08.19(주) 08.26(주) 08.02(주)

유일환,이건우,이기영 이재명,이학열 이학용,장일팔,장연택 김성순,고용민,파윤재

이재명,이학열 정원태,조상원,최우준 권영환,김관유,김기성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주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8)

* 성경원도자

장미경(희락), 서봉희(자비)

* 신약통시교구

08.19(주)-은혜교구/08.26(주)-은유교구/08.02(주)-김제교구

* 안됩니다

-김제교구에서 AG 본부총회에서 비상인사행위원으로 재선(5선)되었습니다.

-안내교구 김형숙 집사의 부친 우영순 성도께서 08.13(월) 소천하셨습니다.

-안내교구 이주희 성도께서 Westchester에 "E & J Nail Pro"(914.725.5588)를 개업 하셨습니다.

-믿음교구 서성모 집사 가정에서 의료용품 Store "Silver Care"를 확장운영 하셨습니다. 150-05 Northern Blvd. 718.359.5600

-EM 신현대, 민경 성도 가정에 08.06(월) 나단(Nathan) 군이 태어났습니다.

-Family Today 8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민(내: 인간의 일생(이재철), 우리가 알지못한 것을 깨닫자(C. S. 루이스), 우리

가 사모하는 공동체(이동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홍성진), 아담의 침묵(대리

크림), 김성희의 자애 찬양 CD, The Brooks Brothers CD, 예배/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식 헌 금 주 장 헌 금

\$160,231.48 \$741.00(누계-180,342.56 개 분) \$13,631.00(누계-\$458,959.92)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경	콘 즈 성 경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영어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태판한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IN)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시당	주 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희원	허 의 호 장로	3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5-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05	에콰도르	12
양성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90	북몰리비아	15
충성	최 종 선 장로	631-277-5882	페루	10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9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질재	최상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8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2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콘즈 성전: 130-30 13th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명예단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1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세계 선교 센터

1100 13th Ave, Flushing, NY 11354

주 일 예 배 순 서

사화: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194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강찬순 집사(권1)/백계근 집사(권1)/최의호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네 사랑을 당해 (사온성가대)

【권2】 사람들은 주가 필요해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권2】 「사도 바울의 권면 III」 「엡 4:17-24」 김남수 목사

【권1】 「사도 바울의 권면 II」 「엡 4:11-16」 김남수 목사

【권2】 「만족의 율타리를 넘어」 「롬 10:9-15」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사온남성성가대(권1)/정성진 집사(권2)

광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 일 예배위원

	찬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권은)		
08/26	김홍재 집사	박병욱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09/02	김영수 장로	박중현 집사	김갑수 장로	사회자		
09/09	노승범 집사	박지호 집사	박준성 장로	사회자		
09/16	박민수 집사	박희도 집사	유재규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임용수	김남수	허연형	허연형	Richardson	김남수
사회	장재환	손영섭	안진성	허연형	이영서	김성용
기도	김영호	김영환	김왕식	김장훈	김재룡	김정일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1.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복음을 환영

“일 칸의 삶과 신앙(기쁜일 일, 감사일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로 시작해 경배(Worship)”

1) 찬양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51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사도 바울의 권면 (엡 4:11-16) 김 남수 목사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 아래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앉으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전부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미 주신 그 축복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그 엄청난 기업을 보게 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레소서 13절에서 보면 빌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천송하리코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도...”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엡1:4-5). 왜 선택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2:8) 형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 할 수 없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충성함을 누리”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무라날 수 있도록 해 영광을 돌려야지, 늘 부족한 것처럼 달리고 아무성을 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차원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대해서는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한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죄를 지으라고 부르지 않고 죄 가운데서 건져서 죄에서 해방되어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을 간재라고 부르셨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간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18억 5천명의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거리마다 가게마다 기생충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온통 병든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크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 23년 동안 희생된 미군의 숫자가 3천명이 넘는데, 같은 기간에 과테말라에서 경단의 총으로 희생된 사람이 21,000명입니다. 1년에 약 7,000명씩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 경단이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까? 부모도 학교도 정부도 교회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 길거리에서 나와 있는 거지같은 아이들을 집단들이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이 나라가 경단의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

부도 손을 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데려다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에 가르치거나 경들이 데려다가 자기들의 재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데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제라도 우리가 돌보자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려면 전 교회가 달라붙어서 네크워킹을 만들어서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이 지구촌에는 진정한 평화와 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축복을 인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안하고 앉아서 계속 더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부르심과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아들이 더 축복이 됩니다. 감사하면 더 주십니다.

바울이 권면한 또 한 가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자신의 분수에 만족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로 감사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이상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양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르지만 싸우지 말고 믿는 것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싸우게 하는 영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성령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친구 원수가 따로 없는 세상입니다. 내게 유익하면 어찌의 원수도 오늘 다 친구이고 무익하면 다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서는 다 친구고 형제요 자매요 교회도 교단도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화목하고 용납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고, 개인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요 목표입니다. 마귀는 와서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고, 끊임 없이 싸우게 하지만, 우리는 연합 할 때 힘이 생기고, 사랑 할 때 힘이 생기고, 힘을 모을 때 더 큰 힘이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번 싸움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면 빨리 정리하여 화목하게 하고, 빨리 치료하여 낫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으면 마귀의 음모로 알고 빨리 수습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해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어떤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IV. 사역(Work)

1) 통성 기도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이성민, 이모세, 이아사, 이호필, 이윤영, 이태영, 이갑영
-방문: 심정애, James Kwak, 문윤희, 김화춘, 고승일, 고계희, 오광섭

•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9월 매주 토요일 5:30am

• D-12 집중훈련 세미나

-08.27(월)-30(목), 예루살렘성전 -강사: 최재호 목사(서울성경교회)

• 세례식/언어식

-세례식: 08.26(주) -언어식: 08.30(주)

• 제39기 애틀랜시아

-08.26(주)-28(수) -디렉터: 박준성 장로(718.743.2674)

• 이삭선교회 장학생

-박세은, 권슬아, 이승은, 이충훈, 정자윤, 장수진, 정재호, 김정우, Anne Park
Jasmine Cho, Ronald Kang, Daniel Lee

• 한국어학교 가을학기 등록

-등록: 08.19(주)/23(주), 안내식, 등록비 \$100(마감 후 \$120)
-대상: 5세부터(9월 기준) -문의: 등록 접수처, 한국어학교 사무실

• 믿음교구 중국(도문) 선교

-08.16(주)-27(목) -문의: 유재규 장로(516.698.1555)

• PGM(평신도선교학교) 신입생 모집/단기선교팀 모집

-개강: 08.06(목)-11.29(목) 8:00pm-10:00pm
-신입생 모집 문의: 유상용 장로(718.219.9914), 최장영 형제(201.693.7006)

-단기선교: 단자나아-02.10.08(주)-02.23(토), 인디안 보호구역-2008년 7월
-단기선교 문의: 최경남 집사(646.239.6532)

• 평신도성서대학 신입생 모집

-개강: 초급/보아사-08.11(화) 8:00pm, 중급/고급-08.10(월) -등록: 08.26(주)까지
성경의 맥을 체계적으로 배워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Wild West" Promise Land Summer Camp

-08.26(주)-29(수) Christian Academy(NJ)

• (한)중고등부 수련회

-08.29(수)-09.01(토) Christian Academy(NJ)

-문의: 안진성 목사(646.775.1775) -등록: 08.28(화)까지 \$95, 이후에는 \$110

• Jesus Festival

-08.01(토) 7:30pm, 예루살렘성전 -주관: 스테반청년회

• Social Service

-매주일 9:45am-10:30am, 9층
병원, 매디케어, 매디케이드, 노후대책, 노인어파식 신청 도와드립니다.

• 알래스카 여행 준비모임

-08.26(주) 2부예배 직후, 6층 (영)중등부예배실

• 이삭선교회 정기총회

-09.06(주) 1:00pm, 이삭선교회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1안수집사선교회: 1:00pm, 8층 이삭선교회실
-제7경사회: 7층 경사회실 -제2안수집사선교회: 1:00pm, 7층 회
-제3안수집사선교회: 3:30pm, 김정열 집사택(송상규 집사 516.860.8249)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8.26(주) 09.02(주) 09.09(주)
이하윤,장일필,정연택 강성순,고용민,자유태 김남근,김성태,김정훈
정원태,조상일,최우준 권영환,김관유,김기성 김재홍,김정열,김종철

• 의료위원회의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정연택 집사(718.877.8289)

• 성경완독자

-서봉희(지리), 정미경(회화), 이화숙(총서) 2독

• 식당봉사교구

-08.26(주)-은유교구/09.02(주)-팔레교구/09.09(주)-사랑교구

• 알립니다

-Family Today 8월호가 나왔습니다. 정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안내: 깨끗한 고책(김동호), 평범 이상의 삶(존 오버버그, 한/영), 좌절된
꿈의 치유(씨앤즈), 모험으로 사는 인생(폴 부른나에), 갈매기의 꿈(리처드
바크), 담임목사님 설교 Tape/지서, 주일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헌금	주정 헌금
\$152,576.36	\$740.50(누계-183,304.56 까지)	\$12,758.00(누계-\$471,717.92)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평 하 탄 성 전		원 즈 성 전	
	1부	8:30am	1부(영성) 장년성경공부	8:30am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영어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유년,초등부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	8:30am 10:30am	중,고등부(한.영)	10:30am
	한국어학교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테반청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창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목장
사랑	주인종 장로	201-691-1153	파라과과	15
회화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회화	최 의 호 장로	201-568-08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창 장로	718-89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창원 안수집사	718-961-5490	북볼리비아	16
충성	최 종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0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단자나아	1P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957	베네수엘라,중국	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3-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알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5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마주카복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섬터	토 6:30am

원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평화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원즈 성전과 평화탄 성전
김남수 목사님

주 일 예 배 순서

시화: 하연형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304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김홍재 집사(권1)/박병욱 집사(권1)/최성호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능역 (시온성가대)

[권2] 주 안에서 늘 담대하라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새활을 아끼라] "엡 5:14-21" 김남수 목사

[권2] [사도 바울의 권면 III] "엡 4:17-24" 김남수 목사

[권2.3] [대언의 능역] "렘 37:1-14" 김성곤 목사

헌 금 다같이

Juliana Kim & John Suh(권1)/박민정 지매(권2)

세례식 다같이

광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 일 예배위원

	찬 하 할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말은)
08/02	김남수 장로	박준원 집사	김갑수 장로	사회자
08/09	노승범 집사	박지호 집사	박준성 장로	사회자
08/16	박민수 집사	박희도 집사	유재규 장로	사회자
08/23	이강길 집사	박희식 집사	하재원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말	화	수	목
설교	임용수	김남수	김남수	하연형
사회	임용수	손영섭	이영서	하연형
기도	김종철	김홍재	나경식	박병욱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을 환영

2) 의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날,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경배(Worship)

1) 찬양곡: "내 구주 예수를 대속 사랑" (찬11) "내 주의 나라와" (찬28)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사도 바울의 권면 III (엡 4:17-24) 김 남수 목사

우리는 그 동안 열심히 밖의 일에 힘썼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살피고, 발견된 문제점을 연구하고 보완하면서, 곳곳에 많은 학교를 세워 현재 약 1만 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마 수년이 지나면 남아, 아프리카, 세계 여러 나라에 네트워크와 함께 확산 될 것이며, 그런 일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세계 선교를 이루기 하는 일에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밖에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밖의 일과 안의 일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밖의 일이 중요하듯이 안의 일도 중요합니다. 밖의 큰 일이 중요하듯이 안의 작은 일도 중요합니다. 밖의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안에서 작은 일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의 일은 곧, 밖의 일과 연결 되어 있으며, 큰일은 안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의 일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밖의 큰일을 잘 한다는 것이고, 안의 일은 밖의 일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작은 일들이 밖에 중요하고 큰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안에서 작은 일, 그리고 실제적인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하나 한 시간 이상 기도 하라. 선교는 영적 전쟁이므로 기도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세계 선교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안의 전쟁과 밖의 전쟁, 기도 전쟁과 실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없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케하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엡6:10-12) 큰일을 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큰일을 하고 살려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무조건 한 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일과 세계적인 일을 감당한다는 확신과 책임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물 - 두 사람 이상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 선교라는 큰일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는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일 년에 3천여만 불의 선교 헌금을 보내는 등 세계 선교에 아주 많이 힘쓰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니 지난 2-3년 동안 전 선교사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에 비해 미국 내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한국, 스페인, 필리핀, 필리핀 사람 등 소수민족 사람들은 28% 증가한 데 비하면 미국 교회들은 28%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밖의 일에 힘쓰는 동안에 미국 안에서 교인이 줄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만 관심을 쏟아 부었지 국내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해외 선교에 힘쓰는 만큼 국내선교에도 힘써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전도 운동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끼리 초청전체 하던 형식을 수정하여 11월 11일 11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스페인이 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초청 잔치를 갖고, 그 다음 주일에 우리 이웃에 있는 한인들을 초청하여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큰일을 하고 내가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셋 - 세 가지 축복을 찾아내라지 마십시오. 실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나의 생명을 포함하여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재산과 나의 재능을 주권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농사를 지어 이삭을 벨 때에 한 부분을 남겨 두어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먹을 것이고, 그 곡도임을 벨 때에 나머지 남겨 두면 자기가된 나그네와 객들이 와서 파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쓸을 것이 없도록 남치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 복을 주리라, 너희 내 자손들에게 축복하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아도 우리 교회는 별로 내세를 게 없지만 많은 분들이 순복음뉴욕교회 하면 뉴욕에서 제일 많이 축복 받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코드 때문입니다. 실업자와 고아 급식 현금,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을 돌보는 주정현금 이 세 가지를 축복의 코드 삼으시고 계속해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4)넷 - 성경을 하루에 4장 이상 읽으십시오. 성경이 1,188장이므로 하루 4장씩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일 년에 한번을 못 읽으면 십년을 기도 한번 못 읽습니다. 밖에 나가 아무리 큰일을 해도 나중에 보면 큰일을 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보다는 자기 의견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를 끌고 가게 해야지, 내 생각이나 전통이나 주관이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다섯 - 5년 이상 교회에 나온 분들은 서로 서로 잘 살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서로 오래 사귀다 보면 허물도 드러나고 또 스스럼없이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래 될수록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성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듬듯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꾸 불이려고 하고 마귀는 자꾸 가뜨려고 합니다. 성령은 화목하게 하지만 마귀는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갓 오신 분들은 오래 성가신 분들을 볼 때 이 교회를 여기까지 만들려고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수고 했는지도 인정하고, 오래되신 분들은 갓 오신 분들을 잘 격려해서 하나가 될 때에 세계 선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6)여섯 - 목적인 봉사입니다. 오래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큰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많아 보면 일하는 사람만 쫓도록 알고 다른 이들은 다 팔려만 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책임 있게 일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다 쓰러집니다. 무엇을 하든 해도 책임감 있게 하고 열정과 관심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자랑스러운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마땅히 마십시오. 몸으로 배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제쳤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몸을 제쳐 드립시다.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함께 영공순환 훈장과 지함스런 연류권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찬양과 경배(Worship)

(작품과 나눔)

1)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이런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세

요.

IV. 사역(Work)

1) 통상 기도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3) 예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최재선, 최경숙, 노석영, 장기남, 박성혜
-방문: 김준희, 김보애, 김희용, 김계민, 안현주, 배준태, 배수진, 배수빈

■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9월 매주 토요일 5:30am
-현아씨 (09.30(주) 콘웨스트교회 시
-교육: 09.29(주) 1:00pm, 2층 강아실 -문의: 박명숙 집사(201.337.8822)

■ 새례자 명단

김은숙, 김지연, 박선희, 이종순, 정지연, 최현신, 한혜진, 허혜균, 김가연, 윤자혜
박현석, 서광석, 상영진, 심정환, 황용근, 허혜민, 안재현, Sophia Kym, Sigi Kim
Sarah Jeon, Echelle Cho, Jasmine Jang, Gina Chan, Lauren Chang, Sarah Song,
Eunjee Sung, Sharon Kang, Timothy Kim, Joshua Kim, Samuel Hwang

■ 제39기 예클레시아 Reunion

-09.02(주) 4:00pm, 5층 강아실
-민음교구 중교(도문) 선교
-09.18(토) 28(일) -문의: 유재규 장로(516.898.1555)

■ PGM(평신도선교회) 개강예배 및 단기선교팀 모집

-개강예배: 09.06(토) 7:30pm, 6층, 저녁식사가 준비됩니다.
-대상: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선교위원
-개강 분: 유상용 장로(718.219.9141), 최진영 형제(201.633.7006)
-단기선교: 탄자니아(02.10.06(주)-02.23(토)), 인디안 보호구역(2008년 7월)
-단기선교 분: 최경남 집사(646.230.6532)

■ 평신도성서대학 개강

-초급/중급: 09.11(토) 8:00pm -중급/고급: 09.10(월) 8:00pm

■ Social Service

-매주일 9:45am-10:30am, 9층
-병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노후대책, 노인아파트 신청 도와드립니다.

■ 실업인선교회 주최 제6회 사립학교 기금모금 골프대회

-09.20(일) Pelham Split Rock Golf Course -문의: 김종석 장로(917.648.0488)

■ 뉴욕/뉴저지 어머니학교

-09.24(월)/09.25(화)/10.04(수)/10.04(목) 6:00pm-10:00pm, 뉴욕거리교회(L.L.)
-강사: 이기복 교수 -문의: 박명숙 집사(201.337.8822)

■ 디모테/다니엘선교회 성경공부 1/II

-매주일 1:30pm, 6층 중등부예배실 -매주일 3:30pm, 셋째바례성전
-회락교구 연합예배 -09.19(주) 1:00pm, 5층 강아실 식사가 준비됩니다.

■ 이삭선교회 정기총회

-09.09(주) 1:00pm, 이삭선교회실
-제4권사회 월례회 -09.09(주) 1:00pm, 7층 관사회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1권사회: 9층 왼쪽 방 -제2권사회: 9층 오른쪽 방

■ 파킹장 봉사자 명단

09.02(주)	09.09(주)	09.16(주)
강성순, 고영민, 곡윤태 권영환, 김관유, 김기성	김남근, 김성태, 김정훈 김재룡, 김정열, 김종철	나경식, 문준이, 만중기 박계근, 박영옥, 박종현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자자 201.491.6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완독자

김문자(송성) 09.02(주)-절제교구/09.09(주)-시랑교구/09.16(주)-인내교구

■ 알립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일정은 달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구 임현자 집사의 부군 임현 집사께서 08.25(토) 소천하셨습니다.
-민음교구 김권호 형은 집사 가정에 08.25(토) 회진 양이 태어났습니다.
-소망교구 김민호 집사 가정에서 25-43 Parsons Blvd.에 "Promise Cleaner"를
개업하셨습니다. 718.961.9271
-Family Today 8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안내: 심기는 삶은 이처럼 아름답다(찰스 스윈들, 한/영), 켈빈 이상의 삶
(론 오트버그, 한/영),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고든 맥도날드, 비밀)를
부르나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헨리 블랙버), 설교/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헌금	주정 헌금
\$196,193.29	\$700.00(누계: \$84,831.88 개 분)	\$12,886.00(누계: \$485,107.42)

예 배 안 내

	덴 하 탄 성 전	콘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페인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D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시랑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파라과이라	16
회락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9342	멕시코	8
회락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5-7435	도미니카공화국	13
재미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86-7003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몰리비아	16
송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862	페루	11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30
민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8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상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 로 그 램 명	방송일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성터	토 6:30am

콘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881, Fax: 718.321-9394
평화헌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대학
성경대학

성경대학

주 일 예 배 순서

시화: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359 장 다같이

대포기도 말씀이

김명수 장로(권)/박종현 집사(권1)/김갑수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구원 (시온성가대)

[권2] Sing and Rejoice!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권2] [새물을 가져라] "영 5:14-22" 김남수 목사

[권1] [정원 가리] "빌 3:7-9" 임용수 목사

성 찬 식 다같이

헌 금 다같이

만나갈 자매(권)/김아영 자매(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03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2) 아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뻐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경배(Worship)

1) 찬양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511) "예배예배 하나님" (찬)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무릎한다.

III. 말씀(Word): 대언의 능력(골 3:1-4) 김성곤 목사

우리 헌법 생각 해 보십시오. 순복음유니온교회의 건물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순복음유니온교회라는 말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파도가 잠잠해진 사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파도가 잠잠 하라"는 말이 먼저였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사건, 어떤 기적보다도 항상 말이 먼저입니다. 어떤 헌신보다도 항상 말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토양에 떨어지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요1:1-4).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창조의 생기인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의 생기이십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 하실 때에 창조주 이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곳에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 하시므로 온 우주가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별래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요6:63).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은 사역하십니다. (눅4:8). 예수님께서 방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표징과 기사를 행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행11:38) 이처럼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가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뒤집어 집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 모든 사단의 계교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말씀하실 때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리사대 너희에게 권장이 있을찌어다 여러자에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21)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송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을 사도들에게 위임한 뒤에 사도들이 말씀하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에게 "니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 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행3:6-8) 사도 바울이 말씀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행18:18, 19:46) 복음의 말씀이 증거 되는 곳마다 100%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요14:26, 요일2:20). 말씀은 성령의 반계감입니다.(엡6:17) 성령께서 말씀의 감을 휘두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의 감을 따라서만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4:12)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씀의 운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가 함께 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수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골짜기 사방에 있는 모든 바위에 창조와 말씀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예수께 선지자는 순종을 해서 모든 바위에 창조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에 바위가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이 바, 저 바가 서로 끌어맞아서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생가에게 창조의 말씀을 말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 선지자는 생가에게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9절) 이에 그 바위는 큰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 하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재주를 지금 끌어 주십니다.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선포하므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에 떨어지고 참에 떨어지므로 우리가 회사를 받았습시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보장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행혈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마17)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헌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으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으므로 성령이 역사하므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은 땅이나 큰 땅이나 다 고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바로 역사하십니다.(사40:1) 내일이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어느 날 볼 만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포할 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넘치게, 부요함과 풍성함이 넘치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말씀이 지금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고후9:8)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날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지금 바로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보호 하십니다. 주님이 소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일정한 부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8-41절 이 말씀이 지금 선포 되었으므로 순복음유니온교회에 성령께서 기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가까우게서나 먼 데서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빛을 발하므로 수많은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인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총체적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이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만 아니라 사방에 복음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미국 땅 뿐만 아니라, 북한과 열방 곳곳에 큰 빛을 지금부터 더 강하게 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선포했을 때 빛이라는 실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허상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 3) 애찬

다음주일 예배위원

	맨 하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공은)		
09/09	노승범 집사	박지호 집사	백준성 장로	사회자		
09/16	박만수 집사	박희도 집사	유재규 장로	사회자		
09/23	이강길 집사	박희식 집사	하재원 장로	사회자		
09/30	임일진 집사	봉용기 집사	김종복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일	화	수	목	금	토
설교	임용수	하연형	하연형	김상래	임용수	안진성
사회	임용수	하연형	하연형	김상래	임용수	안진성
기도	성환승	송상규	유일용	이기석	이기영	이길부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조여정, 김사라, 이해진, 감종재, 서용미, 김경우, 김만우, 김현식, 김수현, 이현복, 아숙래
-남쪽: 홍순남, 김연길, 김용원, 최대식, 감종숙, 임순철, 윤숙근, 임예슬, 임도영, 이미진, 차문진, 김문태, 김장숙, Chang Hong Tu
-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9월 매주 토요일 5:30am
- **한아식** -08.30(주) 켄즈2부예배 시
-교목: 08.23(주) 1:00pm, 2층 강의실 -문의: 박명숙 집사(201.337.8822)
- **제직회** -제직회: 08.28(금) 금요일에 후
- **만용교구 중국(도문) 선교**
-08.18(화)-28(금) 유재규, 유정현, 유일용, 장영하, 조인수, 김브리아언, 이정진
- **PGM(명신도선교학교) 단기선교팀 모집**
-단기: 08.10(주)-08.23(토) -안디안 보호구역: 2008년 7월
-문의: 최경남 집사(848.238.6532)
- **평신도성서대학 개강**
-초급/모사스 (08.11(화) 8:00pm -중급/고급: 08.10(월) 8:00pm
- **Social Service** -매주일 9:45am-10:30am, 9층
-병원, 메디케어, 메디케어, 노후대책, 노안아파트 신청(신청서류 지원하신 분에 한함) 도와드립니다.
- **(영)중고등부 학부모 모임**
-08.18(주) 12:45pm-1:15pm, 6층 중등부 예배실
-문의: 유명숙 집사(917.701.6710) 간단한 다과가 준비됩니다.
- **실업안선교회 주최 제6회 사립학교 기금모금 골프대회**
-08.17(월) Pelham Split Rock Golf Course -문의: 김종식 장로(917.648.0488)
- **뉴욕/뉴저지 어머니학교**
-08.24(월)/08.25(화)/10.03(수)/10.04(목) 6:00pm-10:00pm, 뉴욕감리교회(L.I.)
-강사: 이기복 교수 -문의: 박명숙 집사(201.337.8822)
- **어머니교실**
-매주 수요일 10:30am-1:00pm, 유아부 예배실 -내용: 성경공부, QT, 찬양/유희
-문의: 이연수 집사(848.241.8855) 아이들과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 **디모데/다니엘선교회 성경공부 1/II**
-매주일 1:30pm, 6층 중등부 예배실 -매주일 3:30pm, 셋째마네성전
- **희락교구 연합예배** -08.18(주) 1:00pm, 5층 강의실 식사가 준비됩니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아삭선교회: 1:00pm, 아삭선교회실 -제4권사회: 1:00pm, 7층 권사회실
-제5권사회: 5층 1강의실 -제6권사회: 7층 예술러시아실
-미리아선교회: 5층 2강의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8.09(주))	(08.16(주))	(08.23(주))
김남균,김성태,김정훈 김재봉,김정열,김종철	나경식,문준이,민준기 박계근,박영옥,박종현	박희도,박희식,박영근 서범,서범정,윤규우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8)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201.491.6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원독자** 흥정회(절재)
- **식당봉사교구** 08.09(주)-사립교구/08.16(주)-안네교구/08.23(주)-자비교구
- **알립니다**
-관각교구 이병재 집사 가정의 진희 양과 박재이 군의 결혼식이 08.01(토) Crest Hollow Country Club(L.I.)에서 있었습니다.
-Family Today 9월호가 나왔습니다. 권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안내: 한 길 가는 순례자(유정 피터슨),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무명의 그리스도인), 미션 퍼스펙티브(예수권도단), 삼김형 인간(미타니 아쓰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현의 블랙키미) 설교/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헌금	주정 헌금
\$235,450.77	\$1,009.00(누계-288,867.88 제 분)	\$13,189.00(누계-4498,296.42)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켄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1부(영산)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영어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omise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페인어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근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원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회락	김종재 안수집사	917-633-0002	멕시코	8
회평	허 외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네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05	에콰도르	12
오산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부러리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80	북부러리아	15
충성	최 종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1
관각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9-2874	엘살바도르,케냐	7
팔레	최성식 안수집사	914-29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디펜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켄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1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www.promise.org
김남수 목사님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248 장 다같이

대포기도 말은이

노승범 집사(권1)/박지호 집사(권1)/박준성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나의 갈 길 다 가도복 (시온성가대)

[권2] 시온성 돌아온다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권2] [강한 요새] "고후10:3-5" 하연형 목사

[권1] [세월을 아끼라] "엡5:14-21" 김남수 목사

[권은] [가정과 기만의 비뺀담] "렘21:4, 계18:1-5"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최수연 집사(권1)/최남수 집사(권2)

광 고 사회자

찬 송 God Bless America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편 하 단	권 1 부	권 2 부	권3부(권은)		
09/16	박만수 집사	박희도 집사	유재규 장로	사회자		
09/23	이강길 집사	박희식 집사	하재진 장로	사회자		
09/30	임일진 집사	봉용기 집사	김종복 장로	사회자		
10/07	주연중 장로	서 범 집사	이용찬 장로	사회자		
재박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임용수	하연형	임용수	안진성	Richardson	김남수
사회	임용수	하연형	임용수	안진성	이영서	김성용
기도	이성봉	이정진	이창원	이학용	장재원	정일필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일 간의 삶과 신앙(기뻐한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예배 경배(Worship)

1) 찬양과: "아침 해가 뜨들 때" (전208) "여기에 모인 우리" (복)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명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세월을 아끼라(엡 5:14-21) 김 남수 목사

바울의 기도에서 이어서 그의 권면이 주어지는데, 첫째 권면은 너희가 부끄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 권면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하는 것이고 오늘 다들 세 번째 권면은 시간, 곧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많은 시간을 소중하게 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지혜롭게 잘 사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나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도 낭비하면 안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매 없는 어들의 일을 참에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조금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1. 첫째, 모든 기회를 최대함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나의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 불행하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기억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망각의 은사도 받아야 합니다. 나쁜 것은 자주 잊어버려야 되고 좋은 것들은 자주 기억해야 하는데 가끔은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전부 기억해 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다시 구정들이 올라와 도로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것은 기억하게 하시고, 어두운 과거나 괴로운은 기억 나지 않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오늘 한 날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잘못하면 악한 일에 쓰기 쉽고 나쁜 일에 쓰기 쉽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쓰면 시간은 똑같이 지나갑니다. 요즘 인터넷 텔레비전 휴대폰 등 각종 미디어 매체들과 세상 놀이 등이 우리의 눈과 시간을 빼앗아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다섯 가지 중요한 일을 숫자를 붙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 한 시간 이상 기도하기. 두 번째, 두 사람 이상을 전도하는 것. 그중에 하나는 외국인이고 그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 세 번째, 십일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 안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 중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를 돌보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고아를 돌보는 것과 떠돌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해서 세 가지 이상의 축복 받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루에 네 장 이상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 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사람일수록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차와 뒷 차가 부딪히는 사고는 자주 일어나지만 옆 차 하고는 잘 부딪히

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의 있게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갈등이 생길 요소가 있을 때에는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육신적으로도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 혼, 육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준다는 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하려면 바쁩니다. 그러나 이것에 바쁜 것이 낮지 놀라 다니고 흔들리는 것에 바쁜 것보다 낫습니다.

3. 마지막으로 과거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속박이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데굴데굴 자살하고 풀어 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훌륭하고 또 아름다운 아이기들입니다. 다행히 1999 전원이 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두 분은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1999년에 집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한구 4명과 함께 다섯 명이 엘리트도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가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부족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마을에 성물을 미리 먼저 놓고 친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66년 1월 8일에 다섯 명이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라이프 자에서는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이들의 죽음을 대해서 썼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엘리엇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수행한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 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두 번씩 전하니까? 한 번도 못 들어 본 사람들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치 없는 인간이 한번 불타서 그들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게 하옵소서,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해야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이라크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시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젊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예나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뜻을 찾아서 작은 일, 큰 일, 좋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과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이 주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김문태,김정숙,김 진,민신자,박은아,박현미,박찬호,박은주,이현복,이숙재
-남쪽: 김수경,안근영,박은희,이민영,이경숙,윤희경,Jose Aurelio,Conor Carbajal

*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9월 한달 매주 토요일 5:30am

* 새 회개연도 주요 일정

-제직회: (09.28(금)) 금요일예 후 공동의회: 10.12(금)

* C-12 전체 모임 -일사: 09.30(목) 8:00pm -말씀: 김남수 목사

* 목장지도자, 심방위원 세미나 -09.18(주) 맨, 권2부 예배 후

* 헌아식 -09.30(주) 맨즈 2부 예배 시

-교육: (09.28(주)) 1:00pm, 4층 강의실 -문의: 박명숙 집사(201.337.8822)

* 제40기 애플레시아

-10.07(주)-10(수) -디렉터: 김종복 장로(718.746.7405)

* 중보기도용사 발대식

-일사: 09.21 금요일예시 -문의: 장태은 전도사(201.315.7897)

* 주일학교(1~6학년) 학부모 간담회

-일사: (09.28(주)) 1:00pm -장소: 5층 강의실 -문의: 김은숙 전도사(646.775.1760)

* 추계순복음가족운동회 -일사: (09.30(주)) 2부 예배후 -장소: Alley Pond Park

* VFCC(Valley Forge Christian College) Day -일사: 10.28(주)

* 믿음교구 중국(도문) 선교

-09.18(화)-28(금) 유재규, 유정현, 유일용, 장영학, 조인수, 김브라이언, 이정진

* (한)중고등부 교사 모집 -문의: 안진성 목사(646.775.1776)

* (영)중등부 학부모 모임 -09.18(주) 12:45pm-1:15pm, 6층 중등부 예배실

-문의: 유영숙 집사(917.701.6710) 간담회 대화가 준비됩니다.

* 실업인선교회 주최 제6회 사립학교 기금모금 골프대회

-09.17(일) Pelham Split Rock Golf Course -문의: 김종석 장로(917.648.0488)

* 뉴욕/뉴저지 어머니학교

-09.24(월)/09.25(화)/10.03(수)/10.04(목) 6:00pm-10:00pm, 뉴욕강리교회(L. 1)

-장소: 이가복 교수 -문의: 박명숙 집사(201.337.8822)

* 어머니교실 -매주 수요일 10:30am-1:00pm, 유아부 예배실

-내용: 성경공부, QT, 찬양/활동 -문의: 이연수 집사(646.241.6855)

* 디모테/다니엘선교회 성경공부 1/II

-매주일 1:30pm, 6층 중등부예배실 -매주일 3:30pm, 7층 예배당

* 의락교구 연합예배 -09.18(주) 1:00pm, 5층 제1강의실 식사가 준비됩니다.

* 혼두라스 의료선교 봉사자 모집

-기간: 10.22(월)-28(금) -문의: 오응환 장로(718.961.0786) 박명숙 집사(718.899.4600)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모세선교회: 5층 2강의실 -제3관사화: 1:00pm, 이사선교회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9.18(주)	09.29(주)	09.30(주)
----------	----------	----------

나경식,문준이,민준기 박계근,박범옥,박종현	박희도,박희식,박창근 서 범,서범정,윤규두	유일용,이건우,이기영 이성명,이재영,이학일
----------------------------	----------------------------	----------------------------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Social Service

-매주일 9:45am-10:30am, 9층 병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노후대책, 노인

아파트 신청(신청서류 지참하신 분에 한함) 도와드립니다.

* 식당봉사교구 (09.18(주)-안내교구/09.23(주)-지리교구/09.30(주)-양선교구

* 알립니다

-사랑교구 김은수 목사 가정의 마숙 양과 Ming 군의 결혼식이 (09.02(주)) Four

Seasons Hotel(HI) 에서 있었습니다.

-소망교구 박호재, 은희 성도 가정에 예은(Katie) 양이 (09.02(주)) 태어났습니다.

-사랑교구 박은주 집사께서 Royal Dance Studio를 개업하셨습니다.

1550 Lemoine Ave., Fort Lee, NJ (201)313-6567

-양선교구 한봉과 집사께서 도서관에 책을 기증해주셨습니다.

-Family Today 9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헌금	주정 헌금
-------	----------	-------

\$102,929.56	\$1,319.00(누계-194,145.88 까 분)	\$13,219.00(누계-\$511,515.42)
--------------	-------------------------------	------------------------------

예배 안내

	맨 하단 성전	맨즈 성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양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부 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페인어초등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정,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화 번호	선교 국가	목장
사랑	주 언 중 장로	301-491-1153	과테말라	16
희락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9342	멕시코	8
화평	허 외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지리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볼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7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6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8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상식 안수집사	914-25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맨즈 성전: 130-30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800, Fax: 718-321-6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6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학교

담당 목사 김 남 수

주 일 예 배 순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8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씀이

박민수 집사(권1)/박희도 집사(권1)/유재규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합창한 발 사나운 바람 불 때 (시온성가대)

【권2】 주의 옷자락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사도 바울의 권면 IV] "엡 4:25-29" 김남수 목사

【권2】 [예배의 회복] "롬 12:1-2" 임용수 목사

【집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 121:8"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조공자 전도사(권1) / 이경숙 사모(권2)

관 고 사회자

찬 송 303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 일 예배위원

	면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공은)		
09/23	이강길 집사	박희식 집사	하재민 장로	사회자		
09/30	임일진 집사	봉용기 집사	김종복 장로	사회자		
10/07	주언중 장로	서 범 집사	이용환 장로	사회자		
10/14	장성수 집사	서성모 집사	최홍선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Richardson	안진성	임용수	임용수	김남수
사회	안진성	이영서	안진성	임용수	임용수	김성용
기도	장언택	조상일	조소현	최성식	한승만	홍승환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 "하는 목원들 환영

2) " "간의 삶과 신앙(가뭄의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388)

"만민의 왕 내 주께서" (찬138)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 한다.

III. 말씀(Word) : 감람 요새(고후 10:3-5) 하 언행 목사

1. 사람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볼 때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은 경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내면의 상처와 열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유리창을 닦을 때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다면 그 얼룩은 유리창 안쪽에서 닦아야 한다. 안쪽에 묻은 얼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벽은 마치 강한 요새와 같아서 어지간한 외부의 공격에는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선 난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본소에 휴화산처럼 잠잠해 있다기도 누군가가 그들의 아픈 상처를 무심코 건드리기라도 하면 잠복해 있던 격한 감정이 휴화산처럼 분출해 나옵니다.

2.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인간 관계는 물론 신앙 생활에도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상할 일이 없을 수가 없지만 분노, 거절감, 열등감, 위배주어 통통의 심한 감정을 그대로 두면,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 " 물어와 시시하게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몸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엡 4:26-27)고 말씀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릇과도 같은데, 그 그릇이 깨어지고 금이 간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헛되이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마다 일상적인 감동과 도전을 받지만 이리 세고 저리 흘러다 보니, 그것이 삶에 변화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늘 Challenge는 받으나 Change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견고한 짐은 반드시 파해야만 합니다.

3. 어떻게 이 견고한 잔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나?

1) 우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2) 육신의 질병도 감추지 말고 낱알이 의사에게 예가를 해야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듯이, 내면의 상처 역시 분노나 좌절감을 꼭꼭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드러낼 때 문제의 해결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여" (막 5:16)라고 말씀합니다. 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은폐시켜서도 안 됩니다. 쌓아두었다가 양평한 길로 폭발하지 않도록 미리 분출할 재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3) 결국 우리 내면의 상처, 특히 사단의 견고한 잔을 파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아 길을 가다가 쓴 물을 만났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이 재시해 주신 처방은 그 쓴 못 먹게 된 물에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출15:25절 이하) 이것은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스럽게 회상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가서 그 파에 적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치료자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마12).

그러므로 그 분을 중심에 모셔와 들이고 그 분을 의지하라. "그가 쥔립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재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권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사 53:3)

비록 크고 작은 상처와 얼룩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피로 삼고 주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의 쓴 물이 솟아날 때, 죄책감과 불안과 열려의 쓴 물이 고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말없이 처리된 온갖 문제들 가운데 아졌들까지 다 포함한 것임을 믿고 십자가의 위대한 은총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기쁨이 서서히 회복되고, 미움과 원망과 의심의 쓴 물이 사랑과 관용과 이해의 단 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IV. 사역(Work)

1) 통성 기도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임순철, 박정실
-방문: 박태원, 김선자, 박복순, 정현조, 장일선, 정현준, 정진희, 정진우

●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9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5:30am

● 새 회계년도 제직회/공동의회

-제직회: (09.28(금)) 금요일에 후 -공동의회: 10.12(금) 금요일에 후

● 언어시

-09.30(주) 켄즈 2부 예배 시
-주요: (09.28(주)) 1:00pm, 2층 교실 -분와: 박명숙 집사(201.337.6822)

● 제40기 예클레시아

-10.01(주)-10(수) -디렉터: 김종복 장로(718.745.7405)

● 추계 순복음가족운동회

-09.30(주) 2부 예배 후, Alley Pond Park

● 2007-08년도 교구조직 (교구/총무/비서/예스/선교회장/총장/장로)

-사임/사임후/이성진/김현숙 -회락/노승범/허광우/나현숙
-화원/박인수/조환진/장귀례 -안내/조인식/임승준/오용순
-자비/김대원/임와주/온규희 -양선/고용현/변명식/이미복
-소망/김홍식/유찬준/김명희 -충성/서 범/김현식/이숙자
-광강/장연태/홍분식/이은희 -민음/유정현/조인수/이난태
-은혜/박성권/신동욱/조동숙 -온유/김영환/장학열/최미자
-월재/김종규/김인수/윤경희 -연합: 이학용/유요례

● 주일학교(1~6학년) 학부모 간담회

-09.23(주) 1:00pm 5층 강의실 -분와: 김광숙 전도사(646.775.1769)

● (한)중고등부 교사 모집

-분와: 안진성 목사(646.775.1775)

● 혼두라스 의료선교 봉사자 모집

-10.22(월)-26(금) -분와: 오용환 장로(718.961.0786) 박명실 집사(718.889.4600)

● 뉴욕/뉴저지 어머니학교

-09.28(월)/09.25(화)/10.01(수)/10.04(목) 6:00pm-10:00pm, 뉴욕감리교회(L. L.)

-강사: 이기복 교수 -분와: 박명숙 집사(201.337.6822)

● 어머니교실

-매주 수요일 10:30am-1:00pm, 유아부 예배실
-내용: 성경공부, QT, 찬양/물품 -분와: 이연수 집사(646.241.6855)

● 바나바선교회 전제모임

-09.23(주) 1:30pm, 4층 교실

● 충성교구 연합예배

-10.01(주) 5:00pm, 옛세아내성진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7권사회: 7층 권사회실 -제1안수집사선교회: 1:00pm, 7층 이사교회회실
-제2안수집사선교회: 5층 1강의실 -제3안수집사선교회: 5층 2강의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09.23(주)) (09.30(주)) (10.07(주))

박희도, 박희식, 박창근 유일용, 이진우, 이기영 이학용, 장일선, 장연태
서 범, 서정민, 온규희 이성복, 이재영, 이학열 정원태, 조상열, 지만용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Social Service

-매주일 9:45am-10:30am, 9층 병영,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노후대책, 노인

아파트 신청(신청서류 지원하신 분에 한함) 도와드립니다.

● 식당봉사교구 (09.23(주)-자비교구/09.30(주)-운동회/10.07(주)-양선교구

● 알립니다

-Valley Forge Christian College에서 오신 학생님과 학생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으로 환영합니다.

-충성교구 순복회 권사께서 (09.18(토)) 소천하셨습니다.

-양선교구 조영란 집사 부친 구석환 성도께서 (09.18(토)) 소천하셨습니다.

-온유교구 김준영 집사께서 (09.18(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김성훈 목사(Living Faith Community Church, Seattle)께서 EM 예배 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Family Today 9월호가 나왔습니다. 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안내: 목심하는 그리스도인(오대원), 마음의 회복(존 엘드리지), 아담의 침묵

(래리 월렛), 좌절된 꿈의 차유(지멘스), 복을 받은 사람의 행복(강준민)

당임목사 설교집 & Tape, 주일 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식 헌 금 주 정 헌 금

\$115,745.30 \$1,143.50(누계-198,719.88 개 분) \$13,835.50(누계-4525,350.92)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장	켄 즈 성 장
주일 예배	1부 8:30am	1 부(양상)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영어,유아,유치,유년초등부 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래 아들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태만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형,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N) 8:00pm

교 구 및 선 교 국 가 안 내

교구	교 구 장	경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부장
사임	주 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회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342	멕시코	8
화원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86-7003	남아프리카	14
소망	이창언 안수집사	718-961-5460	북아프리카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세루	11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
민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66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874	엘살바도르,케냐	7
월재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09:30pm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마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애	토 6:30am

켄즈 성전: 136-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900, Fax:(718)321-9194

연합회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 경 연구 센터

김남수 목사님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64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씀이

이경길 집사(권1)/봉용기 집사(권11/하세원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우리 주를 사랑함 (사온성가대)

【권2】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2】 2. 읽은】 [Crossing the River] "왕하 214" Dr. Don Meyer

【권3】 [사도 바울의 권면 IV] "엡 4:25-29" 김남수 목사

헌 금 다같이

Juliana Kim & John Suh(권1)/은성종(권2)

광 고 사회자

찬 송 308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권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집은)		
09/30	임영진 집사	서 범 집사	김동복 장로	사회자		
10/07	주연중 장로	서성모 집사	이용찬 장로	사회자		
10/14	장성수 집사	서영주 집사	최홍선 장로	사회자		
10/21	강찬순 집사	박임정 집사	공병희 장로	사회자		
대박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허연형	Richardson	김남수	김남수	김남수
사회	임용수	허연형	안진성	김상래	임용수	김성웅
기도	강찬순	고용면	권광열	김관유	권태수	김성태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찬양하는 목원을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가뻘던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 "내 영혼에 햇빛 비치나" (찬468) "경손히 주를 섬길 때" (찬347)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 사도 바울의 권면 IV(엡 4:25-32) 김남수 목사

지난 몇 주 동안 '밖의 일이 중요하듯이 안의 일도 중요하다. 밖의 큰 일이 중요하듯이 안의 작은 일도 소중하다. 그래서 밖의 일도 잘되고 안의 일도 다 잘 되어야 하는데 안의 작은 일, 내가 믿은 하니 하나의 작은 일에 충성하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권면의 네번째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벗어 버려야 새 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 말에 정직하게 대답할 때 손에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2) 또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神) 같은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절대로 도움을 안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여짜다가 화를 냈으면 반드시 사과하고, 반드시 화해하고, 반드시 화해하고, 반드시 감자리에 들기 전에 풀고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분노와 열기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 빌란을 없애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 들어와서 숙을 부글 부글 끓게 해서 밤중에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3)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 하고 좋은 일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기쁨이 도둑질하는 기쁨보다 더 커야 되고 남을 도와주어서 오는 화일과 기쁨의 경험이 재미 보는 것보다 더 좋을 때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4) 대이 되는 말 선한 말을 하라. 이번 여행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행복한 여행, 일생의 기억에 남는 좋은 여행이 되려면 입을 조심해야 된다. 또 네가 좋아야 된다' 고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떼어 있게 잘 하셔서 이번 여행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얼굴을 고치고 화장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형상과 머리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거나 여행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물어오.

여러분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이제 천국까지 운명적으로 한 배를 타고 같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같이 가는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서로 불평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들었으니까 받았으니까 이제의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성령의 인도를 섬세하게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답게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IV. 사역(Work)

1) 동성 기도

2) 헌금과 환고, 주기도문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최현아, 김진수
-방문: Dorothy Larrier, 신경숙, 임지영, 반선윤, 지방은, 한혜연, 함성경

* 본개 순복음가족운동회

-오늘 2부예배 후, Alley Pond Park, 안내석에 악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새 회계년도 공동의회

-10.12(금) 금요일예배 후

* 제40기 애글레시아

-10.07(주)-10(수) -다락터: 김종복 장로(718.746.7405)

* 브라질 교회지도자 선교 Conference

-11.22(목)-27(화) -장사: 김남수 목사 -찬양: Bill/Randy Brooks, Treasures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김영호 집사(917.886.4005)께 문의 바랍니다.

* 온두라스 의료선교 봉사자 모집

-10.22(월)-26(금) -문의: 오동환 장로(718.961.0786) 백범빌 집사(718.899.4600)

* (영)중등부 Apple Picking

-10.09(토) 8:30am-6:00pm, Dr. Davies Farm Congers, NY

* Shane & Shane/Bebo Concert

-10.13(토) 7:00pm, 예루살렘성전 -문의: 김성용 전도사(718.321.7800)

* (영)고등부 학부모/교사 모임

-10.14(주) 12:45pm-1:15pm, 6층 중등부 예배실 -문의: 유병숙 집사(917.701.6710)

* (한)중고등부 교사 모임

-문의: 양진성 목사(646.775.1776)

* Back to Jerusalem 메시아 공연 및 성지순례단 모집

-11.29(목)-12.06(목) 7:00pm, \$1250 -문의: 이영서 전도사(718.321.7800)

* 뉴욕/뉴저지 어머니학교

-10.03(수)/10.04(목) 6:00pm-10:00pm, 뉴욕잡리교회(L. 1)

* 바나바선교회 전채 모임

-10.09(토) 7:00pm, 6층 중등부 예배실 -대상: 각 교구 바나바선교회장(가족동반)

* 총성교구 연합예배

-10.07(주) 5:00pm, 잭슨메시전

* 평강교구 연합예배

-10.28(주) 4:00pm, 김수현 집사 덕 -문의: 허재민 장로(631.742.3804)

* 파칭장 봉사자 명단

09.30(주) 10.07(주) 10.14(주)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Social Service

-매주인 9:45am-10:30am, 9층 병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노후대책, 노인 아파트 신청(신청서류 작성하신 분에 한함) 도와드립니다.

* 성경완독자

고학전(화평)-4쪽

* 식당봉사교구

09.30(주)-운동회/10.07(주)-양성교구/10.14(주)-소말교구

* 알립니다

-단임목사님 가정의 John 군과 아론아 양의 결혼식이 09.29(토) 예루살렘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오셔서 축하해주신 분들과 수고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M 곡소연 양과 권진홍 군의 결혼식이 09.30(주) 5pm Leonard's에서 있습니다.

-안내교구 김영희 목사께서 09.28(금) 소환되었습니다.

-온해교구 김영희 성도 가정에서 "우리유아원"을 개원하셨습니다.

151-11 33 Ave. Flushing 718.490.7741

-온해교구 김미경, 김달 성도 가정에 09.29(주) Timothy 군이 태어났습니다.

-화평교구 정현목, 만주 집사 가정에 09.29(주) 하은(Chloe) 양이 태어났습니다.

-화평교구 유학열, 경원 성도 가정에 재현(Patrick) 군이 태어났습니다.

-이선영 협동목사께서 탄자니아에 출관을 기증해주셨습니다.

-Family Today 9월호가 나왔습니다. 정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안내: 설거며 다스리는 사람(홍성진),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찰스 스텔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스티비 오미산),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고든 맥도널드), 오늘을 잊지아 보네지 말라(존 파이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급식헌금	주정헌금
\$115,142.77	\$794.00(누계-201,895.88 지 분)	\$129,400.00(누계-\$536,299.92)

예배안내

	맨하탄성전	벤즈성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양)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emier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태판원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성경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애(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목장
사랑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화평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0242	멕시코	8
화평	허 외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창 장로	718-89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말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80	북볼리비아	15
총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1
평강	하 재 민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1
온해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온유	박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질레	최성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Ch.75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사이드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마주키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벤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1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허연형 목사(편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시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7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말씀진 집사(편1)서 법 집사(편1)김종복 장로(편2)

찬 양 성가대

[편1] 나에게 오라 (시온성가대)

[편2] 복음성가 메들리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편1, 편2] [교회관] "골 1:24-25" 김남수 목사

[편1] [동행] "창 5:21-24" 허연형 목사

[편2] [가장 귀한 만남] "사 55:1" 김호성 목사

섬김의 서약식 A/G 안디옥교회와

연 아 식 김남수 목사

현 금 다같이

시온성중학교(편1)/아름추 집사(편2)

공 고 사회자

찬 송 303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편 하 단	편 조 1 부	편 조 2 부	편 조 3 부(젊은)		
10/07	주안중 장로	서성모 집사	아름추 장로	사회자		
10/14	장상수 집사	서영주 집사	최홍신 장로	사회자		
10/21	강찬순 집사	석영정 집사	공병희 장로	사회자		
10/28	김홍재 집사	성환순 집사	김종원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김남수	Richardson	임용수	김상재	김남수
사회	임용수	허연형	한진성	임용수	김상재	유상윤
기도	김영호	김영환	김원석	김장훈	김재룡	김정영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 2) "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행" 일, 감사행 일, 행을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배(Worship)

- 1) 찬양곡: "권한 내 영혼" (창44) "여호와 나의 복자" (복)
-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Crossing the River(왕하 2:14) Dr. Don Meyer(VFCC 회장)

1990년에 순복음뉴욕교회의 초청을 받고 처음으로 방문한 이후 매년 이맘때마다 이 교회를 방문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십년 동안 수많은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교회와 저희 학교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라 엘리사의 질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변모인 엘리사를 여러 해 동안 따라 다닌 제자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여러 가지로 훈련하시는 가운데 때가 돼자 하나님께서는 수레와 불행거를 보내어 엘리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때에 엘리사의 걸음이 땅에 떨어지자 엘리사가 그 걸음을 가지고 요단강 앞까지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손에 든 그 걸음을 통해서 자난년의 기억을 대동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큰 화평과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설기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난 세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의 호주머니에 저의 할머니가 쓰던 골무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골무를 할머니는 손주 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손수 이 골무를 만들어 준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복상사함이라 두고 늘 사랑을 얻을 때마다 그 골무를 보면서 저의 삶에 영감을 주신 할머니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수많은 저와 영적인 골무를 쓰신 분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엘리사의 걸음입니다. 지난날 세월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요단강에 서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강가에 서서, 불가능한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냥가에서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난년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던 하나님, 모든 곳에서 같이 가시던 하나님, 마음에서도 함께 하시고, 산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냥가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막에서도, 또 들에서도, 그리고 외국을 다닐 때도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강가에 서 있다. 엘리사가 함께 서있던 그 자리에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카탈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과학자이며 박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자입니다. 그가 실험실에서 하나님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를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실험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이 계시어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같이 막에서 하이웨이에서 서 있을 때도 주님은 같이 계시었습니다. 강의실에도, 우리가 사는 거주자에도, 직장에서도, 집에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떠서 밝은 때나 해가 저서 어두울 때도 우리와 어디든지 같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언제 그것이 역사할 것입니까? 신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든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중요하시다는 지평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처럼 언제든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주님이 지금 계십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고, 그리고 풀이, 그리고 음식이, 그리고 치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게 하고, 그리고 천사가 음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풀이 마르고 그럴 때에 그것은 그때이고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가에 서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으로 역사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상심하게 역사한 그 경험을 경험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란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원이란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가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던 것처럼, 그가 자기 스승의 기억을 손에 잡고 있던 것처럼, 자난년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들의 사진을 지금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의 성경을 제 책상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늘 그런 분들을 주위에 모시고, 또 그런 것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의 믿음의 도움을 할 수 있지만, 다시 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자를 우리 스스로 이 물가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들처럼 지금 우리도.

영국의 한 나이가 많은 노인이 교회에 쓰여 있는 이런 한 사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인을 보고 구세군의 창시자 헨리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밖에 세 높은 것을 보고 자꾸 반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만날지라도 문제가 생기든, 주님! 다시 가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시 이 가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이 있을 때나, 우리가 이웃이 없을지라도, 교회가 없을지라도, 무엇이 다 없을지라도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대한 선포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이 주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IV. 시애(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배경숙, 김사문, 서현준, 석은정
-방문: 전현준, 박지영, 이상규, 홍상연, 엄영대, 홍종래, 김영춘, 서미아를
서희수, 지영보, 신주영, 장성민, 장은빈

* 새 회계년도 공동의회

-10.12(금) 금요일에 후

* 2007-08 서리집사 임명

-신규 외임, 재임명 82명, 총 90명(믿음교구 유회장 집사 누락되어 추가합니다)

* 제40기 애플렉시아

-10.07(주)~10(주) -디렉터: 김종복 장로(718.743.7405)

* C-12 지도자 모임

-10.07(주) 2:00pm, 4층 회의실

* 목회장로회 및 해외선교위원회의 모임

-10.10(수) 8:00pm, 4층 회의실 -7:00pm에 아래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됩니다.

* 언어자 명단

김려배, 김용, 김사문, 김세희, 김하늘, 서경애, 서태지, 심서현, 신나단, 우준
원하나, 장예성, 장성민, 장안하, 장천미, 김유민, 장예림, 차지애, 허지아

* 브라질 교회지도자 선교 Conference

-11.22(목)~27(화) -장사: 김남수 목사 -한양: BBO/Randy Brooks, Treasures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김영호 집사(917.886.4005)에 문의 바랍니다.

* 온두라스 의료선교 봉사자 모집

-10.22(월)~26(금) -문의: 오승환 장로(718.961.0786) 백남철 집사(718.899.4000)

* Back to Jerusalem 메시아 공연 및 성지순례단 모집

-11.29(목)~12.06(목) 7:00pm, 8:15pm -문의: 김남수 집사(917.882.4504)

* Shane & Shane/Bebo Concert

-10.13(토) 7:00pm, 애플렉시아전 -문의: 김성용 평도사(718.321.7800)

* (영)고등부 학부모/교사 모임

-10.14(주) 12:45pm~1:15pm, 6층 중등부 예배실 -문의: 유명숙 집사(917.701.6710)

* (한)중등부 Apple Picking

-10.20(토) 7:30am 출발 Dr. Davies Farm Congers, NY

* (한)중고등부 교사 모임

-문의: 안진성 목사(718.321.7800/646.775.1776)

*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Reunion

-10.07(주) 3:00pm, 6층 산악교회 Chapel

* 중국어 동호인 모임

-수일 1:30pm, 6층 602호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환영

* 충성교구 연합예배

-10.07(주) 5:00pm, 개세미배성전 -장사: 김남수 목사

* 믿음교구 연합예배

-10.07(주) 2:30pm, 5층 강외실 -문의: 유재규 장로(516.686.1555)

* 평강교구 연합예배

-10.28(수) 4:00pm, 김수현 집사 때 -문의: 허재민 장로(631.742.3944)

* 이번 주일 가관별 모임

-제1권사회: 9층 외 복 방 -제2권사회: 9층 오른쪽 방

* 파랑장 봉사자 명단

-10.07(주) 10.14(주) 10.21(주)

* 의료위원회의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Social Service

-매주일 9:45am~10:30am, 9층 병원, 메디케어, 메디케어, 노후대책, 노인

* 식당봉사교구

-10.07(주)~양선교구/10.14(주)~소망교구/10.21(주)~충성교구

* 알립니다

-매 주일에는 사적인 이야기를 삼가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Off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Family Today 9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절안내: 성가며 다스리는 사람(홍성진), 목상하는 그리스도인(오대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기도(노보이 오마리), 여호와를 경외하라(노비), 무릎

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담임목사 설교집/Tape, 주일 성경공부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텐 하 탄 성 경		벤 즈 성 경	
	1부	8:30am	1 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유년,초등부	8: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	8:30am	중,고등부(한,영)	10:30am
	한국어학교	10:2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페인청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시애틀	주 언 장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희락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네	김 종 학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재미	김 종 영 장로	917-254-7436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몰리비아	15
충성	최 흥 산 장로	631-277-5662	페루	11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1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0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형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대	최상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5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8:21:00am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벤즈 성전: 130-91-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800, Fax: 718-321-9394

벤저민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세계 선교 센터

김남수 목사님

주 일 에 배 순 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245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주안중 장로(권1)/서성모 집사(권1)/이용찬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주 예수 넓은 품에 (시온성가대)

【권2】 지금의 열리아 폐서일 (여무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2】 【권1】 교회는 세상의 축복 | “엡 3:20-21” 김남수 목사

【권1】 【교회관】 “골 1:24-25” 김남수 목사

성 찬 식 김남수 목사

헌 금 다같이

감상주 형제, 안수권 자매 (권2)

광 고 사회자

찬 송 찬 246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양단	권조1부	권조2부	권조3부(공은)		
10/14	장성수 집사	서영주 집사	최홍산 장로	사회자		
10/21	광한순 집사	석범정 집사	공병희 장로	사회자		
10/28	김홍재 집사	성환승 집사	김종원 장로	사회자		
11/04	노승원 집사	송상근 집사	김철우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이은우	허연형	김남수	김남수	Richardson	김덕래
사회	김남수	허연형	임용수	김성용	안진성	김남수
기도	김종철	김홍재	나경식	박병욱	서성모	석범정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인사는 목원들 환영

2) “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일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과 경배(Worship)

1) 찬양곡: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찬488)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40)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교회관” (골 1:24-25) 설교자: 김 남수 목사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관”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교회관이라고 하면 교회를 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알고 교회를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원하지 않은 교회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문명적으로 평생 동안 교회생활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참회하지 않고 교회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관을 바로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관의 시작이 어디인가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므로 탄생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세우셨다면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장로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주인 의식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의 인사권이 장로교의 당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한이 너무 커지니까 교역자가 소신껏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의회처럼, 회장이 뽑아준 대표자들이 전체 회장을 대신해서 모든 결정과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의회 정치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장로교의 장로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리교에서는 개교회와 담임 목사가 심의해서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리사나 교단의 명령에 의해서 3년마다 교역자를 교체합니다. 사실 목회라는 것이 3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마다 사람을 쓴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뼈를 물을 자오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난 3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니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들면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교인들도 자원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괜히 마음 주었다가는 나중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성회 교단은 회중정치입니다. 우리 교단은 각 교회의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개교회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우선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개교회의 재산과 형징과 관리 등 모든 것을 회중에게 맡기고, 회중이 결정해서 지도자를 청빙하고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팀들을 뽑아서 목사님을 뽑게 합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회중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회 정치제도의 약점 중 하나는 목회자가 회중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목회자는 교인들과 밀착되어 목회자가 전 교회를 흔들고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제도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어려움과 문제가 어대어나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성결적이고 신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릴 수 없이 인간이 만든 제도와 조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몸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친히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창립 멤버든지 창립목사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소유주인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친히 관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아버지요, 교회는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고 잘 보살펴면서 천국 갈 때까지 돌보아주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작품과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IV. 사역(Work)

- 1) 동성 기도
-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박종배, 박형준, 한숙경, 박소미
-방문: 이재석, 이진호, 제나김, 장상인, 김대순, 서가영, 구경희, 김홍식, 김혜희, 김혜진
- 두부전도왕 반봉혁 장로 초청 간증집회** -10.19(금) 금요일에 시
- D-12 집중훈련(전도소그룹-열린모임)**
-10.23(화)-25(금), 여우삼행성전 -강사: 김성관 목사(부산 종성교회)
- 브라질 교회지도자 선교 Conference**
-11.22(목)-27(월) -강사: 김남수 목사 -찬양: Bill/Randy Brooks, Treasures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김영호 집사(917.886.4005)께 문의 바랍니다.
- Back to Jerusalem 메시아 공인 및 성지순례단 모집**
-11.29(목)-12.06(목) 7박8일, \$1250 -문의: 김원석 집사(917.882.4504)
- (영)고등부 학부모/교사 모임**
-10.14(주) 12:45pm-1:15pm, 6층 중등부 예배실 -문의: 유명숙 집사(917.701.6710)
- (한)중고등부 Apple Picking**
-10.20(토) 7:30am 출발 Dr. Davies Farm Congers, NY
-문의: 안진성 목사(718.321.7800/646.775.1776)
- (한)중고등부 교사 모임** -문의: 안진성 목사(646.775.1776)
- 맨하탄 시온성가대원 모집**
맨하탄 새 성전 사대를 위하여 시온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연습: 7:30am-예배 전 & 예배 후-11:00am
-문의: 조한진 집사 (646-369-7120)
- 밀알선교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 찬양 대축제**
-10.21(주) 8:00pm, 7개가톨릭 안대축에 초대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제1/2/3권사회 Apple Picking(기도원, 사과밭)**
-10.14(주) 3:00pm 출발, 10.15(월) 5:00pm 도착 -문의: 정창숙 권사(718.710.0070)
- 평강교구 연합예배**
-10.28(주) 4:00pm, 김수현 집사 대 -문의: 하재민 집사(631.742.3994)
- 중국어 동호인 모임**
-주말 1:30pm, 6층 602호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환영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아라리선교회: 5층 강의실 -제5권사회: 1:00pm, 8층 아사선교회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10.14(주)	10.21(주)	10.28(주)
최성식, 최우준, 하재선 허원무, 장순수, 고원민	곽원태, 권영환, 김관유 김기성, 김남근, 김성태	김정훈, 김재룡, 김정열 김종철, 나경식, 문준이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태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201.491.6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Social Service**
-매주일 9:45am-10:30am, 9층 방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노후대책, 노인 아파트 신청(신청서류 지원하신 분에 한함) 도와드립니다.
- 식당봉사교구** 10.14(주)-소망교구/10.21(주)-종성교구/10.28(주)-평강교구
- 알립니다**
-소망교구 순화수, 분일 집사 가정에 08.25(화) 태어났습니다.
-온유교구 한정수, 자영 성도 가정에 10.08(월) 자우 양이 태어났습니다.
-Family Today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안내: 읽어장 관계 다시 잊기(레리 코렐),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존 파이퍼)
3보 걸진 2보 후회(할스 스완들), 예수님처럼(맥스 무키도), 섬기는 삶은 아름답다(할스 스완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당일목사 설교집/Tape, 주일 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시 헌 금	주 청 헌 금
\$113,835.15	\$450.00(누계-205,451.88 과 분)	\$13,029.40(누계-4563,273.22)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캠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양)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omised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페인어초등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IN)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복장
사할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파타고니아	16
화라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0242	멕시코	8
화원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신	이 용 항 장로	718-896-7003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3-5460	북몰리비아	16
송성	최 종 성 장로	631-277-5662	페루	1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37	탄자니아	1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1
온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알사바도르,케냐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440	잠비아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디펜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가톨릭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캠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도들의 선교의 열매를 위하여

주 일 예 배 순 서

시화: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484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장성수 집사(권1)/서영주 집사(권1)/최홍선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편1】 연월가 주를 만날 때 (사문성가대)

【편2】 지금은 열려야 때처럼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편.권2】 「교회와 성경」 「골 1:2」 김남수 목사

【편1】 「교회는 세상의 축복」 「엡 3:21」 김남수 목사

【편은】 「나를 판단하실 주님」 「고전 4:5」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만나경 자매(편1)/강병호 형제(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50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맨 하 탕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집은)		
10/21	강찬순 집사	석영정 집사	공병희 장로	사회자		
10/28	김홍재 집사	성환승 집사	김정영 장로	사회자		
11/04	김동복 장로	송상규 집사	김형후 장로	사회자		
11/11	노승환 집사	윤규두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하연행	임용수	하연행	임용수	Richardson	Richardson
시화	하연행	임용수	김성용	임용수	인진성	인진성
기도	성환승	송상규	유영용	이기석	이기영	이기부

금주 목장 모임 개요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장을 환영

2) 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내 영혼에 깃들라(찬88),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40)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면하는 시간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교회는 세상의 축복(엡 3:20-21) 김남수 목사

지난 시간부터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관점이 그의 철학이고 그의 신학이고 그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일생동안 교회를 개혁했고 그 개혁한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썼고 일생동안 그 편지 속에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권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라는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유재에 채우겠다고 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신 사람입니다. 교회관이 잘못되면 교회생활이 잘못됩니다. 교회관이 잘 정립되면 교회생활이 바르고 성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창설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설자도 주님이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금도 움직여가심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인간적 생각이나 사람의 계산이나 세상법으로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장작을 하면서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직접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들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동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겠느니라”(골 1:24)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며, 예수님을 대면해 본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뜻대로나고, 예수 믿는 교회만 믿었지 예수님을 직접 껴안은 적이 없었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껴안는 예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광무궁하기를 영화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 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존귀와 찬송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소유권과 모든 온전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깥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히 있으며,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며, 주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유익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아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

수의 몸이요, 소유요, 그분의 미라이시기 때문에 교화에 상처를 내고 허물면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맡겨준 새로운 사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중년이 혼두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여러 개의 학교를 세우면서 그 학교를 하나의 실험실로 삼고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아이들을 어떻게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면 그 학교가 잘되고, 그 아이들이 점차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서 씨를 뿌리는 실험으로, 선교현장에서 1년 중의 거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시간동안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허부형들과 회의를 하면서 학교를 세우는 실험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이 실험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을 이제 세계 선교에 적용하기 위해, 교회 전체를 바다부터 준비하고 개혁하여 교회 전반에 걸쳐 대 수술과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역자들이 매일 새벽기도 후 아침 7시부터 거의 하루 종일 교회의 조직과 부서들을 정비하고 분석하고, 재조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고, 이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세계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힘이 있어서 성도들을 돌보고 서로서로 섬기면서 돈독히 세워가고 밖의 일을 할차게 해 나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해 반갑아가며 같이 밤을 세워드리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편안한 손을 잡고 안심하면서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돌보는 팀도 필요하고,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돌보는 팀,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홀로 된 가족들을 위로하는 팀,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후에 임신을 하면 그 임신부를 돌보는 팀, 그리고 출산을 도와주는 팀, 또 출산을 하고 나오면 그 산후조리를 해줄 수 있는 팀 등, 모든 분야에서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움직여서 살아있는 공동체, 주님의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성령에도 있듯이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했을 때에 할 일을 했을 분이라고 해야 합니다. 더 겸손한 대답은 주님께 더 잘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배고 오직 주님의 교회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9월이면 30년이 됩니다. 제 자식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잘나서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했고 주님이 눈 감아 주셔서 살았고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었습니다. 물어봐도 뭐 부끄럽고 주님께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허무하루를 최선을 다 했어야 했는데, 부족하고 물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며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가야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IV. 사역(Work)

1) 통성 기도

2) 헌금과 권고, 주기도문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김병, 이순옥, 박은희, 유홍선, 유시영, 유지영, 유재현, 심재현, 이신웅
이가영, 이아영, 김경은, 김옥분, 김형원, 이세현
-평문: 김광숙, 박향자, 허인순, 서인원, 최귀희, 최혜숙, 김종철

* 감사절 초청잔치

-일시: 11.11(주) 2부 예배시 -장소: 여무살렘성전 -대상: Spanish 전도 대상자

* 감사절 초청잔치II & 콘서트

-일시: 11.18(주) 4:00pm -장소: 여무살렘성전
-대상: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 전도 대상자

* 목장지도자, 심방위원 세미나 -10.21(주) 덴, 캄2부 예배 후

* 새가족 환영 모임 -대상: 금년 7월 이후에 등록한 새가족

-10.21(주) 2:00pm, 아라중 식당 -문의: 바나나 삼강이 사역팀 (646.379.0241)

* D-12 집중훈련(전도소그룹-열린모임)

-10.23(화)-28(금), 여무살렘성전 -장사: 김성곤 목사(부산 풍성교회)

* 로렌 커닝햄 목사 초청집회

-일시: 11.01(목)-02(금) 8:00pm -장소: 여무살렘성전

* ALL DAY 중고등부 부흥회

-일시: 10.28(금)-29(토) 7:00pm -장소: 베들레헴성전

* 주일학교(프라미스랜드) 2007 홀리인 파티

-일시: 10.30(수) 5:00pm-8:00pm -장소: 베들레헴성전

-문의: 김광숙 전도사(646.775.1789)

* 브라질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 Conference

-11.22(목)-27(화) -장사: 김남수 목사 -찬양: Bill/Randy Brooks, Treasures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김양호 집사(917.886.4005)에 문의 바랍니다.

* Back to Jerusalem 메시아 공연 및 성지순례단 모집

-11.28(목)-12.06(목) 7:00pm, \$1250 -문의: 김원석 집사(917.882.4504)

* 맨하탄 시온성가대원 모집 -자격: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연습: 7:30am-예배 전 & 예배 후-11:00am -문의: 조한진 집사 (646.308.7124)

* 밀알선교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 찬양 대축제

-10.21(주) 8:00pm, 카네기홀 안내소에 초대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절제교구 연합예배

-10.21(주) 5:00pm, 최성식 집사 대 -말씀: 김남수 목사
주소: 508 Central Park Ave, Unit# 5110 Scarsdale, NY 10583 -문의: 914.260.3440

* 평강교구 연합예배

-10.28(주) 4:00pm, 김수현 집사 대 -문의: 허재민 장로(631.742.3994)

* 사랑교구 연합예배

-일시: 11.11(주) 6:00pm
-최성호 장로 대 (60 Jane Dr, Englewood Cliffs, NJ 201.541.8362)

* 제3안수집사선교회 월례회

-10.28(주) 12:40pm, 5층 2강의실 신/구임직 이/취임식 있습니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감사를 초청잔치 준비위원회 1:00pm, 5층 1강의실

-모세선교회 1:00pm, 5층 2강의실 -제3권사의 1:00pm, 이사선교회 회의실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Social Service

-매주일 9:45am-10:30am, 9층 병원, 메디케어, 메디케어, 노후대책, 노인
아파트 신청(신청서류 지원하신 분에 한함) 도와드립니다.

* 성경완독자 감인회(화), 반명회(총선)

* 식당봉사교구 10.21(주)-총선교구/10.28(주)-평강교구/11.04(주)-평음교구

* 알립니다

-화평교구 강장실 관사에서 10.13(토) 소환하였습니다.

-사민권 문제집이 안내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Family Today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일 현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현금	주정 현금
\$123,312.15	\$387.00(누계-237,799.88 피 분)	\$11,700(누계-\$574,973.32)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맨 하 탄 성 전		콘 츠 성 전	
	1부	8:30am	1부(영양) 장년성경공부 2부 3부(젊은 예배) 영아예배	8:30am 9:30am 10:30am 1:30pm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8:30am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부 1부 (Promisedland) 2부	10:30am 1:30pm
	중고등부	8:30am	중고등부(현.영)	10:30am
	한국어학교	10:30am	장예 아동 한국어학교 스테판장년부	10:30am 1:30pm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중고등부(FNA) 어린이(QIN)	8:00pm 8:00pm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목장
시라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회라	김종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5-743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06-7003	남몰라비아	14
소망	이정현 안수집사	718-961-5460	북몰라비아	16
충성	최 홍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1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6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0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텔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컨츠 상선: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114/7119.321.7801, Fax: 718/321.4594

웹사이트 상선: 40 W. 66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김남수 목사님 설교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순 서

시회: 임용수 목사(편)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27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장찬순 집사(편) / 박영정 집사(편) / 공병희 장로(편)

찬 양 성가대

【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온성가대)

【편】 주님의 크신 은혜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편.편】 【교회와 성경 II】 “골 1:29” 김남수 목사

【편】 【교회와 성경】 “골 1:29” 김남수 목사

【말은】 【“영광” 교회의 비결】 “행 11:19-20”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최자용 집사, 최수연 집사(편) / 오케스트라(편)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50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맨 하 팀	맨 조 1 부	맨 조 2 부	맨 조 3 부(말은)
10/28	김종재 집사	성환승 집사	김종영 장로	사회자
11/04	노승범 집사	송상규 집사	김철후 장로	사회자
11/11	박민수 집사	온규두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11/18	이강길 집사	유일용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말	화	수	목
설교	임용수	허연행	허연행	김성래
사회	안진성	김성용	유상운	김성래
기도	이파용	이성봉	이정진	이정연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작하는 목원들 환영

20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근한 내 영혼 전히 실 곳과” (찬44), “내 주의 나라의” (찬246)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교회와 성경(골 1:29) 김 남수 목사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세우신 기관으로, 주님이 운행하시며 그 주권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과 시련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말지만 그분은 예외 없이 단신의 교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들어가시는 경함을 수없이 하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일과 가정을 책임져주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관입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면 주님의 몸이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성령, 즉 십자가가 달려있고 매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건물적 교회와 의미론인 아니라, 주님의 몸 즉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초점을 잡고 업무를 분담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사역적 의미의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가 다 포도나무이듯, “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잘 알라. 그러는 건물이나 조직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며 보살핌을 하며 하나님의 집을 자여가야 할 줄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싸우거나 분쟁이 생겨서 하나님의 지체가 상처를 받으면 주님의 몸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가까운 사랑할수록 서로 조심하고 예의 바른 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면 30여년이 지나면서도 한 번도 갈라지거나 싸움이나 다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으며, 왜 싸움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참고 양보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입장, 자기 영광, 자기 체면, 자기 이익 모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면 개인의 입장이나 체면, 개인의 이권은 다 십자가에 못박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부흥되는 생각을 안

하면 부흥이 되는 것 같고, 하주지 않으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세 가지 일관된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번째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세번째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느냐 입니다. 개인의 유익이나 체면이나 이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니까 항상 깨끗하고 투명한 결원이 내려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동안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일러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었습니다. “내가 알곤 된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1:25)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알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그의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밭에 있던 디모데도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관을 배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이니까 그렇지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나와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은 충성되게 올바른 교회관을 배워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내 놓는 각오를 가졌던 것을 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을 버리고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를 죽이고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수고한 아름다운 전통을 잘 자급으로써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 잘했다 칭찬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문과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 3) 애잔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서영규, 서재스틴, 서말리
-방문: Ashley, 최진호, 최진규, 김주연, 최하늘

* 감사절 초청잔치 I

-11.11(주) 2부 예배시, 예루살렘성전 -대상: Spanish 전도 대상자

* 감사절 초청잔치 II & 콘서트

-일시: 11.18(주) 4:00pm, 예루살렘성전
-대상: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 전도 대상자

* 세례식

-11.11(주) 2부예배 시, 예루살렘성전 -교육: 11.04(주) 9:30am, 4층 강의실

* C-12 전체 모임

-10.28(주) 8:00pm, 예루살렘성전 -대상: C-12 전원
-강사: 김남수 목사

* 로렌 커닝햄 목사 초청 집회

-11.01(목)-02(금) 8:00pm, 예루살렘성전

* 주일학교(Promise Land) 2007 Holy Win 파티

-10.31(수) 5:00pm-8:00pm, 베를렘성전 -문의: 김윤숙 전도사(646.775.1799)

* 브라질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 Conference

-11.22(목)-23(금) -강사: 김남수 목사 -찬양: Bill/Randy Brooks, Treasures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강연회 집사(917.886.4005)께 문의 바랍니다.

* Back to Jerusalem 메시아 공연 및 성지순례단 모집

-11.29(목)-12.02(목) 7박8일, \$1250 -문의: 김원석 집사(917.882.4504)

* 맨하탄 시온성가대원 모집

-자격: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연습: 7:30am-예배 전 & 예배 후-11:00am -문의: 조한진 집사 (646.369.7124)

* 평강교구 연합예배

-10.28(주) 4:00pm, 김수현 집사 대 -문의: 허해린 장로(631.742.3994)

* 사랑교구 연합예배

-11.11(주) 6:00pm, 최성호 장로 대(80 Jane Dr. Englewood Cliffs, NJ 201.541.8382)

* 인내교구 연합예배

-11.11(주) 2:00pm, 5층 1강의실

* 제4권사회 월례회

-11.04(주) 1:00pm, 7층 권사회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7권사회: 7층 권사회실 -제1인수집사선교회: 아삭선교회실

-제3인수집사선교회: 12.40pm, 5층 2강의실

* 파직장 봉사자 명단

10.28(주) 11.04(주) 11.11(주)
김정훈, 김재룡, 김정일 민중기, 박계근, 박병욱 서 법, 서성모, 석범정
김종철, 나경식, 문준이 박이화, 박종현, 박희도 은규부, 유일용, 이관우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Social Service

-11.11(주)까지 9:45am-10:30am, 9층 병원, 메디케어, 메디icaid, 노후대책,
노인아파트 신청(신청서류 지원하신 분에 한함) 도와드립니다.

* 식당봉사교구

10.28(주)-평강교구/11.04(주)-민음교구/11.11(주)-은혜교구

* 알립니다

-은혜교구 이선구 집사, 이금자 권사 가정의 준상 군과 은영 양의 결혼식이

10.27(토) 예루살렘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소망교구 최경국 집사 가정에서 Brooklyn에 Cellular Phone Shop을 오픈했습니다.

-제5권사회에서 불우아동 급식을 위해 \$2,000 헌금하셨습니다.

-시민권 문제집이 안내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Family Today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안내: 비담 글에 서는 용기(로렌 커닝햄), 너희 모든 것을 제우스라라
(할스 스탠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맥스 루케이도), 소명/생명(오스기

니스), 인생의 재도를 수정할 때(교토 맥도널드), 설교집, 성경공부 Tape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식 헌 금 주 정 헌 금
\$63,506.08 \$556.00(누계-210,399.88 개 분) \$12,619(누계-\$587,592.32)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퀵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령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8:30am 한국어학교 10:20am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페인어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천,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랑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희마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회광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05	에콰도르	12
양년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부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부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7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96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574	엘살바도르,케냐	7
평택	최상식 안수집사	914-25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마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퀵 즈 성전 130-39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 321-7888, Fax: (718) 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4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대학
신학대학
신학교의
영양소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주 일 예 록 순 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327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김홍재 집사(권1)/성환승 집사(권1)/김종영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주를 찬양해 (시온성가대)

[권2] 말씀하신 대로 (여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물과 지혜] "고전 12:20-27" 김남수 목사

[권2] [교회와 성령 II] "골 1:29" 김남수 목사

[권3] [평화] "교회와 비평 II" "행 11:27-30, 13:1-5" 김희성 목사

헌 금 다같이

Juliana Kim & John Sohn(권1)/정성진 형제, 이영주 자매(권2)

광 고 사회자

찬 송 찬 278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2) 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 찬 246 장, 찬 330 장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교회와 성령 II" 골 1:29 김남수 목사

계속해서 교회론, 교회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록본과 교회론이 확실해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모두 교회를 중심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탄절, 고난 주간,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감사절, 그리고 다시 성탄절, 이렇게 주님의 출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과 성령강림과 관련된 절기로 늘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늘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교회론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확실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순복음뉴욕교회가 1973년 중반에 만만한 35대에 세워진 이래 30년 동안 뉴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여러 교회에 가서서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축복의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 경향사에 잘 알지 않고 행사들에게 취조 받음 일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보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이미 영적으로 내리막길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신학해야 되고, 교회론이 확실해서 교회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단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교회도 있고 초교파적인 교회도 있지만, 기능하면 교회는 교단에 속해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단교회는 역사와 전통, 신학과 교리가 확실한 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단을 배경으로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교단장치가 시끄럽고 살아서 독립교회 혹은 초교파 교회를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역사, 교리, 신학이 검증된 교회를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사탄이 그 안에서 운행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교역자들이 우리교회를 옳다"고 하는데 어떤 분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보니까, 순복음뉴욕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의자가 너무 편안해서, 의자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돈을 많이 들여서 바빠게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건축비를 반으로 줄이고 실용적이고 기능적이고 심플하게, 같은 값이면 단순히 지으려다 보니까 이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의 건물이나 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자에 앉아서 개인 분들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는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커서 좋은 것도 아니고 작아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또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크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배경, 여건에 비해서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이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크거나 외형, 건물에 관계없이 일곱 별을 집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왕좌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섬길 때 세 가지 초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민중의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전11:22)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대한 예식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습니다. 가난하니까 먹는 것이 중요했고, 예수님의 사역도 혼인잔치집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마쳐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가 어떻게 교회를 업신여기냐 라고 했던 말은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함 그리스도의 자제로 보아야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고, 오래된 사람과 갓 믿은 사람을 모두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모두 교회의 지체로서 존경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를 질지게 하지 말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심 지지 않게 하라 이는 장과부들 도와주게 하라 한 아니라" (딤후3:1) 여기서 질지게 말라는 것은 부담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짐을 서로 나눠주어야 교회에다 짐을 지우면 교회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적으로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봉사했다고 교회에서 먹여주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교회에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먹어야 다 좋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에 짐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정해놓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인 이성을 가진교회 가족교회라고 해서 모두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매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연세가 많고 의지할 데가 없고 먹을 것을 못 먹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친척이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다 맡기고 나는 모른다고 하고 모른척하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에다 짐을 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Family Church에서 Mission Church로, 유람선에서 항공모함으로 계속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집 근처에 사시는 차원이 없으신 성도들을 모시고 오면 교회가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운송이나 식사비가 다 집이 됩니다. 우리도 밥 먹고 살기 급한데 왜 밖에 나가 주느냐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밥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거기에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다 주는 것이니 남아서 피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를 질지 말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왔으나 저희 중에 으뜸 대가를 좋아하는 디오도르가 우리를 질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어 쫓아내고도 유류부족하여 형제들을 질대치도 아니하고 질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요삼1:9-10) 세상에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는 좋은 곳이고 교회 가면 좋다, 어떤 좋은 인상을 가진 분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도 바울처럼 거꾸러뜨려서 회심시켜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서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책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기 문제, 자기 병, 자기 가 자라오면서 한 말한 것을 교회에다 돌리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돈독하게 세우면 교회는 다 편안하고 화평있는 분향이나 같듯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마를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훈계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용인 교회를 잘 세워 가라고 권명을 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교회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자야 될 줄 믿습니다.

(역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IV. 사역(Work)

1) 통상 기도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3) 예배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젊은)		
11/04	노승범 집사	송상규 집사	김철우 장로	사회자		
11/11	박민수 집사	윤규두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11/18	이강길 집사	유일용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11/25	함일진 집사	윤대식 집사	심정호 장로	사회자		
대박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하연형	김남수	김남수	김남수	김남수
사회	김남수	하연형	김남수	김남수	김남수	김남수
기도	김일평	정연택	조상일	조소현	최성식	함승만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박홍우

-방문: 김안옥, 유영옥, 현만해, Yin Sing Jo

* 감사절 초청잔치 I

-11.11(주) 2부 예배시, 예루살렘성전

-대상: Spanish 정도 대상자

* 감사절 초청잔치 II & 콘서트

-일시: 11.18(주) 4:00pm, 예루살렘성전

-대상: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 정도 대상자

* 추계 부흥성회

-11.30(금)-12.03(주)

-장소: 나팔일 목사(인천 주안장로교회)

* 목장지도자, 심방위원 세미나

-11.18(주) 맨, 2부예배 후

* 새례식/연아식

-11.11(주) 2부예배 시, 예루살렘성전

-교육: 11.04(주) 9:30am, 4층 강의실

-환아식: 12.23(주) 윈즈 2부예배 시

* Back to Jerusalem 메시아 공연 및 성지순례단 모집

-11.29(목)-12.08(목) 7:48pm, \$1250

-문의: 김원석 집사(917.882.4504)

* 맨하탄 시온성가대원 모집

-자격: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연습: 7:30am-예배 전 & 예배 후-11:00am

-문의: 조원진 집사(646.369.7124)

* 사랑교구 연합예배

-11.11(주) 6:00pm, 최성호 집사 60 Jane Dr. Englewood Cliffs, NJ 201.541.8952

* 은혜교구 연합예배

-11.11(주) 2:00pm, 5층 1강의실

* 자비교구 연합예배

-11.18(주) 2:00pm, 5층 1강의실

* 이번 주일 가관별 모임

-제1권사회: 9층 원목 방

-제2권사회: 아대출 식당

-제4권사회: 1:00pm, 7층 권사회실

-이사선교회: 이사선교회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11.04(주)	11.11(주)	11.18(주)
민중기,박재근,박영옥 박이호,박중현,박희도	서범,서성모,서영진 은규우,유일용,이건우	이기영,이재민,이하영 이하용,전일발,정연택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중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201.431.8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Social Service

-11.11(주)까지 9:45am-10:30am, 9층

-방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노후대책,

-노안아파트 신청(신청서류 작성하신 분에 한함) 도와드립니다.

* 성경완독자

-교봉자(화평)

* 식당봉사교구

-11.04(주)-민중교구/11.11(주)-은혜교구/11.18(주)-은유교구

* 알립니다

-양성교구 정순악 권사께서 11.01(목) 소천하셨습니다.

-시영권 분재집이 안내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헌금	주정 헌금
\$122,879.75	\$2,660.00(누계-221,039.98 카 분)	\$12,810(누계-\$600,402.32)

예배안내

	맨하탄성전	윈즈성전
주일 예배	1부 8:30am	1부(영성) 장년성경공부 2부 3부(젊은 예배) 영아예배 8:30am 9:30am 10:30am 1:30pm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한국어학교 8:30am 8:30am 10:30am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Promiseland) 2부 중,고등부(한영) 장애 아동 한국어학교 스페인청년부 10:30am 1:30pm 10:30am 10:30am 1:30pm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중,고등부(FNA) 어린이(Q&A) 8:00pm 8:00pm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목장
사랑	주안 장로	301-431-1153	과테말라	16
희다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0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0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철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00	북철리비아	15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82	페루	11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6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결재	최심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Ch.78 TV	말씀해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5: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윈즈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 321-7889, Fax: (718) 321-9399

번역인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세계의
종교
문화
연구
센터

김남수 목사님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위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맡은이

노승환 집사(권1)/송상규 집사(권1)/김철후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영원하신 주의 사랑 (시온성가대)

【권2】경배 찬송 베풀리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2.권3.권4】【세례요한의 찬양고백】“요5:27-30” 김남수 목사

【권1】【서로 교제하며】“행 2:42” 임용수 목사

성 찬 식 다같이

헌 금 다같이

남성 중창(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101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말 하 탄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조3부(젊은)		
11/11	백민수 집사	온규두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11/18	이강길 집사	유일용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11/25	임일진 집사	윤덕신 집사	신정운 장로	사회자		
12/2	허의호 장로	이기석 집사	안병상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김남수	허연행	임용수	김남수	김남수
사회	유상용	안진성	허연행	임용수	안진성	김상용
기도	홍승창	강성순	권태수	권광열	고용민	김관유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하는 목원들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 찬 85 장, 찬 101 장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눅 7:36-39 Rev. Cristóbal Montejó Alvarado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하여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찾고 있던 죄인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유대인의 풍속에는 잔치에 사람이 초대되어 오면 못 앞에 하인이 지키고 있다가 발을 씻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는 발 가운데 가서 자신의 발을 자리를 지탱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간에 포옹을 하고 키스를 나누고 향유를 머리에도 발라주는 예식을 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런 관습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했지만 관습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게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지만 아무도 입구에서 맞아주지 않았고 발도 씻겨주지 않았고, 예수님 스스로 발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을 곳을 찾으셨고, 누가 저를 나를 포옹해주고 키스해주고 향유를 부어줄 것인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초대받지 않은 불쌍한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그는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 헤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오백을 빚을 쓰고, 또 다른 이는 오십을 빚진 사람 들어 있었는데,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네 생각에는 오백과 오십을 탕감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감사를 하였느냐고 묻자, 시몬은 오백을 빚진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으나 아무도 나의 발을 씻어주고 포옹해 주고 키스해 주고 나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지 않았으나 죄인인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를 향한 진정된 마음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원래 키스는 한데다 하는 것이고, 향유는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고, 포옹은 결코 발을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이러한 것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에 충분한 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눈물이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 앞에서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발을 씻긴 후에 그 발을 밟힐 수권이 있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자가 알면통한 볼 수 있는 인공에 해당하는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든지간에 그녀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전 세계의 금보다도 더 귀한 분이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향한 모든 행위들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광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이름, 재산, 얼굴이 중요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놀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시되, 우리의 형편을 보지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시몬은 많은 방물을 예수님께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단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오직 자기 마음을 깨뜨렸을 뿐이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새벽에 교회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즐겨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진전에 나갑니다. 우리의 이 삶은 언젠가는 빨리 끝나고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지요. 말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음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셔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 3) 예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이현애, Stella Lin, Mee Ying
-방문: Celia Carbajal, 윤진혁, 이용각, 김기호, 금용복, 금평순, 김현희, 김은진

* 감사절 초청잔치 II & 콘서트

-일시: 11.18(주) 4:00pm, 예루살렘성전
-대상: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 전도 대상자

* 추계 부흥성회

-11.30(금)-12.02(주) -감사 나경일 목사(안현 주안장로교회)

* 목장지도자, 심방위원 세미나

-11.18(주) 오후 2부예배 후

* 연아식

-12.23(주) 퀸즈 2부예배 시

* 맨하탄 시온성가대원 모집

-지력: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연습: 7:30am-예배 전 & 예배 후-11:00am
-문의: 조원진 집사(646.309.7124)

* 새가족 침침이 전체 모임

-11.11(주) 1:30pm, 6층 중등부 예배실 침침이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교구 연합예배

-11.11(주) 5:00pm, 최성호 장로 대(80 Jane Dr. Englewood Cliffs, NJ 201.541.8362)

* 은혜교구 연합예배

-11.11(주) 2:00pm, 5층 1강의실

* 자비교구 연합예배

-11.18(주) 2:00pm, 5층 1강의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바리새신교회: 5층 2강의실 -제5권사회: 이삭신교회실
-제6권사회: 7층 권사회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11.11(주)	11.18(주)	11.25(주)
서 법, 서성호, 서법정 윤규우, 유일용, 이관우	이기영, 이재명, 이하영 이하용, 장일민, 장연덕	정원태, 조상열, 조형선 지관용, 최우준, 최재선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정영태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201.491.0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원독자 조미자(사망)-7독, 이화순(충원)-3독, 박연(인내)

* 식당봉사교구 11.11(주)-은혜교구/11.18(주)-은유교구/11.25(주)-절제교구

* 알립니다

-회락교구 김해인 집사(김명수 장로), 믿음교구 아해국 집사의 모친께서 11.05(월)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절제교구 손규원 성도께서 11.08(목) 소천하셨습니다.

-스데반교회 우태균 군과 정승은 양의 결혼식이 11.05(금) Belmore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있었습니다.

-양선교구 최원호 장로, 최우너 권사 가정의 흥빈 군과 소현이 양의 결혼식이
11.03(토) 예루살렘성전에서 있었습니다.

* 지난 주일 한금 통계

Total	아동 급식 현금	주정 현금
\$186,087.12	\$389.50(누계-222,597.88 개 분)	\$13,128.50(누계-\$613,530.82)

예배안내

	맨하탄성전		퀸즈성전	
주일 예배	1부	8:30am	1 부(영성) 장년심경공부	8:30am
			2 부	9:30am
			3 부(젊은 예배)	10:30am
			영어예배	1:30pm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영어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유년,초등부		(Promised) 2부	1:30pm
	중,고등부	8:30am	중,고등부(현,영)	10:30am
	한국어학교	10:2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데반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G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목장
사랑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회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242	멕시코	8
회광	최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2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관 장로	718-896-7003	남북라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북라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1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8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상식 안수집사	914-20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Ch.2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퀸즈 상점: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100, Fax:(718)321-97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순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204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백만수 집사(권1)/은근주 집사(권1)/Rev. Pete Richardson(권2)		
찬 양	심가대	
【권1】 찬양하라 복되심 구세주 예수 (시온성가대)		
【권2】 경배 찬송 베틀라 (여부일행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 16:16」 김남수 목사		
【권2】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 「요 3:27-30」 김남수 목사		
【권3】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 16:16」 김남수 목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라」 「요 3:16」 Rev. Edwin Velazquez		
【증언】 「태마의 선택」 「론 24/딤후 4:10」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민나경 자매(권1)/Juliana Kim & John Suh(권2)		
세례식	다같이	
광 고	사회자	
찬 송	찬 246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 조 3 부(증언)		
11/18	이강길 집사	유일용 집사	이정호 장로	사회자		
11/25	임일진 집사	윤대식 집사	최영호 장로	사회자		
12/02	허의호 장로	이기석 집사	신정용 장로	사회자		
12/09	장성수 집사	이기영 집사	안병삼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허연형	허연형	Richardson	김남수	김남수
사회	유상용	허연형	허연형	안진성	임용수	김성용
기도	김성태	김영호	김영환	김환석	김장훈	김재용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복원들 환영

‘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찬 88 장, 찬 98 장

2) 인도지 또는 인도자가 지휘하는 사립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 “요 3:27-30” 김남수 목사

사람은 신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생선을 먹다가 가사예 불려 죽을 뻔 한 이후로 평생동안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선은 가사예, 이렇게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 신념은 어두운 기 억이나 혹은 경험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념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히틀러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6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고, 빈 라벤은 서구문명은 인류문명을 파괴하므로 이 지구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집념일 뿐입니다. 잘못된 신념은 자신이나 사회나 국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자신의 일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이 신념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좋은 신념은 바람과 풍랑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모를 자기 신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신념보다는 신앙고백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념은 고집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은 고집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요, 신조의 사람들이고 자기 고집이 아닌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념의 사람보다 신앙의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고백을 했고, 예수 다테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위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위대한 신앙고백을 통해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누는 본문의 세례요한은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신앙 고백, 습니다. 나는 베시야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이 베시야이다. 하나님은 어떤양이라, 저를 보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것이 그의 신앙고백입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라기 이후 안후가에 마쳐 새벽 별처럼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적 가문 속에 담비로 불리지는 사위인 소나기와 같이 사람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베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브리엘을 보내서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사가라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방아쇠가 되었던 기적의 출산을 통해 사령 받고 태어난 요한은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출생을 했으며,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척이고, 예수님의 행방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정말 인기 절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신앙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니고, 그 분이 위대하신 분이니까라는 신앙 고백이 철저했던 것입니다. 언약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자기를 공하여 외치는 한 소리일 뿐이다. 그저 길을 닦는 일꾼일 뿐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그 분을 높이 높고는 자기가 방해가 될 것 같아 역시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고백에서 하나님 더 발전해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공연을 할 때에 다른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한 공연에 거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아주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탄과 아이들이 졸라내며 기지를 들고 막 뛰어나가 나귀 다른 동물들은 다 연쇄적으로 잘 하는데 당나라가 갑자기 교만이 들어 서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오다가 중간에서 막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귀에서 내려서 할 수 없이 그냥 걸어오셨 습니다. 또 어느 날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놓고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신념이 나서 뛰는 바람에 예수님이 떨어졌습니다. 이 당나라를 보 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며, 주님을 잘 모 시고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가면, 예수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교회관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 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스도 의 몸을 잘 지켜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철저한 교회관과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매일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더 잘할 수는 없는가, 하나님 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결 수는 없는가?를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습 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람선에서 항공모함으로, 가정교회에서 선교교회로, 은혜로운 교회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변화했습니다. 유람선 타고 먹고 놀던 교회, 재미있고 편하게 놀던 교회가 이제는 세계선교라는 거대한 정령을 위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항공모함 하나가 움직이는 데는 4천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분은 하루 주일 후면 한 권의 책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 수백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회장님 참소로부터 행정, 사무, 재정, 관리, 찬양 등등의 병과 중 에서 내가 적어도 이 항공모함의 어느 위치에서 세계선교의 위대한 영적 정령을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병과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 모함이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면서 각 나라에 거대한 사람의 폭탄, 거대한 성 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과 이마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아들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기관이지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집을 지우는 기관이지 너의 집을 맡기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군사관생도들의 배에 올라가십시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라는 너무 아름다운 포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로, 미래로, 영원으로” 같이 가십시오.

(작품과 나눔)

1)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IV. 사역(Work)

1) 동성 기도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문정희, 이상운, 아득영 -밤문: 최성근, 이수동, 기용차

* 감사절 초청잔치 II & 콘서트

-11.18(주) 4:00pm, 예무실행사
-대상: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 전도 대상자

* 추계 부흥성회

-11.30(금)-12.02(주) -장소: 나래일 목사(인천 주안장로교회)

* Charles Crabtree 목사 초청집회

-12.07(금) 저녁, 12.08(토) 새벽, 12.09(주) 주일예배

* 성탄예배 및 창립 32주년(담임목사 근속30주년) 축하예배

-12.25(화) 11:00am, 예무실행사 -신장문 장로, 공병희 장로 은퇴식

* 41 기 예클레시아

-01.06.2008(주)-09(수) -다락: 유재규 장로(516.898.1555)

* 1 기 EM 예클레시아

-11.29(목)-12.02(주) -문: Sora Choi(201.461.4409)

* 목장지도자/심방위원 세미나

-11.18(주) 맨.2부예배 후

* 헌아식

-12.28(주) 켄즈 2부예배 시

* 브라질 현지목회자를 위한 Conference

-11.22(목)-20(화) -장사: 김남수 목사 -장장: Bill & Randy, Treasures

-참가자: 임용수, 김원호, 이장식, 장민수, 임미경, 정지상, 이다혜(초청생략)

* PGM 선교학교 종강예배

-12.09(목) 8:00pm, 5층 강의실 -대상: 졸업생 전원, 재학생

-말씀: 김남수 목사 저녁식사가 준비됩니다.

* 맨하탄 시온성가대원 모집

-맨하탄 새성전 사대를 준비하면서 시온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만 18세 이상 새례교인 -연습: 7:30am-예배 전 & 예배 후-11:00am

-문의: 조현진 집사(846.308.7124)

* 자비교구 연합예배

-11.18(주) 2:00pm, 5층 1강의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재3경사회: 아사신교회실 -모세신교회: 5층 2강의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11.18(주)	11.25(주)	12.02(주)
이가영, 이재명, 이화영 이화영, 장인원, 장연택	정원태, 조상열, 조형섭 지만용, 최우준, 최재선	하원두, 강성순, 고용명 곽원태, 김관유, 김기성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6)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201.491.6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완독자

-전신대(소망) 2%, 구광대(화평) 2%

* 식당봉사교구

-11.18(주)-은유교구/11.25(주)-절대교구/12.02(주)-사랑교구

* 알립니다

-소명교구 장예경 집사의 부친 장례식 성도께서 11.09(금) 한국에서 소환

-하셨습니다.

-종보기도함이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종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설 및 바움의 수료요청서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아동급식헌금	주정헌금
\$151,276.72	\$815.00(누계-225,867.88 차 분)	\$12,977.00(누계-\$626,507.82)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켄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1 부(영성) 장년성경공부	8:30am
			2 부	9: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8:30am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중,고등부	8:30am	(Premier) 2부	1:30pm
	한국어학교	10:30a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태빈슨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IN)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화번호	선교국가	목장
사탄	주 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342	멕시코	8
화려	허 외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0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종연 안수집사	718-961-5400	북몰리비아	15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1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0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0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5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성사 안수집사	914-260-3440	칠레	8

감람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로그래밍	방송일시
Ch.2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2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생터	토 6:30am

켄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주 일 예 배 순서

시와: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310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맡은이

이강길 집사(권1)/유일용 집사(권1)/이정호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편1】 신마다 편이 탄다 고문 단풍에 (시온성가대)

【편2】 하늘의 주 (여수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편1】 「만남」 「행 9:4」 김삼래 목사

【편2】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 16:16」 김남수 목사

【편3】 「감사장의 축복」 「시 50:23」 김남수 목사

【편4】 「감사의 예술」 「시 50:23, 119:18」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조공자 전도사(권1)/이광숙 사모, 강병호 형제(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489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권 1 하 반	권 2 1 부	권 2 2 부	권 2 3 부(젊은)
11/25	임영진 집사	윤머신 집사	최원호 장로	사회자
12/02	최의호 장로	이기석 집사	신정운 장로	사회자
12/09	장성수 집사	이기영 집사	안병상 장로	사회자
12/16	장한순 집사	이길부 집사	김영수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설교	김남수	김남수	김남수	허연형
사회	유상용	임용수	김상용	허연형
기도	김정열	김종철	김흥재	나경식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것,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 찬 82 장, 찬 96 장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마 16:16 "베드로의 신앙고백" 김남수 목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는 결정과 확실함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삼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졸업 시험도 되면서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 시작도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신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졸업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헬론산 정맥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로서 가이사라라는 황제의 이름과 빌립이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황제와 왕이 같이 세운 도시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도시입니다. 왜 졸업시험을 여기서 보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이 도시는 화려하고 로마의 권세가 있고 물이 풍부하게 나와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축복의 도시요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과 쾌락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시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생들도 신학교 교실에서 시험을 볼 것이 아니라 42가 타입 스펀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시험문제는 첫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둘째,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첫번째 질문의 대답은 헬라어,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모슬렘은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로 알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자나스현으로 알았다. 하나님은 나의 비자나스를 도와주는 분이요, 안 도와주면 기분이 나빠서 강력하게懲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슈퍼맨처럼 생각해서 보아지는 않지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무시하고 해결만 해달라는 것은 그 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부터 13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믿었습니다. 땅에도 믿고, 해에도 믿고, 나무, 바다, 산, 물에도 믿는 것을 오래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원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

백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등 기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돌아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고주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생각하고, 캄비라고도 하고, 상담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평행하신 것을 받지 않고 모든 쪽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짐을 지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야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중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주체이시고, 나는 객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생활을 오래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객체로 만들고 돈이나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 기분에 맞게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종입니다. 저는 1948년 2월 아주 가난하고 먹고 돈 시골 전도사 시절에 처음 미국을 4개월간 방문했습니다. 신발은 다 벗어졌고 비지도 떨어져서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황홀한 불야성의 빌딩숲, 대저택들을 보고 미국이 천국이 조금 안 되는 참으로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77년 9월에 목회를 하러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다보니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42가, 하나님이 없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하나님이 없는 빌딩의 숲, 하나님이 없는 대저택과 자동차의 물결, 하나님이 없는 이 거대한 물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다란 빌딩 숲 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요 찬송합니다. 이 세속의 거대한 권력과 물질과 조직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20년 30년 예수를 믿으신 분들 모두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체이시고 나는 영원이 객체입니다. 아멘.

(작품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IV. 시액(Wick)

1) 통상 기도

2) 헌금과 공고, 주기도문

3) 애잔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박희선, 천지훈, 김유진
-방문: 허장길, 스탠리, 루다아

* 창립 32주년 기념 말씀과 성령 축제

-11.30(금)-12.02(주) 강사: 나경일 목사(안원주인장로교회)
-12.07(금) 저녁, 12.08(토) 새벽, 12.09(주) 주일예배 강사: Rev. Charles Crabtree

* 성탄예배 및 창립 32주년(담임목사 근속30주년) 축하예배

-12.25(화) 11:00am, 예루살렘성전 -신정문 강도, 공평회 장로 은희씨

* 41 기 예클레시아

-01.06.2008(주)-09(수) -다락타: 유재규 장로(516.698.1555)

* 1 기 EM 예클레시아

-11.29(목)-12.02(주) -문의: Sora Choi(201.461.4409)

* 한아시

-12.23(주) 켈즈 2부예배 시

* 세례자 명단

안경자, 윤경희, 최현애, 안나리, 김아라, 박경철, 김명훈, 고현우, 노재준, 고현수

* 브라질 현지목회자를 위한 Conference

-11.22(목)-27(화) -강사: 김남수 목사 -찬양: Bill & Randy, Treasures
-참가자: 임용수, 김영호, 이장석, 정만수, 임미경, 정지상, 이다혜, 구귀영,
이엘리자벳

* PGM 선교학교 종강예배

-12.02(목) 8:00pm, 5층 강아실 -대상: 졸업생 정원, 재학생
-말씀: 김남수 목사 저녁식사가 준비됩니다.

* 조국을 위한 국경기도회(미래한국신문 미주지사 주최)

-12.09(토) 7:30pm, 예루살렘성전 -강사: 김상철 장로(미래한국신문 발행인)

* 맨하탄 시온성가대원 모집

맨하탄 세션전 시대를 준비하면서 시온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연습: 7:30am-예배 전 & 예배 후-11:00am
-문의: 조한진 집사(646.368.7124)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7권사회: 7층 권사회실 -제1안수집사선교회: 1:00pm, 8층 이삭선교회실
-제2안수집사선교회: 1:00, 5층 1강의실
-제3안수집사선교회: 12:40pm, 5층 2강의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11.25(주)	12.02(주)	12.09(주)
정원태, 조상열, 조현철 지만웅, 최우준, 이재선	허원우, 강성순, 고원만 곽은태, 김관유, 김가성	김남근, 김성태, 김성준 김재봉, 김정일, 김종철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원택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잔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201.491.6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봉사교구 11.25(주)-절제교구/12.02(주)-사랑교구/12.09(주)-안내교구

* 알립니다

-Family Today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천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함이 안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설 및 바움의 수리요청서가 안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켄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1부(영성) 장년성경공부	8:30am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영아예배	1:30pm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유년,초등부	8:30am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Promised)	10:30am 1:30pm
	중,고등부	8:30am	중,고등부(영,영)	10:30am
한국어학교	10:20am		장애 아동 한국어학교 스테판청년부	10:30am 1:20pm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중,고등부(FNA) 어린이(QJN)	8:00pm 8:00pm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관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람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화라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8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8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3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임신	이 용 찬 장로	718-806-7003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몰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1
광강	허 제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제 규 장로	516-825-88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5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440	필리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송국	프로그래밍	방송일시
Ch.78 TV	말씀해시는 김남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켄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신 복 음 사 목 교 회

성도들이 갈 남수

주 일 예 배 순 서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16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임왕진 집사(편) / 이가석 집사(편1) / 최원호 장로(편2)

찬 양

[편1] 얼마나 크신지 (시온성가대)

[편2] 주의 봉산으로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편1] (복 있는 사람) "마 51" 김상래 목사

[편1.2] [겨울이 오기 전에] "딤후 4:19-21" 하연형 목사

[말씀] [경건한 삶의 이유] "딤후 47-8/고전 8:13" 김호성 목사

헌 금

Juliana Kim & John Suh(편1) / 인수경 자매(편2)

공 고

찬 송

축 도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2. ...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뻐던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 찬 82 장, 찬 86 장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시편 50:23 "감사함의 축복" 김남수 목사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복이 무엇이고 없으면 살 모
릅니다. 주님의 임금이 기차라는 한인에게 도대체 복이 무엇이고 없었는지 다
섯 가지 복에 대해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 오래 사는 것, 둘째, 부자가 되는 것,
셋째, 편안함, 넷째, 덕을 좋아하는 것, 다섯째, 명예로 살다가 편안히 맞이하
는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아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은..." 하면서 시편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깨닫
고 감사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받은 것을 가졌어도 그 가치를 깨
달지 못하고 감사치 아니하면 행복함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고하
리." (시135:12-14)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 때문에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라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습시다. 요한1,2,3서에 보면 몇몇 다른 것
같은 것을 보석처럼 찾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신통하고 깨끗하고 거
룩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신성하고, 말씀도 신성하
고, 하나님도 신성하고, 예수님도 신성하고, 성령님도 신성하고, 그분과 사람도 신
성하고, 죄사함 받는 것도 신성하고, 형제끼리 사랑받는 것도 신성하고, 빛도 신
성하고, 기쁨부르심도 신성하고... 모든 것을 다 신성한 것으로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자녀으로 대하는 식탁도 신성하고, 맑은 물과
공기도 신성하고,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녀들과 매일 대하는 일터
와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낱마다 귀로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와 구원시킬 수많은 영혼과 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사하고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시다. 우리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라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미국은 감
사로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1620년에 구라에서 140 명이 배를 타고 떠나
서 117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플러머스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찾히는 농사
가 안되고 사냥도 못하고 물고기도 못잡아서 아주 고생을 하고 4명이나 죽었
습시다. 그 이듬해에는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농사도 잘되었습니다. 세번째 해
에 고아온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이후로 역대
대통령들이 감사절만 되면 감사절 메시지를 발표하는 전통이 생겼던 것입니
다. 초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힘하고 고생스러운 사대에 초라한 겸재자를 가
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관하고 풍요로운 사대에 살고 있
으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미국의 위기입
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 우리에게 저주요 불행입니다. 윤기서에 제로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이 일어나 잠옷을 토틀 머리칼을 빗고 땅에 엎드려 겸배하며 기도하 내
가 모래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토함 적신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욥
1:30:21) 이것이 제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앓다가 없어진 것이 아
니라 원래 제로인 것입니다.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
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고, 섭리를 수용하는 자에게 주
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마음
을 가지고 나의 모든 주위 환경을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함께 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품과 나눔)

1)이 말씀을 들으셔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IV. 사미(Work)

1) 통성 기도

2) 헌금과 쿠폰, 주기도문

3) 예배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탄	편 조 1 부	편 조 2 부	편 조 3 부(공은)	
12/02	해의호 장로	이가영 집사	신정운 장로	사회자	
12/09	장성수 집사	이길부 집사	안병상 장로	사회자	
12/16	강현순 집사	이성봉 집사	김명수 장로	사회자	
12/23	김홍재 집사	이성훈 집사	주언중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이승찬	하연형	이화모	김남수	Richardson 김남수
사회	하연형	하연형	유상용	김성웅	안진성 임용수
기도	서영주	석병집	성환술	송상규	유일용 이가석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장영자, 김혜영, 김양애, 김태현
-방문: 장재명, 장창욱, 이병희, Charles

* 창립 32주년 기념 말씀과 성령 축제

-11.30(금)-12.02(주) 감사 나침임 목사(인천 주안장로교회)
-12.01(금) 저녁, 12.08(토) 새벽, 12.09(주) 주일예배 감사: Rev. Charles Crabtree

* 성탄예배 및 창립 32주년(담임목사 근속30주년) 축하예배

-12.25(화) 11:00am, 예루살렘성전 -신정환 장로, 공병희 장로 순회식

* 교협주최 교역자 세미나

-12.03(월) 10:00am, 예루살렘성전 -감사: 나침임 목사

* 41기 애플레시아

-01.05.2008(주)-09(수) -디렉터 유재규 장로(516.698.1555)

* 연아식/세례식

-연아식: 12.23(주) 켄즈 2부예배 시(교육-12.16(주) 1:00pm, 4층 교실)

-세례식: 12.30(주) 켄즈2부예배 시(교육-12.23(주) 9:30am, 4층 교실)

* (영)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12.28(수) 10:30am-12.29(토) 7:00pm, Camp Taconic, Milan, NY

-등록: 12.16(주)까지 \$90, 12.23(주)까지 \$90, 12.30(수)까지 \$200

-문의: 김성웅 전도사(718.321.7800)

* 에코도르 단기선교팀 모집

-선교기간: 01.20.08(주)-26(토) -신청: 01.15(화)까지, 최경남 집사(646.239.6532)

-사역: 어린이 성경학교, 구약, 노방전도, 교회건축, 안경사역

* PGM 선교학교 종강예배

-12.08(목) 8:00pm, 5층 강의실 -대상: 졸업생 전원, 재학생

-말씀: 김남수 목사 -저녁식사가 준비됩니다.

* 창립 32주년 기념 제3회 교구대항 족구대회

-12.16(주) 4:30pm, 베들레헴성전 -문의: 교주회 집사(516.698.6998)

* 조국을 위한 구국기도회(미래한국신문 미주지사 주최)

-12.08(토) 7:30pm, 예루살렘성전 -감사: 김상철 장로(미래한국신문 발행인)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1권사회: 1:00pm, 9층 왼쪽 방 -제2권사회: 1:00pm, 9층 오른쪽 방

-제4권사회: 12:30pm, 7층 권사회실 -이사선교회: 1:00pm, 이사선교회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12.08(주) 12.09(주) 12.16(주)

허위무,장성순,교용민 김남규,김성태,김장훈 나침임,문준이,민준기

곽윤태,김관유,김기성 김재용,김정일,김종철 박병목,박종현,박희도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태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201.491.6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완독자 입일전(화평), 김혜경(희락), 고학현(화평)-6독, 박희도(영성)-2독

식당봉사교구 12.02(주)-사망교구/12.09(주)-인내교구/12.16(주)-재미교구

* 알립니다

-사망교구 김동욱 장로, 김복진 권사 가정의 Shirley 양과 박지호 군의 결혼식이

12.02(주) 5:00pm, Westmont Country Club에서 있습니다.

-소망교구 김영길, 박지나 집사 가정에 11.28(월) 하린(Phoebe)양이 태어났습니다.

-브나엘콘체트라이어의 "Messiah" 공연이 12.08(주) 7:30pm, 링컨센터에서 있습니다. (Ticket이 서랍에 있습니다. \$15)

-중보기도일이 안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 및 비품의 수리요청서가 안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지난 주일 현금 통계

Total 아 동 급 식 헌 금 주 장 헌 금

\$105,676.66 \$890.00(누계-250,697.88 까지) \$11,888.00(누계-\$650,745.02)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맨 하 단 성 전		켄즈 성 전	
	1부	8:30am	1부(영성) 장난성경공부	8:30am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유년,초등부	8:30am	(Promised) 2부	1:30pm
	중,고등부	8:30am	중,고등부(한,영)	10:30am
	한국어학교	10:2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20pm
			스페인학생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창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망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파라과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80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재미	김 종 영 장로	917-254-7405	에콰도르	12
양성	이 용 천 장로	718-896-7003	남폴리비아	14
소망	이창원 안수집사	718-961-5460	바폴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22	페루	11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민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공국	11
은혜	김 형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온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8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9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켄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해튼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세계 선교의 중심지
세계 선교의 중심지



주 일 에 배 순서

사회: 김호성 목사(붉은)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8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씀이

하의호 장로(빨) / 이기영 집사(빨) / 신창원 장로(빨)

찬 양 성가대

【빨】 빛나는 아침 (시온성가대)

【빨】 요나 (여부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빨, 흰】 (베드로의 신앙 원성 과정) "마 16:13-20" 내관일 목사

【흰】 (합심하여) "마 18:18-20" 임용수 목사

【흰】 (고난을 통한 축복) "막 12:4" 내관일 목사

헌 금 다같이

임성중장(흰)

성 찬 식 다같이

광 고 사회자

찬 송 찬 344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맨 하 단	맨 2 1 부	맨 2 2 부	맨 2 3 부(흰)	
12/09	정성수 집사	이길부 집사	안병상 장로	사회자	
12/16	김찬순 집사	이성봉 집사	김명수 장로	사회자	
12/23	김홍재 집사	이성훈 집사	주안중 장로	사회자	
12/30	노승범 집사	이재형 집사	김동복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김남수	허연형	이승환	Richardson Crabtree
사회	유상용	김성용	허연형	임용수	안진성 김남수
기도	이기영	이길부	이성봉	이정진	이창연 이학원

금주 목장 모임 개요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복원들 환영

2) 일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뻐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Worship

1. 곡: 찬 188 장, 찬 370 장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겨울이 오기 전에" 답후 49-51, 59-62 허연형 목사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푸르니에가 쓴 '인생의 4계절'이란 소책자를 보면 자연에 존재하는 4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자연계의 4계절은 끝없이 순환하는데 비해 인생의 계절은 단 한 번뿐이므로 지나간 계절에 연연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아니라, 지금 다가온 계절에 충실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계절적으로 '늦가을'입니다. 한 해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이 남아 있지도 않은 시기'이 말하면 우리 인생이 지나는 풍요롭고 건강함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말도 드를 것입니다. 본문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제 천자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인생의 늦가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1. 그렇다면 인생의 늦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늦가을은 선택(priority 조정)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비장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당시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0대 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딩크 감독이 후반전 중반에 수비수들을 빼고 공격수를 투입하는 마지막 비장한 선택을 하였듯이 말입니다. 그 결과 후반전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그리고 결국은 연장전에서 경기를 승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늦가을 인생을 사는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제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불)이나 젊은 시절(여름) 때처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모두 손에 쥐고 끝만 두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들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그 본을 위한 일, 그리고 그 본의 택성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본 앞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언가 '성취' 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와인과 가지'가 중요하고, 지금까지 '속도'가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할 늦가을에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2) 늦가을은 우리에게 열정(passion)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포도원 주인과 알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 거러에 나가서 일꾼을 찾는 사람들 중 맛을 볼라 포도원 일을 시켰습니다. 그 후 사람이 더 필요하여 아침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어 일을 하게 했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몇 사람을 택하여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풍수를 나누어줄 때 보니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풍수를 나눠주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과 동일한 값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알꾼은 사람들이 항의하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가 나중된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끝날 무렵에 온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마디로 그것은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이 날 하루가 가기 전에 자신을 일꾼으로 써 주는 주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주인이 그 늦은 시간에 자기를 써 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는 비록 한 시간을 일하는 것이지만 일찍 온 사람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였던 것입니다.

시인 안 도현의 시는 나에게 물는다는 시 전문을 보면 "연탄재 한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항한이러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3) 늦가을은 용서(forgiveness)와 화해의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감옥에서/ 혼자 쓸쓸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사역을 시작할 때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그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에는 /누가된 달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 마가였습니다. 사실 전에 사도 바울과 마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청년 마가가 1차 정도 여행에서 잘못 하였던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일 이후로 바울의 마음 속에는 /마가를 잘못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2차 정도 여행에서 동역자 마나바의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를 간절히 찾습니다.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고 / 전에 그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는 용서하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 다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분노를 거둬야 합니다.

전에 뿌리치며 미워했던 마가도 그 손을/ 이제는 잡아주고 용서하고 있는 / 사도바울의 /그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2. 결 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나이 젊어서 인생의 봄 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 쏘이는 한 여름의 청년기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열도 다 떨어지고 쓸쓸한 가을, 그것도 늦가을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계절에 처해 있는지 간에 겨울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하고 싶어도 눈 오고 추워서 일할 수 없는 계절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정리해야 할 미루어진 일들이 누구에게나 남아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작문과 나눔)

1)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2)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IV. 사역(Work)

1) 통성 기도

2) 헌금과 풍고, 주기도문

3) 애찬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동쪽: 장재명, 장원익, 신영철, 왕정지, 박상익, 차주상, 최두영
-방문: 윤지민, 최인호, 하필봉, 안희식, 박근희

* 성탄예배 및 창립 32주년(담임목사 근속30주년) 감사예배

-12.25(화) 11:00am, 예루살렘성전 -신정윤 장로, 공병희 장로, 은희식

* 41기 애크레시아

-01.06.2008(주)-09(수) -다락타 유재규 집사(516.608.1555)

* 한아식/세례식

-한아식: 12.23(주) 퀸즈 2부예배 시(교육-12.16(주) 1:00pm, 4층 교실)
-세례식: 12.30(주) 퀸즈2부예배 시(교육-12.23(주) 9:30am, 4층 교실)

* 새 가족 환영회

-12.23(주) 1:30pm, 5층 강의실
10월-12월 중 새로 오신 가족들과 담임목사님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 도미니카 선교(강준구메모리얼스쿨 기공예배 참석)

-12.10(월)-13(목) 김남수, 김종복, 김성순, 장필순, 임승준, 오문용, 기용차

* 에콰도르 단기선교팀 모집

-선교기간: 01.20(08(주)-20(토) -신청: 12.23(주)까지, 최경남 집사(545.239.6532)
-사역: 어린이 성경학교, 구제, 노방전도, 교회건축, 안경사역

* (영)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12.26(수) 10:30am-12.28(토) 7:00pm, Camp Tropic, Milan, NY
-동쪽: 12.16(주)까지 \$160, 12.23(주)까지 \$180, 12.26(수)까지 \$200
-문의: 김성윤 전도사(718.321.7800)

* 제3회 교구대항 족구대회

-12.16(주) 4:30pm, 베들레헴성전 -문의: 교준혁 집사(516.608.6398)

* 인내교구 연합예배

-12.16(주) 3:00pm, 5층 강의실

* 국악찬양 동호인 모임

-매주일 1:30pm-3:30pm, 월-토 7:00am-8:00am, 8층 연습실
-무용지도: 송화순 집사(718.316.7715) -문의: 박원희 집사(201.606.1702)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재경관사회: 아산선교회실 -재경관사회: 7층 공사회실
-미디어선교회: 5층 2강의실

* 파킹장 봉사자 명단

12.08(주)	12.16(주)	12.23(주)
김남수,김성태,김정훈 김재홍,김정철,김종철	나경식,문준이,반종기 박병욱,박종현,최희도	서 범,석범집,은규두 유일문,이강길,이진우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덕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종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제자 201.481.6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완독자 박경숙(송성)

* 식당봉사교구 12.08(주)-인내교구/12.16(주)-자비교구/12.23(주)-양선교구

* 알립니다

-화재위험으로 인해 교회 내 모든 부서에서 Portable Heater 사용을 금합니다.
-믿음교구 김정현, 이병희 집사 가정의 Jin 양과 Eugene Lee 군의 결혼식이 12.08(토) Westbury Manor, L.I에서 있었습니다.
-희락교구 재영실 집사 가정의 유리 양과 최태이집 군의 결혼식이 12.08(토) 뉴저지동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평강교구 차관 집사, 차현자 권사 가정의 Sharon 양과 Edward Bryant 군의 결혼식이 12.08(주) 3:00pm, Glen Island Harbor Club에서 있었습니다.
-Family Today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니엘콘퍼런스아이의 "Messiah" 공연이 12.09(주) 7:30pm, 린컨서트에서 있습니다. (Ticket이 사점에 있습니다. \$15)
-중보기도회가 안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설 및 비품의 수리요청서가 안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덴 하 탄 성 전	퀸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10:20am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부 1부 (Promised) 10:30am 2부 1:30pm 중,고등부(현.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데반청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담	주 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042	멕시코	8
화관	허 의 호 장로	201-58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5-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0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96-7003	남볼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볼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1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0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9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잠비크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0-28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상식 안수집사	914-230-3440	헝가리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8:00am/11:20pm
라디오코로아	영혼의 센터	토 6:30am

퀸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주 일 예 배 순 서

시화: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178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장성수 집사(권1)/이길부 집사(권1)/안병상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	-----

【권1】 빛나는 아침 (시온성가대)

【권2】 요나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	-----

【권1】 [감사와 축복] "시 50:23" 김남수 목사

【권2】 [하나님의 비전] "잠 29:18" 임용수 목사

【권3】 [Don't Park Here] "빌 3:13" Rev. Charles Crabtree

【말은】 [베레스다나 그리스도나?] "요 5:1-9"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	-----

만나눔 자매(권1)/오케스트라(권2)

관 고	사회자
-----------	-----

찬 송	찬 499 장	다같이
-----------	---------------	-----

축 도	설교자
-----------	-----

다음주일 예배위원

	맨 하 반	맨 즈 1 부	맨 즈 2 부	맨 즈 3부(말은)		
12/9	김찬순 집사	이성봉 집사	김명수 장로	사회자		
12/23	김홍재 집사	이성훈 집사	주언중 장로	사회자		
12/30	노승범 집사	이재명 집사	김동욱 장로	사회자		
01/06	김강수 장로	이정진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하연형	이화모	Richardson	김남수	김남수
사회	유상용	하연형	임용수	안진성	임용수	김성용
기도	이학용	장재원	장인필	장연택	조상열	조소현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복원을 환영

2) 이주일 간에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Fellowship

1) 찬양곡: 찬 133 장, 길질러 호숫가에서(목)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베드로의 신앙완성 과정" 마 16:16-20 나경일 목사

기독교에서 두 기둥이 있다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요, 또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을 배 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활동한 사람입니다. 가말라셀 문하생으로 배움이 활동하고 로마의 법파, 헬라 철학에 능통하며 그 시대 최고봉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흠이 없는 완벽한 유대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큰 일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도 베드로가 큰 일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가장 인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부로 반평생을 자라다가 예수님을 3년 만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 세례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완성자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그렇게 부족한 베드로가 신앙의 완성자가 되어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완성자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하늘나라에서 영영히 큰 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참된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죄인과 부족한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방해도 그물을 던지며 내일 아침 카나를 격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를 못 잡으면 나와 가족이 굶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방해도 못 잡거나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 때 깊은 대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자기 때도 채우고 다른 때도 채울 만큼 채고 남치게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즉각 깨닫고 무릎을 꿇고 이르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저를 매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축복을 받은 다음 언제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기의 부족을 느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계속 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빵과 물로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기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환호를 받지 않고 한치 앞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와 보니 모든 우리가 다 가버리고 베드로만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즉 기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건너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모든 기적을 제임 많이 보았지만 이런 이력과 기사 때문에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여 은혜 받고 성령충만 받고 열심으로 온 사탄 제압하려는 것보다 먼저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놀랍도록 은혜가 넘치고, 온사도 다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받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 우리가 믿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내 신앙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 은혜를 줄 때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풀같이 달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떤 어떤 하면서 이것이 온전한 나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신앙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축복의 상징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배반 한들에서도 매일 것일요, 땅에서 흠된 하늘에

서도 풀리리라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고백을 통하여 가는 길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이 땅에서의 축복도 달라지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새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을 전체가 나의 신앙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이뤄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번째, 뜨거운 애정고백을 하였습니. 이제 주의 약속을 믿고 사인했으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주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다섯번째, 복음전파의 단계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믿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잘 나오도록 양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할 때 자기의 물질과 사랑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가장 보람있는 투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믿어도 내게 축복이 임하지만 만만해도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섯번째, 순교의 단계입니다. 내가 참치리 죽고 예수만 살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 재물과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날마다 산 순교의 연수를 하면 마침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까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기로 결정을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순교의 파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자기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흘린 피와 흘린 눈물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성령의 간여하고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성령충만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가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김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베드로도 이런 소지 앞에서 새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충만을 받자마자 몇날에는 한평생 전도하지 못했으나 능력을 받아 하루아침에 3천 명씩 전도하고 세례를 주는 강력한 능력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성령충만을 받았으면 마지막까지 내내하게 주와 더불어 왕으로 하는 영광의 주인공으로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를 벗어나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바리새와 간 신자가 내가 다시 대신 지고 로마로 올라간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잠깐 놀라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로마로 올라가 신자에게 거꾸로 달리는 순교를 달하여 신앙의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한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에서 영영히 큰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날마다 열심으로 간구하여 성령충만을 받아 베드로 같은 위대한 신앙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셔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면,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IV. 사역(Work)

1) 찬양 기도

2) 헌금과 관고, 주기도문

3) 애정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추진우, 구지은, 유정호, 유소희, 유다영, Michael An, 이하나, 최기호
도유정, 김재분, 김수빈

-방문: 김귀례, 인애식, 박근희, 조도현, 김정현, 장은송, David Yoon

성탄예배 및 창립 32주년(담임목사 근속30주년) 감사예배

-12.25(화) 11:00am, 예루살렘성전 -상징은 장로, 공평의 장로 은파식

41기 에블레시아

-01.06.2008(주)-(9(수)) -다락바: 유재규 장로(516.698.1565)

연아식/세례식

-연아식: 12.23(주) 캠프 2부예배 시(교육-12.16(주) 1:00pm, 2층 강의실)

-세례식: 12.30(주) 캠프2부예배 시(교육-12.23(주) 9:30am, 4층 교실)

새 가족 환영회

-12.23(주) 1:30pm, 5층 강의실
10월-12월 중 새로 오신 가족들과 담임목사님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과도로 단기선교팀 모집

-선교기간: 01.20.08(주)-26(토) -신청: 12.23(주)까지, 최경남 집사(646.299.6532)

-회비: \$1000 -사예: 어린이 성경학교, 구재, 노방전도, 교회건축, 인경사여

(영)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12.23(수) 10:30am-12.29(토) 7:00pm, Camp Taconic, Milan, NY

-등록: 12.16(주)까지 \$60, 12.23(주)까지 \$180, 12.29(수)까지 \$300

-문의: 김상용 전도사(718.321.7800)

제3회 교구대항 족구대회

-12.16(주) 4:30pm, 베들레헴성전 -문의: 고준희 집사(516.603.6308)

인내교구 연합예배

-12.16(주) 3:00pm, 5층 강의실

국악찬양 동호인 모임

-매주일 1:30pm-3:30pm, 월-토 7:00am-8:00am, 8층 연습실

-무용지도: 송화순 집사(718.316.7715) -문의: 박연희 집사(301.606.1702)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3경사회: 8층 이사선교회실 -모세선교회: 5층 2강의실

파킹장 봉사자 명단

12.16(주)	12.23(주)	12.30(주)
나경식,문준이,만중기 박범옥,박중현,박희도	서 범,석임정,윤규두 유일용,이강길,이건우	이기영,이재명,이하영 이하용,전일필,장연택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9)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중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제자 201.491.6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완독자 김계유(믿음), 고화현(화평)-7독

식당봉사교구

12.16(주)-자비교구/12.23(주)-양선교구/12.30(주)-소망교구

알립니다

-자비교구 조기덕 권사께서 12.04(화) 소천하셨습니다.

-화평교구 이치호, 숙희 성도 가정에 12.12(수) 서안(Audrey) 양이 태어났습니다.

-화재위험으로 인해 교회 내 모든 부서에서 Portable Heater 사용을 금합니다.

-Family Today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함이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 및 비품의 수리요청서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안내

	벧 하 탄 성 전	캠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1 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 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영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영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현영) 10:30am 장애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데반청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청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 구 장	전 화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시합	주 언 중 장로	201-491-1153	과테말라	16
화평	김홍재 안수집사	967-533-9242	멕시코	8
화평	허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인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6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86-7003	남벨리비아	14
소망	이창연 안수집사	718-961-5460	북벨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1
광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06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6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2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터넷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마주가목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캠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 321-7800, Fax: (718) 321-9594

캠피틴 빌딩: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서번역대학교

100대시 길 복수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116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강창순 집사(권1)/이성봉 집사(권1)/김영수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권1】 골 오소서 영아누엘 (사온성가대)

【권2】 Hear the Angels Singing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준비된 성탄절】 “마 23-11” 김남수 목사

【권1】 【목자들의 기쁨】 “눅 28-29” 임용수 목사

【권2】 【Who is Jesus to You?】 “요 8:38-42”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최수연 집사(권1)/김선희 자매(권2)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111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찬 하 단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조3부(공은)		
12/23	김홍재 집사	이성훈 집사	주연종 장로	사회자		
12/30	노승현 집사	이재명 집사	김동욱 장로	사회자		
01/06	김갑수 장로	이정진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01/13	박민수 집사	이창현 집사	박준성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김남수	허연형	임용수	Richardson	김남수
사회	허연형	유상운	허연형	임용수	안진성	김성용
기도	최상식	한승환	홍승환	강성순	고용민	권광열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주일 간의 삶과 신앙(가뭇만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 찬 411 장, 찬 406 장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빌 3:12-14 "Don't Park Here" Rev. Charles Crabtree

오늘 진해로일 말씀은 "여기에서 피라하지 마십시오" 라는 다분히 미국적인 표현의 제목을 가진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지난날 수많은 수고와 압박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많이 쓰고, 여러 곳으로 전도여행을 하고, 또 교회의 감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며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일이 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여행의 과정을 그 시작부터 잘 보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첫 해에는 믿음이 아주 급성장할 하지만 얼마 후 이민하면 자기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멈춰서기를 바라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의 장애 때문에 멈춰서지 마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나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뤄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신체적인 장애와 재한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호세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 교회에 합제회를 다는 장애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은 장애인이라 합제회를 타아오는 장애를 가진 정상적인 사람일 뿐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데 장애로 인해 제한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한두 가지씩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나이가 들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젊고, 어떤 분은 교육을 안 받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너무 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요 그가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는 삼강을 한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할 분도 나는 행대함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변명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둘째, 여러분의 실수와 죄로 인해 멈춰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고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거의 포기하고 싶을 때 마귀는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장래가 없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 줄 정도로 아주 고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죄수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실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을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일도 시작할 때는 살수 투성이었습니다. 나에게서 라디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 스페게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높은 의자에 앉아서 스페게티를 먹는데, 부모가 좀 도와주려고 하면 자기가 혼자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보를 다 깔고 앞치마를 돌려주는 먹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흘러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는 좋은 이탈리아 식당에서 포크와 스푼으로 스페게티를 잘 잡아서 알맞게 먹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자꾸만 스페게티를 흘리고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어지르고 먹으면 평생 다시는 스페게티를 주지 않겠다' 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라디라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라디에게 세번까지 넘어질 기회를 줄테니 잡아보이라 하고서, 아이가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나고 두 번째 넘어졌다 일어나고 세 번째 넘어졌다 하고서 우리가 견지 못하는 아이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벌써 두번이나 실수를 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죄와 실수때문에 멈춰서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시오. 너희가 실수하는 것을 안다. 내가 용서했다.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자고 하십니다. 합당하게!

<작품과 나눔>

-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IV. 사역(Work)

- 1) 통성 기도
- 2) 헌금과 공과, 주기도문
- 3) 애잔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 등록: 정가수, 예준섭, 예정숙, 심정수, 박효숙, 박하연, 박은수, 이정희, 지창일
 지만아, 지현식, 지현민, 김다규, 홍수현, 하원준
 -방문: 이희남, 유승연, 김민지, Jario Madrid, 이은무

* 성탄절야예배

- 12.24(월) 8:30pm 크리스마스이브 축제(Promiseland, 중고등부, NYCE Band)
 12:00am 성탄축하자랑예배, 예루살렘성전

* 성탄예배 및 창립 32주년(담임목사 근속30주년) 감사예배

- 12.25(화) 11:00am, 예루살렘성전 -신정운 장로, 공방회 장로, 은희식

* 맨하탄 새성전 입당 준비기도회 -12.25(화) 8:30am, 맨하탄 새성전

- 기도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며, 번즈성전에서 7:30am 랜이 출발합니다.

* 송구영신예배

- 12.31(월) 10:00pm, 교구별 특송 및 간증, 11:30pm부터 찬양 시작

* 신년금식성회 -01.01.08(화)-08(목) -감사: 김남수 목사 외

* 41기 애플렉시아

- 01.06.2008(주)-09(수) -다락타: 유재규 장로(518.668.1555)

* 세례식 -세례식: 12.30(주) 콘즈2부예배 시(교육-12.29(주) 9:30am, 4층 교실)

* 새 가족 환영회 -12.29(주) 1:30pm, 5층 강의실

- 10월-12월 중 새로 오신 가족들과 담임목사님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 예곡도르 단기선교팀 모집

- 선교기간: 01.20.08(주)-28(토) -신청: 12.29(주)까지, 최경남 집사(646.239.6532)
 -회비: \$1000 -사약: 어린이 성경학교, 구제, 노방전도, 교회건축, 안경사역
 컴퓨터, 전자레인지 기증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영)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 12.28(수) 10:30am-12.29(토) 7:00pm, Camp Taconic, Milan, NY
 -등록: 12.18(주)까지 \$160, 12.29(주)까지 \$180, 12.28(수)까지 \$200
 -문의: 김성웅 권도사(718.321.7800)

* 제3회 교구대항 족구대회 결과

- 우승-소방교구, 준우승-평강교구, 3등-말뚝교구, 최우수선수-김민호 집사

* 은유교구 연합예배

- 01.13.08(주) 2부예배 후, 5층 1강의실 식사가 준비됩니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 제1안수집사선교회: 1:00pm, 아사선교회실 -제2안수집사선교회: 7층 선교회실
 -제3안수집사선교회: 5층 2강의실 -제7권사회: 7층 권사회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12.29(주)	12.30(주)	01.06(주)
서 법, 박정자, 은규부 유일용, 이강길, 이진우	이기형, 이재명, 이하영 이학용, 정일필, 장연택	정원태, 조상열, 조소현 조형섭, 지만용, 최성식

* 의료위원회의 무료 건강상담 안내

-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8)

* 식당봉사교구 12.29(주)-양선교구/12.30(주)-소방교구/01.06(주)-충성교구

* 알립니다

- Promise 시액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 받아가셔서 다음 주
 까지 봉사신청서를 안내석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락교구 장성희, 현희 집사 가정에 12.05(수) 예나 양이 태어났습니다.
 -Family Today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정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함이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 및 비품의 수리요청서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주 청 헌 금
\$110,427.03	\$12,950(누계-\$693,437.18)

예 배 안 내

	맨 하 탄 성 전	캠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양아예배 1:30pm	1부(영성) 8:30am 장년성경공부 9:30am 2부 10:30am 3 부(젊은 예배) 1:30pm 양아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양아,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어 아동 10:30am 한국어학교 1:30pm 스태반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청,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전화 번호	선교 국가	목장
서방	주 인 중 장로	201-491-1153	파라과과	16
희락	김홍재 안수집사	917-533-9042	멕시코	8
희락	하 외 호 장로	201-568-0549	코스타리카	10
안해	김 종 복 장로	718-749-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1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86-7003	남볼리비아	14
소방	이창언 안수집사	718-961-5460	북볼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62	페루	11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말뚝	유 재 규 장로	516-625-895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8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상식 안수집사	914-280-3440	칠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말씀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인타네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마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9:00am/11:3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샘터	토 6:30am

캠즈 성전: 130-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394
 맨하탄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

110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주 일 예 배 순 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112 장	
대표기도		말은이
김홍재 집사(권1)/이성훈 집사(권1)/주연중 장로(권2)		
찬 양		성가대
【편1】 영광과 찬미 (시온성가대)		
【편2】 크리스마스 칸타타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편.권2】 주님이 오심을 「눅 28-14」 김남수 목사		
【권1】 준비된 성탄절 「마 29-11」 김남수 목사		
【편은1】 「노엘」의 의미 「눅 21-20」 김오성 목사		
헌 금		다같이
Julius Kim & John Suh(편1)/송창(편2)		
공 고		사회자
헌 아 식		김남수 목사
찬 송	찬 136 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편 하 탄	편 조 1 부	편 조 2 부	편 조 3 부(공은)		
12/30	노승범 집사	이재명 집사	김동욱 장로	사회자		
01/06	김갑수 장로	이정진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01/13	박만수 집사	이창언 집사	백준성 장로	사회자		
01/20	이강길 집사	이학열 집사	김갑수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임용수	김남수	이학모	Richardson	김남수	김남수
사회	임용수	임용수	안진성	이영서	유상용	유상용
기도	권태수	김관유	김성태	김영호	김영환	김원서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 주일 간의 삶과 신앙(기쁜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 찬 116 장, 찬 111 장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준비된 성탄절" 마 29-11 김 남수 목사

우리는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잘 준비해서 맞이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주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연례행사나 또는 매년 지나가는 하나의 항박의 절기로 끝나기 쉽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없는 X-Mas 가 되어서, 주인공 대신 술과 오락과 도박과 항박이 판을 치는 거북하고 고통스런 어두운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래 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영어로 수도 없고 그날 문문을 한글로 바꿔 '구주 성탄일'이라 하고, 소나무 가지 및 개가 성탄 짐승이고 크리스마스 찬송도 따로 없던 시절, 일국의 왕자 하나만 태어나도 온 국민이 술과 춤으로 즐기는데, 하나님 종이 탄생하신 날에 그날 자낼 수가 없다고 하면서 파죽지를 서로 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초창기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다 환한 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는 경건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마태복을 2장 9-11절에 보면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유향은 구약시대 제사장에게 부여되는 거룩한 기름 4 가지 중에 한 가지였고 몰약은 방부제나 고통을 줄이는 마취제로 사용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사실 막 출생한 아이한테 황금과 유향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배할 예물을 준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어인을 향해 값비싼 것을 낭비했다고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한 헌신과 희생이 복음과 함께 전파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일과 가치 죄가 있습니다.

1.인격 없는 지식

2.양심 없는 쾌락

3.일 없는 건강(시간과 건강을 주셨으면, 주님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건강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4.도덕 없는 상업

5.원칙 없는 정배(정치, 사업 등 무슨 일을 하든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는 정략은 죄입니다)

6.인도 없는 과해(인간성을 잃어버린 쾌락, 이것은 사람을 복제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여러가지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7.희생 없는 종교(아무 것도 하기 싫고, 아무 것도 희생을 원치 않는 그런 종교가 현대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복자들과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을 주님께 준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을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날에 주님께 기쁘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 그분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과 나눔)

1)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IV. 시약(Work)

1) 동성 기도

2) 헌금과 공고, 추기도문

3) 애잔

• 지난 주일 처음 오신 분

-등록: 신상자, 황영숙, 진경혜, 정관옥, 심민아, 김종옥, 김재남, 김재민, 심진아, 김상국
-발문: 김정은, 김윤경, 유영숙, 이종훈, 김병관, 김윤정, 김성주, 김동철, 신숙영, 이민진, 이윤진, 이재성, 신안숙

• 송구영신예배

-12.11(월) 10:00pm, 교구별 특송 및 간증, 11:30pm부터 찬양 시작

• 신년금식성회

-01.01(화) 새벽-02(목) 오후 성찬식 -강사: 김남수 목사 외

• 신년하례예배

-01.02(수) 8:15pm, 예루살렘성전, 7:00pm에 식사가 준비됩니다.
-대상: 교역자(은회/협동포함), 장로(은회/은회/협동/전입포함), 안수집사, 직원, 부부동반으로 한복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 41 기 예클레시아

-01.06.2008(주)-08(수) -다메다: 유재규 장로(516.008.1555)

• 소망교구 연합예배

-01.06(주) 4:00pm, 갯재마네성전

• 은유교구 연합예배

-01.13(주) 2차예배 후, 5층 1강의실 식사가 준비됩니다.

• 제4권사회 월례회

-01.06(주) 1:00pm, 7층 권사회의실

• 이번 주일 기관별 모임

-제3안수집사선교회: 5층 2강의실

• 파랑장 봉사자 명단

12.30(주)	01.06(주)	01.13(주)
이기영, 이재민, 이화영, 이학은, 장일림, 정연택	정원태, 조상영, 조소원, 조원갑, 지만용, 최상식	최우준, 하재선, 김성순, 고윤민, 최윤태, 김관용

• 의료위원회 무료 건강상담 안내

-매 주일 12:30-2:30pm, 4층 의무실 -진료과목: 내과, 치과, 외과, 한방과

• 도서관(5층) 이용 안내

-매 주일 9:15am-10:45am, 12:30pm-3:30pm -문의: 장연택 집사(718.877.8289)

• 무료 대학 학자금/진학 상담

-매 주일 1:00-3:00pm -상담: 박정현 집사(대학 학자금 가이드 저자 2014.01.0001)
상담하실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완독자 김유재(자비)

• 식당봉사교구 12.30(주)-소망교구/01.06(주)-은유교구/01.13(주)-파랑교구

• 알립니다

-2008년 새 해에도 "사랑의 한 끼 Lunch Box" 헌금과 주정헌금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mise 사역 봉사 신청서를 오늘까지 안내책이나 교구장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사역에 참여하시는 새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피도르 선교지에 컴퓨터, 전자레인지 기증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회경남 집사(546.230.6532)

-Family Today 12월호가 나옵니다. 전도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장이 안내책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설 및 비품의 수리요청서가 안내책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지난 주일 헌금 통계

Total	주 정 헌 금
\$180,169.90	\$11,788(누계-\$705,195.18)

예 배 안 내

	덴 하 탄 성 전	캠 즈 성 전
주일 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3부(젊은 예배) 영어예배 1:30pm	1부(영성) 장년성경공부 8:30am 2부 9:30am 3부(젊은 예배) 영어예배 1:30pm
교회 학교	유아,유치 8:30am 유년,초등부 8:30am 중,고등부 10:20am 한국어학교	영어유아유치,유초등부 1부 10:30am (Promiseland) 2부 1:30pm 중,고등부(한,영) 10:30am 장래 아동 한국어학교 1:20pm 스페인장년부 3:30pm
찬양 예배		수요 찬양(장년) 8:00pm
새벽 기도		월~토 5:30am
금요 예배		창,장년 8:00pm 중,고등부(FNA) 8:00pm 어린이(QJN) 8:00pm

교 구 및 선교국가 안내

교구	교구 장	장 회 번 호	선 교 국 가	목장
사단	주 인 중 장로	201-491-1153	파라과과	16
화막	김홍재 안수집사	907-533-9342	멕시코	8
화평	해 의 호 장로	201-568-0349	코스타리카	10
안내	김 종 복 장로	718-746-7405	도미니카공화국	13
자비	김 종 영 장로	907-254-7435	에콰도르	12
양선	이 용 찬 장로	718-890-7003	남몰리비아	14
소망	이창언 안수집사	718-961-5460	북몰리비아	16
충성	최 흥 선 장로	631-277-5682	페루	11
평강	하 재 린 장로	631-271-6507	탄자니아	10
믿음	유 재 규 장로	516-825-8867	베네수엘라,중국	11
은혜	김 할 후 장로	718-661-3521	모로코	10
은유	백 준 성 장로	718-743-2874	엘살바도르,케냐	7
절제	최성식 안수집사	914-260-3440	일레	8

김남수 목사님 설교 방송 시간 안내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명	방 송 일 시
Ch.76 TV	방송하시는 하나님	토 11:30pm @21대
Ch.57 TV	Promise Ministry	화/토 10:00am/8:30pm
미주기독교방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수 8:00am/11:20pm
라디오코리아	영혼의 새벽	토 6:30am

캠 즈 성전: 139-30 31st Avenue, Flushing, NY 11354
Tel:(718)321-7800, Fax:(718)321-9794
엔히만 성전: 40 West 68th Street, New York, NY 10023
www.PromiseNY.com

Promise Ministries
WORLD MISSION CENTER
성경의 나라를 위하여
김남수 목사님

주 일 예 배 순서

사회 임용수 목사(권1)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 31 장 다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노승범 집사(권1)/이재명 집사(권1)/김동욱 장로(권2)

찬 양 성기대

【권1】 나와 가는 길 (시온성가대)

【권2】 감사해 (예루살렘성가대)

설 교 설교자

【권1】 그리스도의 좋은 공사 | “딤후 23-4” 김남수 목사

【권2】 주님이 오심을 | “눅 28-14” 김남수 목사

【말은】 우리 앞에 닫힌 경주 | “히 12:1-3” 김호성 목사

헌 금 다같이

김여경 자매, 임용수 집사(권2)

세례식 김남수 목사

공 고 사회자

찬 송 찬 390 장 다같이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 예배위원

	변 하 탄	권 조 1 부	권 조 2 부	권조3부(집은)		
01/06	김갑수 장로	이정진 집사	최성호 장로	사회자		
01/13	박민수 집사	이정연 집사	백준성 장로	사회자		
01/20	이강길 집사	이화열 집사	김갑수 장로	사회자		
01/27	양일진 집사	이학용 집사	유재규 장로	사회자		
새벽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설교	김남수	김남수	이승환	이희모	김남수	김남수
사회	임용수	안진성	유상용	김상래	김성용	이영서
기도	김장훈	김재용	김정업	김종현	김홍재	나경식

금주 목장 모임 가이드

I. 환영(Welcome)

1) 도착하는 목원들 환영

주일 간의 삶과 신앙(가뻘던 일, 감사할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나누기

II. 찬양(Worship)

1) 찬양곡 : 찬 112 장, 찬 136 장

2) 인도자 또는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한다.

III. 말씀(Word): “주님이 오심을” 마 28:28 김남수 목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가치를 알고 크리스마스를 감사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도 모르면서 총창대지만 우리는 성탄절의 참 필요와 의미,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가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성기를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기로 오신 것입니다. 높은 분이 낮은 인간을, 귀한 분이 천한 우리를 성기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신비요, 은혜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성기로 되어있지,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성기는 기독교 같은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죄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무슨 자와 발들어 고통 받는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 약눌려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성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굿간이라는 낮은 자리였으며, 시애틀시는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 받지 못하고 다그네와 같은 낮은 겸손한 삶을 사셨으며,

둘째, 회고의 향방인 십자가를 받고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형제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약권자입니다. 이 66권의 간권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 무지 많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권자만으로 안되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기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심은 우리를 구출하기 위함입니다. 구출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과 고통을 장난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37:8) 다윗도 그의 시 속에 하나님은 무리를 구출하시는 분이시고 여러 번 썼습니다. 수많은 원수와 적에게서,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도록 보고만 있지 않고 구출 작전을 합니다. 요샌도 형들에게 도움을 사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트루벤이 저를 죽음에서 구출해주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에서 구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사형수가 된 용악범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의 신체를 기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기에 사화에 미안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고백을 하고, 가족들에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이제 죽어 천국 가니 예수 믿을 잘 믿으라는 인사를 나누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악범만 죄인입니까? 우리도 죄인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 우리도 이미 사망언도를 받았으며, 저주와 사망 가운데 떨어진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서 살려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제가 되어 축복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도 구출받은 자로서 주님처럼 구출하고 성기는 일에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책을 읽고 있으면서, 땅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책을 미처 읽고 생각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책을 넘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출 받았으면 이제는 구출하는 일을 위해서 앞서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잊으리니 진실로 자 없으리라” (사50:22) 주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십니다.

(작품과 나눔)

1)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그 소감을 서로 나누어보세요.

IV. 사역(Work)

1) 통성 기도

2) 헌금과 광고, 주기도문

3) 예찬